

MAXIM

KOREA

**GAME
ON FIRE**

한글 버전 **디아블로3**

이에 맞서는 국산 게임의 몸부림

**SMART
TENNIS
GEAR**

**MOTOR
7CAR,
7CARGO**

DIGITAL ISSUE
스마트폰 천하 삼분지계

팔방미인 메이비
**THIS MAYBE
THE HOTTEST
MAYBEE EVER**

극악 무도
마피아 보스

11

코난의 그녀

**RACHEL
NICHOLS**

근성의 아이콘
만화가 김성모

SEX-tory
그녀와 달콤한
아침 만들기

노라조 이혁
씨니힐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2011년 9월호
정가 5,400원

SONY
make.believe



그녀가 옆자리에 있다_ 두근두근 설렘 **EMOTIONAL**



달리는 이 순간만은_Friday Night **PARTY RIDE**

기분에 따라
알아서 **PLAY** 한다

 SensMe™ **Sens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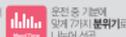
PLAY with SensMe

소니 카오디오 **CDX-GT700UI**



SensMe™ 12톤 Analysis 기술로 기분에 따라 즐기는 SensMe

기존의 랜덤 재생과는 달리, 센스미 제법은 소니의 12톤 Analysis 기술로 음악의 템포와 분위기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분류하여 시간 정소 기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재생시켜줍니다.



실감나게 즐긴다! ASE

Advanced Sound Engine이 디지털 신호처리로 차량 내 이상적인 음장을 만들어 더욱 실감나게 음악을 들려줍니다.

Color Illuminator

다이나믹 컬러 일루미네이터를 이용하여 차량 인테리어에 맞게 디스플레이와 버튼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5 LOVE 그녀가 밝히는 모닝섹스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루의 시작은 모닝섹스가 진리.

70 ICON:

작가 김성모

그분이 보여준 환란한 개나리 스타일에 자비심 따윈 없었다.

72 본격 탐구:

디아블로3

에디터 김군이 불리자드 미국 본사에서 직접 플레이해봤다. 이놈 진짜 물건이다.

78 2012 자구 멸망

시나리오

인류 퇴멸의 해 2025년. 아직도 사과나무따낼 심을 생각인가?

90 광개토대왕함

침투 작전

대왕님의 사랑, 산비하고 놀리웬

94 반짝반짝 차수정

오늘부터 당신은 트로트가 좋아질 거다. 인형 같은 얼굴에 속깊은 가슴을 가진 트로트 가수 차수정 때문이다.

100 HUMAN VS WATER

비싼 물, 더러운 물, 무서운 물.

하지만 우린 지지 않아.

112 마피아의 길

돈은 이렇게 버는 거다.

116 싸니힐

음악 밖에 모르는 광대 싸니힐

120 왜 그는 '그'

모터 사이클을 타는가

왜 시타100이 아니고 두카티여? 영화 속 주인공들이 바이크를 선택하는 기준은 대체 뭐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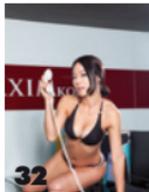
82 메이비

아름다운 그녀 메이비. MAXIMI 준비한 최고의 추석 선물이다. 잡지 덮을 때 이미 당신은 소장용 9월호를 1권 더 지르고 있을 거다. 백문이 불여일견!



104 레이첼 니콜스

명문대 출신의 아름다운
여배우가 그리스 석상에
꼭 매는 이유는?



32



42



47



70

12 CIRCUS MAXIMUS

배우 에밀리언 허먼정의 비키니 육탄 공세, 스튜어디스 여친 골라잡이, 무조건 제일 비싼 것, 정신 나간 여친 구법법, DIY 섹스 영상, 성룡도 울고 갈 파쿠르, <스카메이스트> 완전 정보, 멋진 할배로 사는 법, 나이저리아 사기단, MAXIM OFFICE ASSISTANT

34 24 HOURS TO LIVE: 노라조 이혁

아~~~~ 신리의 바하하하함이여락으로 돌아쥌!

35 RATED

다!3의 국산 대항마, 총질 잘하는 여배우 열전, 무생물을 내 여자로 만드는 열, 작업에 최적화된 대형 뮤지컬들, 게임을 품은 책

43 SPORTS

황당 부상 TOP 10

47 STUFF

방방 뽕뽕 트럼폴린, 색시걸의 색시 아이폰, 테니스의 왕자가 되기 위한 테니스 기어, 스피커를 담은 캐리커토이, 유아한 시계

55 MOTOR

숨막히는 뒤태 시리즈: 3명의 뒤태 미녀와 7대의 뒤태가 멋진 자동차, 연비 최강 스파크와 모닝의 마지막 대결, 펜타포트에 온 미스에 이 뒷담화

124 STYLE

오늘 당신이 입어야 할 청바지는? 젊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합리적인 만년필, 탈모인을 위한 샴푸, 구애 정 신발

134 THE MAXIM PARTY

아이오 소라, 티베인, 와이클리프 진이 왔다. MAXIM 좋은 건 알아가지고.

144 MAXIM INSIDER

생명 연장 프로젝트 성공! 에디터 김군의 일기는 9월에도 계속된다.

편집장 이영미
yh@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수석에디터 차경희 koko@maximkorea.net
에디터 과성민 sm@maximkorea.net
대리 김성현 psycho@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주임 김희성 alicea@maximkorea.net
사원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사원 송종민 jm@maximkorea.net
객원에디터 김태영 storm@maximkorea.net
이준호 pep04@maximkorea.net
장바버 julahar1@maximkorea.net
어시스턴트 조유림 new@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정미연 berrymee@maximkorea.net
주임 이윤학 eastcoast@maximkorea.net
사원 이봉라 borala@maximkorea.net
일러스트레이터 서민 전영준 zirogo@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 기획 전략

이사 소상혁 so@maximkorea.net
과장 진무빈 woobin@maximkorea.net
과장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최안림 jy@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대리 김중국 jk@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대리 송슬미 soulmate@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웹상 서장민 orisis@town.com

발행인/ 대표이사 이혜성

전무이사 김경선 / 이사 양지영 / 이사 원해복 / 이사 소상혁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인쇄 · 유통분해 (주)타인테크비즈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자리에 위치한 인쇄인 이원순

유통 승주출판유통



발행처 (주)타인테크비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89-30 MAXIM KOFEA 빌딩 1~4층
TEL. 02-323-182 / FAX. 02-645-080
2011년 9월호 정권 제1호 / 등록일자 2002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 라-00250

MAXIM KOREA는 세계 30개국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 그룹은 2008년 7월 29일부로 대한민국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 MAXIM의 한국판임을 승인 받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유일한 서비스용 유통업체 독립법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알파미디어 그룹의 알파미디어 외에 어떠한 형태로도 MAXIM을 표 레이드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진인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Y Media에 귀속되며 무단으로 열람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EVENUE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W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DENNIS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4th Floor,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MAXIM INTERNATIONAL EDITION / EDITOR IN CHIEF

 USA **JOE LEVY**

 ESPANOL-US HISPANIC **ANDRÉ FÉLIX DIAZ ROJO**
Dominican Republic

 UNITED KINGDOM **BEN RAWORTH**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FRANCE **FRANÇOIS DE GUILLEBON**
Belgium, Switzerland, Canada, Quebec

 GERMANY **MIKE BLEIBTREU**
Austria, Lichtenstein, Switzerland

 CZECH REPUBLIC **PAVEL VONDRAČEK**
Slovakia

 SERBIA **LAZAR JOVANOVIĆ**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m

 TURKEY **KAAN KUSTUTAN**
Cyprus

 ITALY **CARLO CROCI**

 PORTUGAL **PEDRO JAVALOYES**

 RUSSIA **SASHA MALENKOV**

 ARGENTINA **GERMAN PITTELLI**

 BRAZIL **ROMARIO OLIVEIRA**

 BULGARIA **HRISTO ZAPRYEVA**

 GREECE **GEORGE FOTINOPOULOS**

 INDIA **VIVEK PAREK**

 INDONESIA **TITAN HARINDA**

 THAILAND **SIRDTE PETCHJAMROANSUK**

 UKRAINE **SASHA MALENKOV**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maximkorea.net

copyright©2011 Dennis Publishing Inc.
Alpha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t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Got MAXIM?



경고 ①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만 그립니다. MAXIM은 폐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은 아니어도 내 가족, 이웃까지도 물리게 합니다. 아이패드용 MAXIM에는 중독성 물질인 불용영상, 미공개컷, 독한농담, 우수암컷, 때깔기게, 교미사실, 독점해법, 거친수컷, 폐인!게임, 총질잡질, 프로운동, 새만차량, 오드바이, 만취음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유료 아이패드 매거진 중 매출순위가 부동의 1위인가 봅니다.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LETTER FROM MAXIM

근성(根性) 핵심!
100호까지 한 달!

MAXIM 일을 하면서 가장 궁금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 중 하나가 만화가 김성모 씨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성장에 그의 만화가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만화 팬들이 투척한 수많은 팔방들은 시시한 게시물들에 생명을 주었으며, 김성모 특유의 '극단적인 창의성이 돋보이는 표현 방식'은 인생 때분한 사람들의 비리 비리한 언어 생활에 나쁜 재치를 선물했다. 작품도 작품이지만 작가 김성모 그 자체가 비범한 유형이고 유쾌했다.

생각해보면 그가 남긴 주옥 같은 표현과 설정 중엔 범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들이 많다. 그중 일부 명대사는 이미 9월호 뒷 표지에 잔뜩 담아놨으니 천천히 읽어보도록. (잘 안 보인다고 화내지 마라, 근성을 가지고 보란 말이다!)

매일 '과연 이 상태로 쓸만한 게 나올까? 스케줄은 맞출 수 있을까? 피로위하여 머리를 쥐어뜯어온 시간을 돌아켜보면,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파는 일은 익숙해지지 않을 고난의 연속인 것 같다.

이전 종이본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새로운 미디어에서도 독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다 차원 높은 전달력과 재미로 무장해야 한다. 게다가 독자들의 수준과 기대치는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 아마 MAXIM 독자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독자가 아닐까?

MAXIM은 종이 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와 영상물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 메가진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들 다 하는 걸 해봐야 칭찬 듣기 어렵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투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늘 변해야 하지만, MAXIM이 가지고 가야할 유머와 가식 없는 욕망 표출의 방식은 지켜야 한다. 방법이 많다.

그래도 어쩌나, 우리 모두는 독자의 관심과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김성모 작가 역시 더 리얼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위해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한다. 응 주공을 취재하다가 겪은 수난과 수모는 이번 호 70 페이지에 있으니 침울성 가지고 정주행하도록. 다음 달은 알뜰게도 추석 연휴가 미감 직전에 달려 있다. 올해도 고향 가기를 포기하고 편집장 사무실

에서 포동포동하게 실린 달을 보며 10월호 잡지 제작에 매진할 불꽃자식 에디터들에게 시원한 맥주나 사주야겠다. 독자 여러분들은 에디터를 뭇까지 폭 쉬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맞으시길 바란다.

다음 호는 MAXIM이 한국에 정착한 지 꼭 100호가 되는 달이다. 독자님, 이를 기념할 기쁨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구독자 이메일 reader@maximkorea.net 또는 트위터@maximkorea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절대 잊지 않으리.

근성의 9월호를 통해 내면서

편집장 이/영/비

추억은 잊지 않는다!



HX-WA10



물속에서 사진도, 동영상도 물 만났다!
파나소닉 하이브리드 캠코더

산요(Xacti)의 명성 그대로, 성능과 품질이 진화된 파나소닉 하이브리드 캠코더
수심 3m 방수 및 물속에서도 생생한 Full HD 영상 촬영이 가능한
파나소닉 하이브리드 캠코더 (HX-WA10)
더 아름다울지 모르는 물속에서의 추억을 담아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연 보내기



답변 내겐 너무 아찔한 그녀

원어민 학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열혈청년아오. 일한 지 1년이 되어 가던 차에 여학생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소. 평소 같으면 영영이를 찹쌀 때리며 '하쿠나미타타!'를 외쳤겠지만 이 친구가 나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중! 여학생이란 게 문제요. 처음에는 그저 귀엽게 받아 넘겼는데 보면 불수록 이 친구가 4년 전 헤어친 첫사랑과 닮은 게 아니겠소! 도회적인 마스크지만 말과 행동은 귀염귀염 열매를 잔뜩 섭취한데다 몸매는 착하기까지 하오. 까놓고 말해서 수컷이란 증자는 서류전형을 평가할 의도가 아닌 이상,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은 존재장소. 하지만 그 친구가 10대만 사상이 못내 마음에 걸리오. 거절했다간 시춘기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까 봐 걱정스럽소. 도대체 나는 어쩌해야 좋단 말이오
토타메치카겐리, e-mail 사연(익명 요청)

▶ 이런 평언이 있습니다. "이게도 병신. 저도 병신이라면 이기는 병신이 되어라!"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 사인해 주세요.
헝기중 난단 말이에요!



촌동네에 살고 있는 고3입니다.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다음날 새벽 1시에 귀가하니 본의아나게 수도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해서 카카오톡은 꿈도 못 꾸는 저에게 MAXIM은 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평소엔 사람에게서 MAXIM을 구매했는데 8월호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과감히 집으로 배송을 시도했다가 어머니에게 막 걸렸습니다. "MAXIM은 사친이 아닌 에디터의 글 때문에 보는 거다" 라고 주장했지만 무용지물더군요. (코스모폴리탄에서 어시스턴트를 하는 누나는 GO를 보려고 필박했지만 저는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김희성 에디터가 없으니까요. 잠깐이나마 "김희성 에디터가 친누나였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한 저로서는 절대 불가할 일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김희성 에디터님이 제 누님이 되어주실런 아닐까요? 그게 아깝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꼭 11월부터 헝기중독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사인을 보내주세요. 빨리요! 고3 수험생 헝기중 난단 말이에요!
전학수, e-mail 사연(wsdlnr930)

▶ 그녀의 사인을 바라는 독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 전엔 호운한 얼굴을 자랑하는 백인 흥남들이 MAXIM 사무실을 전격 방문. 그녀의 사인을 받고 희희낙락하며 돌아갔을 정도입니다. 김남규 독자가 사인을 받으려면 번호표를 받고 2와 3일은 대기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사인 말미에 김희성 에디터의 사인 한 장이란 헝기중독에 환몽을 던질 각오가 되어 왔다고 하니 무기가 달기는군요. 조만간 집으로 그녀의 사인이 담긴 편지 한 통이 배달될 겁니다. 이런 절대 김희성 에디터가 영계(?)를 우대해사가 아닙니다. 그녀의 호연지기를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에서 어시스턴트를 하는 누님께 말씀 드려주세요. MAXIM은 독자 머리 위에 앉아 구시절거리하는 따분한 잡지가 될 생각이 지금도 앞으로도 없다고 말이지요. 그저 MAXIM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유쾌하게 웃고 즐겁게 놀겠습니다.

FX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채널이다.



FX채널 맛
보고 과월호
받기



FX
남자의 모든것

tcast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독자 사연 응모

- ▶ 우편 접수: (02-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 텔레파시 접수: 김희성 에디터를 향한 불타는 애정의 절반 정도만 텔레파시에 집중해 달라.

MAXIM은 언제나 열려 있다. 재미와 감동이 없어도 보낸 사연은 빠짐없이 다 읽는다. 하지만 당신의 헤어스타일을 빼곤하게 만들어 줄 헤어 스타일리스트 우노 포가바를 거머쥔 사람은 단 한 명 뿐! 어떤 시안을 보낼 거라면 깨달 같은 드림오에 에디터의 배꼽을 몸통에서 분리시키거나, 스크랩할 정도로 핫한 사진을 동봉하면 된다. 하지만 당신의 빛은 좀 따윈 눈의 관심도 없으니 사연은 그만 보내라.



나 어떡해?

군에서 해방된 후 알바에 매진 중인 사내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독자사연을 하나 남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퇴근길에 아이스크림을 흡입하며 걷고 있는데 문득 MAXIM이 떠오르는 겁니다. 전역 후 7억에서 자해하던 다방의 미스김처럼 MAXIM도 있고 있었던 거죠. 곧장 사점으로 뛰어가 MAXIM의 생서아부를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MAXIM은 건재하더군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MAXIM 8월호를 집어 들고, 계산대에 자신 있게 올려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느껴지는 시선들,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한자 교재를 사러 온 어린이 패션(를 등 중고딩 3명, 서점을 30년째 운영 중인 할아버지 사장님이 로지 한테린의 사진을 돌려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녀가 아닌 범블이 표지였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덕후(?) 중 한 명으로 넘어갔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근처에 다른 서점이 있으니까요.

김영호, e-mail 사연(이명 오영)

MAXIM의 생사를 걱정해주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살아 있을 뿐 아니라 10월호는 100호 기념 특집 기획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그제나라 로지 한테린의 표지에 그들이 정신들을 놓았다는 건 그 만을 MAXIM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마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MAXIM은 우리나라에서 유머를 즐길 줄 아는 유일한 잡지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에서 지르는 게 몇몇거라진다면 지금 당장 MAXIM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아열한 몸매의 미녀 장구독 담당자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겁니다(자 인형비 약속대로 만 내주세요).

사죄의 글

마기에 풀입시다 보면 귀가 안 들리고, 눈이 멀어 삼켜서 환청이 들린다. 상태? 이리나 카보드 위에서 흡수된 손가락이 이리나 카보드 예상치 못한 오타도 발생한다. 지난날 “(타짜)의 아귀를 소환해 오묘로운 손을 날려버리겠다”고 영모를 놓임에도 오타가 발견된 이유다. 8월호 카본에서 로지 한테린의 이름이 로지 한테린으로 오오?되었고, 아버지의 속옷의 대변을 보고 쓰는 문장이 ‘아버지가 속옷의 대변을 보고’로 잘못 표기됐다. MAXIM 독자에게 하리 속어 죄송하는 일문을 드리지 않나.

MEN'S
CLASSIC

남자의 외모는 경쟁력,

그 시작은 **MEN'S CLASSIC**



MEN'S
CLASSIC
화장품 받기



· Double Effect BB Cream 효능·효과



자외선 차단 SPF4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UV A/B 동시 차단은 기본,
SPF40 PA++의 든든함까지



화이트닝 효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맑고 화사하게



트러블 방지
미소로 주름물이 트러블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세bum 컨트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력과
피지 조절 기능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원미스 에디터 소장
신발 슈즈원
역세서리 모두 제이미앤벨



하은정

출생지: 서울

출연 영화: (하늘을 걷는 소년).

(크리스마스를 빼앗아), (아웃집 중매).

(에일리언 비키니)

배운 여자: "런던 미술백스 대학에서 공연 예술을 전공했고, 현재 중앙대 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밀고 사랑: "첫 단편영화부터 지금까지 영화 창작 집단 키노링크고스틴과 함께 해왔다"

특별한 취미: "재활용 DIY, 패트병으로 화분을 만들기도 한다."

남자의 조건: "듬직하고 건강한 체격"

몰서 먼 되는 남자: "꽤너 없이 출연하는 남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집 앞에서 근력 운동할 때, 나 좀 해시는데?"

소녀의: @Sunandodo

"미안 저는 알아 안 했다."

하은정

× 미스
에일리언

날이 밝기 전에 최상의 정자를 얻어야 하는 암컷 에일리언과 혼전 순결 서약을 깬 수 없는 숫총각이 벌이는 과격한 밀고 당기기 한 판! 당신은 에일리언의 비키니 유혹을 버릴 수 있겠는가!

BY 송종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CIRCUS A Maxim View of the World MAXIM

GO TO
MAXIM
iPAD

이런거 있



선생님이라고 들었다. D급 선생님이라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영어 유지업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배우로서 새로운 부분도 채워진다. 물론 돈도 벌고.

학생들이 알아보진 않나?

굳이 영화 배우라고 얘기 하진 않았다. 영화도 주로 청소년 관람 불가인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물어볼 때만 대답해 주는 편이다. 의외로 여학생들이 많이 알아본다.

같이 연기해 보고 싶은 남자 배우가 있더냐?

〈두 번째 사랑〉에서의 하정우씨. 꾸미지 않고 풋풋하고 열정 있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영국 유학 당시 빨리 한국에 돌아와서 같이 연기해 보고 싶었다.

이번 영화 〈에일리언 비키니〉의 매력은?

흔한 소재들로 영동하고 재미있는 반란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 예술, 철학 이런 건 잠시 잊고 즐기면서 보면 된다.

발정 난 외계인 연기를 선보였는데 이번 건 대체 어떻게 연기하냐?

차음에는 외계인의 감정이라든가 다들 것이라고 막연히 가정하고 상상력을 통쾌해 보았는데 참고할 자료가 없으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아예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다.

영화에서처럼 험뎀고 남자를 꼬시는 건 쉽다 영화에서 못 보여준 당신만의 유혹 비법이 있더냐?

일단 웃을 다 안고(웃음).

꼭 그럴 필요까진...

세상엔 모습만 보여주다가 어느 날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색다른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차기작 〈영건 인 더 타임〉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았나?

탐정 사무실을 열고 빚쟁이들을 찾아내는 악독한 사채업자. 에일리언에 이어 또 드센 역할을 맡았다. 〈영건 인 더 타임〉은 키노랑고스트 영화 중 최대 규모다. 유바리 국제 핀타스틱 영화제에서 〈에일리언 비키니〉로 탄 대상 상금과 심사위원 하이스 가이조 감독(일본 탐정 영화의 대가)이 탐정을 찍어보라고 준 지원금을 합쳐 3,000만 원을 마련했다. 그래서 원래 SF액션물이었는데 탐정 이야기가 덧붙었다(웃음).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은?

너무 센 역할만 해서인지 〈미슬란 옆 동문생〉의 심은희씨 배역이 해보고 싶다.



COOPERATIONS 프랑 토틀 테렌시(02-546-7764) / 조진, 미라민(02-544-7764) / 방민콜라민 언더웨어(03-3449-7725) / 제이비엔(02-4827-7834)

US

언더웨어 방민콜라민 언더웨어
플 베스트 르윗
슈즈 미리온
역세사의 모두 제이미엔젤

비키니
보러가기



스튜어디스 여친을 찾습니다

어차피 다 예쁘고 늘씬하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 더 당신 취향에 맞는 쪽을 골라 하라. 항공사 별로 어떤 여자들이 모이는지에 디테가 스튜어디스 지망생인 척 하고 스튜어디스 학원에 잠입취재를 감행했다. **BY 김희정**



승무원 여친이 좋은 이유

몸이 튼튼하고 싶어할 구멍이 있다.

체력 검사 항목에는 수영도 있다. 수영복으로 깊이까지 수영해 집합해 25m를 35초 만에 완주해야 하는 곳도 있다. 바다 가서 파도에 휩쓸려도 생명이 예뻐 그나마 구해줄 거다. 근데 체력 테스트를 빙자한 생일 식사 인 건가? 왜 생일을...

출한 심치기 없다

승무원 면접을 볼 땐 보통 반팔 옷을 입는다. 여름 재복을 입었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아주 출한 심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최소한 그녀의 몸에 칼자국 같은 건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다리가 예쁘다

"얼굴이 예뻐야 하나요?" 라는 에디터의 질문에 학원 상담 실장은 "반드시 예뻐야 하지만 가능한 한 건 강하고 보기 좋은 다리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얼굴보다 다리가 더 중요하다 건가?

발톱이 귀찮다

표준어에 가까운 발톱을 쓰면 합격권 사투리를 쓰더라도 역량이 부족하면 예고스무원 스튜어디스 합격 가능권이라고 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더라도 안심.

BUT!

우울증이 있을지도 모른다

항상 웃고 있어야 하는 입장에 처한 사람이 겪는 우울증을 '스미일 증후군'이라고 한다. '고대만족'을 최후선으로 내세우는 직업을 이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 같은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

예쁘고 싹삭한 여자가 좋다면
아시아나 항공



V

예쁘고 참한 여자가 좋다면
대한항공



회려하고 예쁜 이미지보다는 싹삭하면서도 재치있는 이미지를 선호한다. 안전하고 도도한 이미지는 아시아나사의 면접을 통과하기 힘들다.

아시아나 항공과는 달리 조금 치분하면서도 단아한 인상을 선호한다. 예쁘고 싹삭한 여자냐. 예쁘고 단아한 여자냐 그것이 문제라대

당당한 스타일에 끌린다면
카타르 항공



V

여친과의 말싸움이 싫다면
아랍에미리트 항공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라도 곳갓하게 밀고 나가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겉보기에도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여자를 뽑는다. 적극적이고 당당한 신여성 스타일이 이 성형이라면 카타르 항공을 자주 이용할 것.

자기 주장을 또렷이 말하는 사람보다는 성격이 등글등글한 사람을 선호한다. 자신의 주관을 주관대로 마음 속에 간직하되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진 말라는 거다. 여친과 말싸움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라면 아랍에미리트 항공 승무원 을 고드겨 볼 것.

쫄뽀냐가 이상형이라면
동방항공



V

자연스러운 매력기 좋다면
진에어



늘씬하고 화려한 스타일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 중국 동방항공은 미인 대회 출신이나 모델을 선호한다. 공체 4기 이후부터는 객실 승무원의 약 20%가 미스 코리아나 슈퍼 모델 출신이다. 미만한 비율의 미인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곳도 또 어디있겠어!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인 진에어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는 회사 기조에 걸맞게 객실 승무원 원 유니폼을 청바지로 정했다. 면접 전형 때도 청바지 복장으로 면접을 본다. 티셔츠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내추럴한 미인이 이상형이라면 진에어에 안대!

이탈의 부스라기

일어도 그만. 물리도 그만인 자식 부스라기를 짚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



여친의 여친을 탐하다

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남성의 2/3이 자기 여친의 여자 친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1/3만 이와 같은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래서 여자들 이 자기보다 예쁜 여자랑 같이 안 대는 거다.



씩줄눈의 네크로필리아(시해애호)

백 년 전에 제사 지내려고, 지난 7월 청주의 한 왕매 고당미 최단 에 맺어지었던 김모 할머니 시신으로 호기심을 해결하다 불쌍했다. 자질 괴물하는 애들한테 칼질하는 연음도 하고 포름페스 연 습까지 했으니 말이다. 옥상에선 뛰어래면 할머니는 대체 뭐 죄여

세계는 지금 진화된 기술력의 LUMIX G™에 꽃히다!

2012년 7월 19일 2012년

ConsumerReports 평가 1위에 빛나는 LUMIX G 탄생 3주년 기념 'LUMIX G 한가위 대축제' 개최

· 컨슈머 리포트
· 루믹스
· 카메라
· 렌즈
· 렌즈 교환식 카메라 부문 (출처: 미국 소비자리포트)

순위	모델	종합 평점	비고
1	파나소닉 DMC-G2K	75	컴팩트 계열
2	소니 SLT-A55AL	74	
3	소니 SLT-A33L	73	
4	파나소닉 DMC-G10K	73	하이엔드 계열
4	파나소닉 DMC-GH2K	71	
5	파나소닉 DMC-GH1K	71	하이엔드 계열
5	파나소닉 DMC-GFIK	68	
6	파나소닉 DMC-GF2K	67	스타일리쉬 계열
6	소니 NEX-3K	67	
7	소니 NEX-5K	66	스타일리쉬 계열
7	삼성 NX100	63	
8	올림푸스 Pen E-PL2	61	컴팩트 계열
9	올림푸스 Pen E-P2	61	
9	삼성 NX10	61	
10	올림푸스 Pen E-PL1	60	

세계에서 인정받은 루믹스G의 신제품 GF3가 주목 받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루믹스G의 신제품 GF3가 주목 받고

신제품 판매에 성공하고 있는 루믹스G의 신제품 GF3가 주목 받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루믹스G의 신제품 GF3가 주목 받고

최소형 최강력 하이브리드 카메라 탄생
루믹스 GF3가 주목 받고 있는 루믹스G의 신제품 GF3가 주목 받고

미국의 소비자리포트가 인정한 파나소닉
루믹스G 하이브리드 카메라

30대 인종의 사용 최고 권위자의 소비자 리포트가 인정한 파나소닉
루믹스G 하이브리드 카메라 부문 Top 10에 오른 루믹스G



인공지능이 된 1600만 화소
GF3가 주목 받고 있는 루믹스G의 신제품 GF3가 주목 받고

최고 속도 13.0fps의 AF
최고 속도 13.0fps의 AF

최고 속도 13.0fps의 AF
최고 속도 13.0fps의 AF

최고 속도 13.0fps의 AF
최고 속도 13.0fps의 AF

루믹스 G 탄생 3주년 기념 **한가위 대축제**

홈페이지에서 정품등록(시리얼입력)하시면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해당 기종으로 **신규로 제품 등록 시**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해당 기종 (6월 1일부터 구매한 고객 대상)

- 이벤트 기간 : 8월 19일 ~ 9월 25일
 - GF3/GF2 : GF3, GF2 경품 및 추첨경품 모두 참여 가능
 - GH2/G3 : 추첨경품 참여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GF3 경품 내용



진동저소음프린트
D311



헤어드라이어
ND55

GF2 경품 내용



구급처방기
EW271



망수 면도기
RC50

추첨 경품 증정 내용



1등
렌트스마트 MHD (1명)



2등
마사지사우나 (2명)

- 3등 : 아이폰2 (5명)
- 4등 : 링수-리빙 (WAO) (9명)
- 5등 : 미니스니 구성품
- 6등 : 피스 이머션 (500명)

돈 벌어서 어따 쓰냐?

어따 쓰긴, 어따 쓰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놀음! BY 김성환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물고기

주인공: 백금색의 자세를 뽐내는 아로와나
가격: 약 5억 원
먹지도 못하는 이 놈을 사느니 가대 참차회고가 약 1억 원 50리를 동태로 사겠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

주인공: 잭슨 폴록이 1948년에 그린 NO.5
가격: 약 1,800억 원
아, 비켜 봐. 내가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전화번호

주인공: 2006년 5월, 카타르의 자선경매에서 낙찰된 번호
686-6666
가격: 약 25억 원
입들라. 그 번호로 폰팅하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기타

주인공: 예릭 클럼뎬 옹의 블랙키
가격: 약 12억 원
밴드 스트리트캐스터 시리즈의 대성금은 돼야 기타리스트 아무런 자 상실지나.

세상에서 제일 비싼 초초

주인공: 제주도에서 채집된 못난이 반
가격: 약 2억 원
같은 못난이지만 즐라 비싸다는 게 당신과의 차이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청바지

주인공: 다이아몬드, 루비, 백금 등으로 세공된 리바이스의 '수퍼 블루스' 청바지
가격: 약 1억 5천만 원
이 바지를 입고 클럽에서 부비부비 하면 여자들이 안



세상에서 제일 비싼 뮤직비디오

주인공: 자넷아이클 잭슨 남매의 (스크림)
가격: 약 63억 원
정말 '스크림' 나는 가격이다. 아이아이야!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아기 사진

주인공: (피플)지에 실린 브란젤리나(브래드 피트+안젤리나 졸리) 커플의 쌍둥이 사진
가격: 약 140억 원
선택 받은 증자는 태어날 때부터 날다르다. 엄마, 내 돌사진 잘 찰가했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와인

주인공: 200년 전 생산된 프랑스의 화이트 와인 디조 디페
가격: 약 1억 3천만 원
이 식초를 살 비엔 365년 동안 매일 소주 1병을 마시는 걸 택하겠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비키니

주인공: 수잔 로센이 다이아몬드를 처발라 만든 비키니
가격: 약 30억 원
그걸 입은 여자가 포함된 가격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교통사고

프랑스 몬테 카를로 카지노는 공예 친구 2명과 벨벳리악 4억 3천만 원을 타고 놀러 온 여자가 싱가포르에서 미끄러지면서 신호 대기중인 벤츠(약 1억 3천만 원)와 페라리(약 2억 5천만 원)를 들어받았다. 싱가포르에 장담했고 다른 방향에서 달려 오던 예스24 마린(약 2억 6천만 원)과 포르쉐(약 1억 4천만 원)도 그대로 충돌했다. 교통사고에 동참한 차들의 몸값 총합 = 12억 1천만 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돼지고기

벌어먹을 우린나라다. 우리나라라고 지난 구석의 영향으로 수입은 돼지들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주요 9개국 중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게 됐다. 지난 5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돼지고기가 가장 비쌌던 일본보다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싸고, 캐나다보다 3배 이상 비싸다. 삼겹살은 이제 고급살이다! 쟁쟁!

세계에서 제일 비싼 립

주인공: 미국 와이오밍주의 카지노
주인이 소유한 목장
가격: 1,800억 원
여의도만한 이 목장이 호화 리조트를 35개나 만들 수 있다.

VS.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인형의 립

주인공: 미국 애배우 콜린 부어의 소장품 '요정의 성'
가격: 5억 3천만 원
당신의 스위트홈을 가볍게 초라 빛아주시는 인형의 립 되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주인공: 부가티의 베이론 슈퍼 스포츠
가격: 약 29억 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이기도 하다.



VS. 세계에서 제일싼 차

주인공: 티타 나노
가격: 약 250만 원
에어콘, 자동 윈도우는 꿈도 꾸지 마라.



태보의 신비하고 놀라운 위업

서울시는 제2의 삼봉백화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샀던 강남 테크노밸리의 흔들림 현상이 잠시 잦은 간혹 12층에서 단층으로 태보 운동들 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조그 전에 빈 라덴이 이 뉴스를 봤더라면 태보했을까? - 일개자다. 보고 갔어?



의지의 트레이서 헌터

지난 달 방향을 맞춘 경기도 하남시의 한 초당이 인형 놀이 가게를 공략했지만 실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후회 없었다. 그는 작은 채구를 이용해 기계 내부 침투에 성공했지만, 이불사 줄어지는 입구였거 결국 호국군관에 시달리던 그를 잡아온(7년 19 주조대였다.

Kiss를 부르는 elips™



즐거움과 호흡하다!!

또 하나의 담배, 전자담배 OVALE elips™
연기는 많고, 냄새는 없다... 갖고 싶은 초미니 사이즈

■ elips PCC



■ Italy cognac liquid



■ elips silicone necklace



■ elips cradle



OVALE KOREA

www.ovalekorea.com

참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술안주 배양 등 각종 담배의 향이 내기때, 이온가이드 형태로 향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이 아닌, 니코, 벤젠, 비닐콜로이드, 비스, 카복시염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 H : 90mg, M : 11mg, L : 8mg



싸이코 테스트: 당신 여친은 제정신인가?

사람 모든 사람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지. 당신 여친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럴 리 없다고?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그녀가 어떤 종류의 싸이코인지 밝혀주마. 김희성

1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 가수를 찾아 다닌다.

의심질환: 색정망상

색정망상은 유망민이나 자신보다 높은 자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는 증상이다. "두준 오빠가 날 좋아"라는 망상을 하여 아무런 죄의 없이 스트킹을 자행하기도 한다. 당신이 여친의 최정신사가 되거나 유망민이 된다면 "사랑님, 전 영원히 당신 거여요"라며 아이들에게 붙어 붙어있던 관심과 돈을 온통 당신에게 쏟아 부을 거다.

2 아무런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뜸들어 있다.

의심질환: 조증

여친의 기분이 1주일 이상 뜸들어있다면 조증일 가능성이 높다. 조증 환자는 자주 망상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질 수도 있다. 당신이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살소동을 일으키기도 모르는 일... 자나타해를 뿌리듯한 여친의 명물 타퀸 수면부족 상태때 피곤한 기색이 없는 것도 조증의 증상이다.

3 같은 말을 반복한다. 싸울 때는 특히 더. 했던 말을 하고 하고 또 한다.

의심질환: 상동증

특정한 행위를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하는 정신병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 이왕 붙들었 거면 가슴이나 엉덩이 세모만 붙들기 싫지?...

나는 제정신일까?

여친이 싸이코라고 상관없다고? 정신이상자의 증세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 거짓말 할지? 이를 감을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여친과 오래도록 붙어 지내면 당신도 같은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다. 지능이 낮거나 암시성이 강한 사람한테 잘 친해보니, 당신은 특히 더욱 조심해야 할 거다. 이미 높은 것 같다고? 방법이 다 있다. 마친 싸이코 여친과 단기간 떨어져 지내라. 금방 제정신으로 돌아올 테니 울지마!

5 음식을 매우 빨리 많이 먹는다.

의심질환: 폭식증

남포마나 여친이라면 폭식증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 폭식증 환자들은 자기 존중감이 낮아서 도박이나 난잡한 생활태에 대한 욕구가 통제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통제자 안 되는 걸 폭식증이라 한다. 폭식증 환자는 미친 속도로 빨리 먹거나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음식을 많이 먹고 폭식한 뒤에는 자신을 혐오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6 지나치게 많이 먹고 지나치게 많이 잔다.

의심질환: 글러니엔데인증후군

여친의 "오빠 나 출라" 라는 멘트가 당신에게 보내는 봉기극사 신호인 줄만 알았는지 하지만 잠이 지나치게 맑은 것도 병이다. 글러니엔데인증후군 환자는 1분에 몇 차례 1~2주 정도 침이 쏟아져 침을 수가 없으며 이 기간에는 폭식을 하거나 우울증이 함께 오기도 한다. 여친이 어렵게 걸렸을 때도 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어쩌라고



7 당신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자주 한다.

의심질환: 당의족담증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입에서 나오는데로 지껄이는 병이다. "H-50"이라고 대답하거나 "순기력은 모두 20개"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말뿐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켰을 때 못하는 것처럼 굴기도 한다. "어쨌든 행든트 가능하고 뭐 해?" 라는 당신의 다그침에 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건 당의족담증이 아니라 난병이 생긴 거고...

8 아프다는 말을 지나치게 자주 한다.

의심질환: 심기증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병이다. 아침드라마에서 특하면 아프다고 입원해서 자식들 다 불러오는 부자 집 아들이 캐릭타가 여친에게 다칠 미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다. 자신이 항상 병에 걸려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으로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 것 같으면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진찰을 받기도 한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피곤해



길게 봐야 피아디당

2009년 영국국의 크레이그 해리스 상영 내로 2,475m 밖에서 총을 쏘 2명의 달래반 병사에게 바랑 구멍을 내 주었다. 2,475m면 지하철강관을 이은 거리로, 일직선 것 중 최장거리 자력이다. 별 거 아니네. 예년에 여러번 중에 이 정도도 못 쓰는 사람 없잖아?



표 글로 내라

복싱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걸린 194년에 있었던 마이크 콜린스와 팻 브리들먼의 경기가 될 거다. 관중들이 17억 명을 의자에 밀어 넣기도 했던 1인용도 4석 4석 안에 마이크가 누웠던 한 방의 판자로 KO 승부가 걸렸다. 느그들 천 거 아니야?

만나고 싶었어요... 의심만 많은 에디터가 여유증 수술로 거듭났다는 김창숙 씨가명을 직접 만나봤다. BY 김민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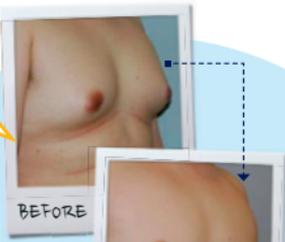
양천구 신정4동 김창숙씨 편

Q&A 자기스캐를 해 달라.
1966년출 남자이다. 전공은 경
영학 현재 신입사원 연수중이다.

Q&A 수술을 결심한 계기는?
5년 전인가. 아직 여성형 유방증
(이하 여유증) 수술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 친구 따라간 병원에서 들었다. 기
분 나빴다. 그저 가슴이 좀 큰 거라고 생각했
는데... 그런데 입대하니 옷통을 까야 되는 일
이 많았다. 남패였다. 또 휴가 때 클럽에 가서
도 작업에 자신이 없었다.

Q&A 결국 여자 때문인가?
꼭 그렇진 않다. 가슴이 튀어나
와 있어서 의식적으로 움츠리고
다닌 적이 많았다. 자신감 없어 보인다는 매
기도 듣구. 실제로 활발한 성격인데 소심해
보이는 게 억울하더라. 취업에 실패하는 이유
도 꼭 큰 가슴 때문인 것만 같구.

Q&A 수술을 받을 때 기분은?
사랑니 뿔었다며 꽤 정말 더럽게
운 적이 있어 병원은 일단 무섭
다. 여유증 수술 전. 말기기도 했지만 두 시간
자고 나니 다 끝나 있었다. 꼭 잠을 끈 기분이
다. 참 난 무고자인 수술 전에 원장님의 기도
도 큰 무언이 됐다.



Q&A 실무엿 성형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수술 경험이 많도적이라 신
뢰가 갔다. 또 3mm의 정말 작은
구멍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니 흥터 걱정도 없
고... 자신감을 얻으려고 한 수술인데 흉터가 심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또 병원이 꽤 인
간적이다. 다들 너무 친절하고 직원님들도 무척
아름답. 내 이상형... 그런데 통원 치료야 전하
요 없어 같이 일 있어 그런 줄 아유했다.

Q&A 수술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짜음~좋은 건 이제 남의 눈치
볼일 없다는 점 아무데서나 흘려
출렁 웃을 것을 벗을 수 있다는 점(별...이 남반아...)
병 조금 보태서 완벽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보
여줄까?...)까지



- 윤상연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 전문 분야: 가슴 성형,
여유증, 항문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 현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 현 실무엿 성형외과 대표 원장
 -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아산병원 유방클리닉 임상조사 책임
 - 분당 수도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SAPS) 회원
 - 성형외과학회 유방연구회 회원

김창숙 씨의 인격을 바꿔놓은 실무엿 성형외과와 여유증 센터

**실무엿 여유증 센터에서
수술을 받는 이유**
실무엿 성형외과의 유사업 원장은 여
유증 전문 센터를 별도로 운영. 현재는
수술비외에 이모에 비용을 부담할 필요
가 없다. 재원은 매우 드물지만 혹여
재할라더라도 100% 무료로 재수술이
가능하다. 안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
으로 고생하는 환자분이 많이 찾는다
니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상담 예
약 시 초음파 검사도 무료인 것도 다른
병원의 차별점

**최첨단 절개 방식과
최다 수술 케이스**
실무엿 성형외과는 국내 3,500명의
최다 수술 케이스를 풍부한 '사술 경
험'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의료 방식
을 도입해 너저분한 실 대신 인체용
분드를 사용해 수술 부위가 깨끗하
다. 또 유두가 3mm 이하의 구멍을 내
어 시술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방흡입
에 적합했던 커드링이 방식에 비해
유선 조직의 확실한 제거가 가능하
다. 그래서 수술 후 사위가 가능하고
정형외과 관리 할 수 있다.

**올해 추석 특선은
평명한 가슴과 함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수술
을 미루고 있다면 이번 추석 연휴를 노
려보자. 실무엿 성형외과는 입암이 필
요 없이 당일 수술 당일 치료가 가능
하다. 평명해진 가슴으로 집에서 손편
을 차룩하며 한국 영화 재방송을 들
릴 수 있다는 것이지. 흥터 걱정 재
발 걱정. 안전 걱정 등등 더 이상 걱정
안 하지 말고, 실무엿 여유증 센터에서
간편하게 시술 받고 싶어버렸던 자신
감을 득템 해 보자

실무엿
SILMUET Plastic Surgery

<http://www.gynec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15 실무엿 빌
딩 4.5층 실무엿 성형외과 [여유증 센터]
3층선 입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익스트림 파쿠르

꼭 막힌 출근길에 지각하는 것도 아젠
지긋지긋하다. 파쿠르를 배워 러시아워는
성통한테나 줘버림세~!

BY 박한빛유리 PHOTOGRAPHS BY ARC STUDIO



회려한
파쿠르 영상



투우우~

파쿠르의 데이비드 벨

영화 <3구역>에서 나쁜 놈들 열댓 명을 이리저리 버르면서 건물들을 높이터 삼아 뛰어다니는 주연배우가 바로 파쿠르의 창시자 데이비드 벨이다. 그는 “주변 지형을 이용해 목표지점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파쿠르다”라고 말한다. 우사인 볼트가 파쿠르까지 배우면 너무 빠를라나?



아마카시? 프리러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카시’는 프랑스의 유명한 파쿠르 팀 이름(영화 <아마카시> 주인공들이 실제 팀원)이다. 바로셀로나가 축구를 칭하는 명사가 아닌것처럼, 아마카시를 파쿠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프리러닝은 파쿠르의 다른 분파로서 주변 사물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다. 기계체조 동작이나 각종 화려한 기술을 펼치는 것은 프리러닝에 속한다.



유현근(20) 김지호(24)

한국 프리러닝&파쿠르 연맹 소속
(www.parkour.kr)

“파쿠르를 배우러 숭실대학교와 아랍으로 오세요. 몸종이란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생명 보듬에 가입하셨다면 더 좋습니다.”



5만 원파리 종이백

어질근 짝퉁 가방보다 명품 쇼핑백이 좋다? 최근 명품 쇼핑백 온라인 거래가 부쩍 늘었다. 종이 쇼핑백 주제에 가로 61.5cm, 세로 52cm짜리 사설 쇼핑백 한 장은 3만5천 원, 쇼핑백을 장식하는 끈은 1만5천 원이다.



그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일본 걸그룹 AKB48에 최근 합류한 예구지 이미지가 실제 사람이 아닌 AKB48 멤버 각각의 신체 일부를 취합해 만든 컴퓨터 합성상이 밝혀졌다. 메트릭스가 드디어 현실!

Romanshorn



Romanshorn

스위스에서 시작된

조용한 울림, ROMANSON



스위스 하면 떠오르게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알프스와 함께 시계와 초콜릿을 떠올릴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계에서 스위스 메이드의 파워는 독보적이다. 오랜 역사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시계의 본국에서 매년 열리는 대형 시계 박람회인 바젤 월드가 열리는 중소도시 바젤을 비롯하여, 라 쇼드퐁 지역은 1800년대 부터 이어져온 시계 장인의 고장으로 고급 시계의 기술력을 좌우하는 무브먼트의 대부분이 바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장소가 스위스 Arbon of the Romanshorn(로만쇼른)이다.

세계 시계 박람회 바젤월드에서 10년 연속 명품관에서 위상을 떨치며, 세계 바이어들의 찬사를 받아온 정통 시계 브랜드 로만손. 그 역사가 시작된 곳인 바로 Romanshorn(로만쇼른)이다. 지금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휴양지로 더욱 각광 받고 있는 로만쇼른은 항구와 기차의 발달로 19세기 경제·제조업의 요지로 유명했다. 그 당시 프랑스와 독일에서 전쟁에 시달리던 많은 시계 기술자들이 국경을 가까운 스위스로 이주 했는데, 이런 환경으로 인해 로만쇼른의 시계 산업 또한 발전 할 수밖에 없었다. 로만손의 브랜드 내일은 바로 이 로만쇼른에서 영감을 받아 명명되었다. 브랜드 스토리를 전해들은 스위스 시계협회 회장 Jean-Daniel은 로만손을 지칭해 스위스의 아름다운 마을 이름을 도둑 맞았다고 그 이름에 걸맞게 너무나도 훌륭한 시계 브랜드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로만손은 그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스위스 유명 디자인 스튜디오와의 공동 작업으로 매년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까마귀로 세계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

바젤월드에서의 저력이 입증듯 로만손의 해외시장에서의 활약은 예나 지금이나 유명하다. 중동과 러시아 중심이었던 시장은 현재 서유럽과 아시아 쪽으로의 진출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매출은 나날이 신장하고 있다. 이번 바젤 페어를 통해 발표 한 신제품의 반응 또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해외에서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했고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예약 판매를 진행한 제품은 이번 바젤월드에서 세계 바이어들의 찬사와 호평을 받아온 액티브와 프리미어 라인인 신제품으로 뉴스가 나가지 마저 매장장과 본사에 문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구매를 원하는 고객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매장 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됐던 예약 판매를 전 매장으로 확대 시켰다.

바젤 월드의 뜨거운 갈채.

ARTRAX 아트락스와 NOUVO누보

로만손이 유수의 명품 시계를 디자인 해온 스위스 현지 디자인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한 두 개의 신제품은 각각 로만손이 추구하는 바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신비로운 유혹, 아트락스

(ARTRAX_FL1219-AM/ 985,000원)

세界的 거미 중에 특이 있는 거미는 30여 종이 있는데, 그 중 아트락스는 때론 치명적인 해를 입힐만큼 신비로운 유혹을 가진 독거미이다. 달콤한 유혹에는 독이 있는 법. 잘 활용하고 이용하면 약이 되지만 자칫 과거하나 잘못하면 독이 되어 다간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아트락스를 찾는 이유는 치명적인 매력 때문인 듯하다. 명독을 가진 거미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신비로운 매력에 매료되어 버린다. PREMIER 라인의 아트락스 또한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강렬한 인상의 Spider에서 영감을 받은 이 제품은 강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외치 캐릭터들을 유혹한다. 마치 거미의 다리가 먹이를 사냥 하기 전 움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편된 위의 네 개의 촉부 형상은 케이스보다 높은 굽조로 강렬한 멋을 풍긴다. 여기에 블랙 컬러의 나사기 큰 원을 중심으로 매칭된 독특한 디자인, 먹이감을 노리보듯한 인상의 다이얼은 센슈얼하면서도 혁신적이다.



욕망의 날개, 누보

(NOUVO_AL1216-AM/ 985,000원)

철새는 번식지와 월동지를 매년 정해진 계절에 반복하여 이동한다. 철새의 이동은 일정한 방향인지와 항로결정에 근거하여 움직인다. 멈춤 줄 모르는 새의 날개짓은 그들을 보다 더 나은 삶과 환경으로 이끈다. 새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Active Line의 누보는 Dynamic을 테마로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유려한 Shape을 기본으로 하지만 양 옆을 감싸는 두 개의 좌우 분리형 날개가 긴장감과 활기를 더했다. 마치 손목 위에 양쪽 날개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활개를 펼치는 듯한 새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역동'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준다.





기술 배우기 | 어디 한번 날아 볼까?

볼트 목표지점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이동기술

킹콩볼트



STEP 1

힘껏 달려와 스프링처럼 몸을 움추렸다가 뛰어 어 깨나비 정도로 손을 벌려 장애물을 짚는다.



STEP 2

다리를 최대한 접어서 몸에 붙여주지 않으면 다리가 장애물에 걸려 얼굴로 착지하게 된다.



우해영~!

STEP 3

킹콩 소리를 내준다.



STEP 4

뒷꿈치가 닿지 않게 앞꿈치로만 착지. 손으로 짚지 않으면 벽에다 뇌수가 흐를 수 있다.

스피드 볼트



달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한 발로 도약해 엉덩이를 옆으로 들어주며 폭발

대시 볼트



가속을 내밀고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준다. 투킷

키보드 2배 높은 벽타기



STEP 1

힘껏 달려와 두 다리 중 왼손 발로 벽을 냅다 밟아준다.



STEP 2

반딧쪽 발로 벽을 또 한 번 밟아주며 손을 짚는다.



STEP 3

몸을 끌어올린다. 콩~채!

벽 턴 골목은 이런 화려한 기술이 배우고 싶었다.



STEP 1

힘껏 달려와 손을 뒤로 뻗고 최대한의 반동을 싣어 두 발로 도약!



STEP 2

벽을 뚫을 기세로 손을 짚고 몸을 떠운다. 고개를 왼쪽으로 꺾어줘야 회전이 용이하다.



STEP 3

몸이 어느 정도 떠들면 오른손을 땀다. 자동으로 몸이 돌아간다!



1, 2, 3, 외딴 후쿠기!

STEP 4

인상을 찡그릴 수 있으니 표정관리를 해준다

황당한 강도 사건

건을 넘나드는 게 직업인 그들



모나타는 죄가 없다

반칙을 들고 나오면 문씨는 자신의 범행장면이 CCTV에 찍힌 사실을 알고 녹화기록을 훔치기 위해 다시 담을 넣었다. 문씨의 손에 들린 CCTV 모나타. 그는 모나타를 가져가면 자신의 범행 기록이 없어질까라 생각했다. 결국 그의 철도행きは CCTV 본체에 고스란히 남아, 그를 고소소로 인도했다.

내집처럼 편안하게

서울의 노숙자 최씨는 방충망을 뜯고 용산의 한 옥탑방에 들어갔다. 쌀을 씻어 밥을 해먹고 자고등을 뜯어 먹주까지 사다 마시며 여유롭게 TV를 시청하던 최씨는 잠시 들린 집주인 유씨에게 붙잡혔다. 건물 주인은 너무 '당연히' 밥을 해먹는 최씨가 집주인 유씨의 친구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충 받으세요

폭탄을 소지한 은행털이범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은행을 습격했다. 하지만 이 바보 도둑은 변호표를 뽑고 순번을 기다리는 등 어설픈 행동을 일삼다 자기 손사기 되자 직원들을 폭탄으로 위협했다. 하지만 지령장의 실수에 넘어가 대충 상담을 받았고, 상담을 받는 동안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새우 반, 고기 반

중국 허난성에서 상체는 새우, 하체는 물고기인 생물이 발견됐다. 일명 '새우어'는 몸 길이가 20cm 안 된다고. 드디어 페테리아! 불새비거를 이질 대안이 등장하는 건가!



풍뎉한 게 좋다!

매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미스 비안 선발대회에 올해 우승자는 체중 147kg의 오르넬라가 차지했다. 여자는 체중 100kg, 남성은 150kg 이상이어야 출전할 수 있으며, 올해 우승자에게 거대한 케이크와 '자신'이 무상으로 주어진다.

FROM **W**orst to **Y**oungest!

멋진 Young Guy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 여우(女友)에게 물어보자! BY KJY

Before

After

Come on ~
babe!

여우 만능!
가자!

▶ 지혜로운 여우(女友)의 시술로 잃어버린 'Y' 라인을 되찾자!

정확한 지도를 그려, 매의 눈으로 잡아내는 시술!

난대중으로 여유증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병원을 선택하는가? 여유증 가슴에는 지방 뿐 아니라 복잡한 유선 조직이 분포되어 있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마치 3차원 지도 그리듯 파악하는 것이 수술의 첫 번째 여우 여유증 클리닉은 최신 초음파 진단 장비를 도입, 지방 조직의 분포와 유선의 분포, 피부 탄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보장한다.

천차만별 환자 케이스, 맞춤형 시술이 필요하다.

여우 여유증 센터에서는 환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권장한다. 광성유가 장착된 기구를 삽입하여 카메라로 부위를 보면서 시술하는 '3mm 절개 여유증 내시경 수술'은 기본이고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의 상대적인 양, 피부 두께, 흉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을 권장한다. 따라서 수술 후에 상체에 맞지 않는 시술로 재수술하는 염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집중 회복 도움 프로그램으로 끝까지 안전하게!

시술 후 시후 관리가 좋은 병원의 척도! 여우 여유증 센터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회복을 위한 치료가 마련되어 있다. 'EFFECT Lipo Laser' 치료와 'EFFECT Meso Soft' 치료는 지방 세포의 유통화 촉진 작용을 해 피부와 세포의 재생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의 유착을 막아 자칫 생길 수 있는 통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줄 것이다. 안전하고 관리까지 깔끔한 여우 여유증 센터로 가자!

빈철원 원장

서울 대학교 병원 수련의
서울 아산병원 상형외과 전문의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대한 미용 성형외과 개원의 협회의 정회원
대한 비만 체형학의 정회원
대한 임상 메조세라미 연구회 정회원

www.foxyooyu.co.kr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2-10 계룡동 5층
 02-516-6150 / 02-517-0675

여성형 유방 전문병원
여우 여유증 클리닉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쁜 여성을 유혹할 수 있을까?'

태 초부터 사내라는 존재들은 그저 365일 24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쁜 여성을 유혹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해 왔다.

이미 기원전 로마의 오비디우스는 '사랑의 기교'라는 책에서 '절대로 코털이 보여서는 안된다'라는, 남성성을 위한 제법 상세한 연애지침을 해준 바 있으며, 현대의 와서도 남성들의 관심사는 크게 다를 바 없어, 만나기만 하면 어찌 만난 여자 이야기,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이야기들로 밤을 지새운다.

남자들이 조금이라도 키 커보이려고 깔창을 구두 밑에 깔고, 어떡해서든 더 좋은 차를 몰거나 더 좋은 시계를 차고 허세를 부리고자 하는 이유가 결국 어디에 있었는가. 세상에 남자들이 없어도면 제일 먼저 화장품 회사들이 망한다지만, 세상에 여자 없어진다면 단지 화장품업계만이 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모든 남자들은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며, 세상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남성들의 평생의 숙제이며 영원일이 분명하다. 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담 이후 모든 남자들이 답을 얻고자 했지만 실패한, 프로이트조차 "30년간을 연구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두손 두발 다 들어버린 이 영세의 미스터리인 '여자의 마음'을 해석할 수 있으며, 심지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까지 주장하는 당당한 자들이 등장했다.

자칭 '유혹의 달인', 픽업아티스트 Pick-up Artist들이다. 과연 그들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를 풀어낸 것일까?

우리말로 하자면 '작업 기술자', '작업꾼'이란 다소 유치한 뜻을 지니고 있는 픽업아티스트.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최 초의 픽업아티스트들은, 우리로 치면 그저 '헌팅남' 정도의 의미로 다가왔을 뿐일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의 1980년대 후반, Ross Jeffries라는 헌팅남 한명이 이후 픽업아티스트들의 행로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최면을 전문적으로 배웠던 로스제프리스는, 간접최면을 통해 여성을 유혹, 어떤 남자도 그 방법론만을 알면 누구든 유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유혹의 기술이란 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모든 남성에게 전파한 것이었다. 로스 제프리스는 자신의 작업 노하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해, 그 방법론을 일반 남성들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와 방법론을 Speed Seduction이라 칭한다. 픽업아티스트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등장한 최초의 사례였다.

유혹 공동체의 등장.

로 스 제프리스의 스피드 섹션이 세상을 알려지자, 남성들은 '여성'을 유혹 하는 방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너도나도 유혹의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뛰어들기 시작하였으며, 마침 등장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남성들만의 비밀 공동체인 'Seduction Community'가 등장했다.

이 유혹 공동체의 일원들은 서로의 신상을 비밀로 하며,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자신들이 각자 이성을 유혹했던 사례들을 공유하고 토론해 가며 몇가지 유혹의 방법론을 완성해 가기 시작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 많은 픽업아티스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증명된 자신만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설파하기 시작한 픽업아티스트들은 구루 Guru(정신적, 영적 지도자)라고까지 불리우며 픽업아티스트들은 세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때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유명 픽업아티스트 중엔 여성 심리학에 대해 철학하고 걸 모습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David DeAngelo, 그리고 진화심리학적 지식들을 배경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사회역학적으로 분석하여 그를 역이용해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공식'들을 만들었던 Mystery등이 있다.

스타일의 대두.

닐 스트라우스 Neil Strauss는 정말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거의 다 벗겨진 머리에 두꺼운 안경, 170도 되지 않는 키의 볼풀없는 외모를 지니고 있던 그는 콜럼 스톤즈지의 기교 하는 작가라는 제법 흥미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건만 여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호감도 받아낸

픽업아티스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수 있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톰프 스톤즈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예계 인맥들을 쌓아가면 여자들의 환심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다. 그는 거의 포기 상태에서 자인은 아마 평생 여자친구 없이 혼자 외로이 죽어버리리라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찾은 기회.

편집자로부터, '유혹 공동체'에 관하여 취재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이다.

'별게 다 있네'하는 생각을 하며 공동체에 잠입한 그는,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취재로 시작했지만, 한번 발을 담근 이상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매력을, 공동체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그는 희대의 픽업 guru, 미스터리 워크샵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다. 그곳에서 미스터리가 행하는 '기적'을 체험하고는, 본격적으로 픽업아티스트가 되어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이후 미스터리와 수제자로 발탁된 그는, 데이비 더안첼로, 로스 제프리스, 저클러 등 당대의 유명한 픽업 구루들에게 고루 비기들을 전달받고는 2년 후, 공동체 최고의 픽업아티스트로 손꼽히는 Style이라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노출된 공동체.

스타일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지게 된 닐 스트라우스는, 어느날 은퇴를 선언, 지난 2년동안의 모험들을 다룬 The

Game이란 자전적 책을 출판(2005년)하게 된다. 이 책은 희대의 베스트 셀러로 화제되며, 그동안 비밀조적으로 남아있던 유혹 공동체를 세상에 노출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전세계 수천배로 규모가 확장되어 버린 유혹 공동체는 수많은 픽업아티스트들을 양성하게 되고, 그들이 각자 자신의 방법론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격돌하는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제 각각 미스터리, 스타일, 로스 제프리스등의 방법론을 흉내내며 세를 불려가기 시작하자,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미 세상에 노출되어 버려 무력해지는 효과도 날게 되었다.

네츄럴 게임의 등장.

스타일 이후 등장한 수많은 픽업 구루들 중의, 영국 출신 Gambler라는 픽업아티스트의 대두는 주목할만 하다. 그는 PUA Training이라는 회사를 설립, 기존의 방법론들등은 세상에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음을 강조하며, 그 누구의 스타일이나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보다 본

인 스스로의 매력을 개발 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특별한 멘트나 방법론 없이도, 기본적인 바디랭귀지와 사교술, 사회역학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 시켜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특종 방법론보다는 기본적인 매력의 향상에 집중한 작업 방식을 '네츄럴 게임'이라고 부르며, 이는 유혹 공동체내의대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캠블러의 PUA Training은 현재 영국, 미국, 브라질, 이태리, 독일, 한국 등 6개 국가에 지부가 존재하고 있다.

유혹 공동체의 방향.

지금까지 유혹 공동체의 픽업아티스트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여자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일만으로 페인처럼 유혹술만 연구한 실패한 남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실패한 남자들이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자기 개발 분야의 권위자로서 활동하며, 수많은 남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들로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픽업아티스트들에게 수업을 받는 남성들은 사업가, 연예인 등,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많고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는 남성들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혹술이라는 것이 이제 대중적인 하나의 교양학문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PUA Training의 한국 지부가 설립되는 등, 픽업아티스트들의 행보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의 기존 픽업아티스트들은 여성과의 하룻밤을 보내는 방법에 치중하는 등, 유혹 공동체 초기의 원시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한국 픽업아티스트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어 질이 낮은 불량 업체들 또한 양산되었고,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엔 PUA.SO (<http://puaso.com>)라는 픽업아티스트 소비자, 피해자 카페도 생겼으니, 참고해보면 좋을 듯 하다.

사회적으로 매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많은 이성들로부터 실패의 경험을 겪은 무저남들. 그들은 과연 대중으로부터 '매력적 이다'라고 선포되고 포용되는 존재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 픽업아티스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정도면.. 인생역전인데?

홈메이드 섹스 비디오



1. 1분짜리 요본질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2. 1분짜리 섹스 비디오를 찍는 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BY 김희영



오빠, 이렇게?

섹스 비디오 말, 말, 말

최대의 섹스 비디오와 함께 남긴
주목 같은 개드립.

“섹스 비디오를 찍을 땐
말을 많이 해야 해”

경기도 소재 H사설 주지님과 '동북전도사'로 잘 알려진 정 모 교수가 사할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그녀와 내연관계였던 스님은 이 과정에서 '섹스 비디오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섹스 비디오 속 정교수는 "비디오를 찍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며 스님의 민마리를 옮겨 쥐었다는데... 결국 승려는 그녀를 협박한 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 얼짱 각도 찾기

여자들은 사진에 민감하다. 실제로 예쁘지 않아도 화면 속에서는 무조건 예뻐야 한다. 섹스 비디오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 디카로 사진을 찍을 땐 45° 각도가 중요하지만 캠코더 촬영에서는 '왼쪽-오른쪽'이 중요하다. 그녀의 얼굴과 몸이 예쁘게 나오는 영감을 잡아 삼각대를 설치하자. 참고로 보통 여자들은 왼쪽 얼굴이 더 예쁘다.

FAIL: 이것 찍어냈더니 웹 목욕탕 아줌마가!

2. BGM 찾기

막상 캠코더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액션이 어색해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섹스 비디오 촬영에는 적절한 브금(배경음악)이 필수다. 들어놓는 음악에 따라 여친의 눈빛과 몸짓이 변할 테니 여러 종류의 음악을 준비해 놓고 그날 분위기에 맞는 브금을 재생하라. 참고로 가사는 없는 편이 낫다. 당신의 음악 선정 능력에 따라 여러 버전이 나오겠지?

FAIL: 아이미에 여자 아이돌 노래뿐이다. 캠코더 앞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퇴실 시간이 다가온다.

3. 녹화 없이 생방송 하기

그녀가 섹스 비디오 찍는 걸 가리는 게 '기록이 남기 때문'이라던 녹화는 접자. 대신 TV와 캠코더를 연결만 하자. 캠코더를 켜놓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지켜본다는 묘한 느낌이 든다. 게다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생라이브. 배방한 입세 시문드까지 만끽할 수 있다. 끝난 뒤 캠코더를 그녀에게 확인시켜 안심하게 만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

FAIL: 그녀 몰래 남겨둔 캠코더 속 파일을 까발려 잊어버린다. 캠코더를 들고 소용 없던 어린 여동생이 울면서 토박인다.



"9살 때 집에서 섹스 비디오를 찍어본 적 있다"

영화 <스미타덴>에서 스파이더맨과 죽은 아버지 시신을 방탕하는 '레오'로 역의 배우 제임스 프랭크가 이 같은 고백을 했다. 그는 "촬영할 때 내 기분이 좋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며 이후 포르노 배우를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섹스 비디오를 찍고 나서 느낀 게 고작 포르노 배우를 향한 존경심이었다. 예뵈 짜질한 눈!

"난 아직 처녀예요"



전 미스 캘리포니아 캐리 프리리온은 17살 때 찍은 섹스 비디오(정확히 말하면 셀프 섹스 비디오)가 유통돼 미스 USA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녀는 남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셀프 섹스를 감행했는데 정작 그녀는 '이직도 아무것도 자본 적이 없다'고 한 라디오 토크쇼에서 밝혔다.



1,600,000

2008년에 팔린 마블린 연로의 섹스 비디오의 가격은 약 16억 원. 하지만 이 비디오에 나오는 여자는 마블린 연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블린 연로 전문가가 "아래턱과 입술, 치아 모양이 다르다"고 했던 것. 그런데 마블린 연로 전문가도 있었어?



우는 여친 달래는 법
미국의 저서인 로렌버그 교수가 울음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실컷 울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눈물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이끌어 내어 기분이 나아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친이 울면 결국 백을 사줘야 한다.



누가 내 이야기하러?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매일 1시간 시청하면 수명이 최대 22분 줄고도 한다. 텔레비전 시청은 비만과 흡연에 필적하는 해악을 부린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패시비티는 정말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인가!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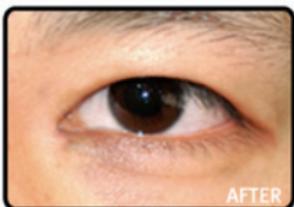


BEFORE



AFTER

〈눈 성형술 6개월 후〉



AFTER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doctor.co.kr



QUIZ: 스카페이스

완전 정복

이 영화를 아직도 안 봤다면 남자도 아니다!

* 보고만 있어도 주먹을 쥔게 되고, 일 파치는 물 따라 오인상을 쓰게 되는 (스카페이스)가 드디어 올 9월 블루레이로 출시된다(아메리칸 기준)

1 영화 내내 FUCK이 나온다. 1분당 평균 몇 번의 "FUCK"이 등장했을까?

- a. 0.8
- b. 1
- c. 1.32
- d. 2.75

FUCK



2 각본을 맡은 올리버 스톤이 주인공의 이름을 토니 몬타나라고 지은 이유를 알겠는가?

- a. HO.T 멤버 중 토니인을 제일 좋아해서
- b. 전 미식축구선수 조 몬테니의 팬이라서
- c. 몬타나 주 출신인 여자친구 토니를 위해
- d. 부산 출신의 한인 투자자가 "니 제대로 몬태나"라고 다그치는 걸 듣고

3 영화 속 코카인 대신 원래는 '이 가루'를 쓰기로 했으나 결국 '이 가루' 대신 다른 것이 사용됐다. 대신 뭘 썼는지 묻는 질문에 감독 브라이언 드 팔마는 '영화의 리얼함을 망친다'며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다. 원래 사용하려 한 '이 가루'는?

- a. 분유. 영화 촬영 때마다 몸 보습하는 기분이 들거끔
- b. 밀가루. 몸에 넣는 거니까 먹는 걸로.
- c. 베이비파우더. 여배우에게 모성본능을 일으키려는 감독의 계획이.
- d. 핫소시 마라. 진짜 코카인이다.



4 토니 역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가, 나중에 알 파치노의 대성공을 보며 배 아파한 배우는 누구일까?

- a. 존 트라볼타
- b. 사론 스톤
- c. 마이클 더글라스
- d. 로버트 드 니로



5 두 암살자가 바빌론 클럽에 서 총을 쏘기 전에 마시는 맥주 브랜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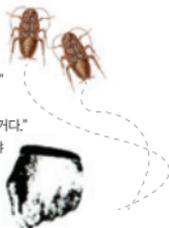
- a. 시카고 볼스 원샷
- b. 리켄브로이
- c. 카스 라이트
- d. 브와이저

6 MAXIM 같은 마스터피스에도 깨달 같은 오타와 오기가 있듯, 모든 컬렉션에는 약간의 흠이 있는 법. 이 영화 속 실수가 아닌 것은?

- a. 토니가 부엌에서 소리를 치는 장면이 불마이크 그림자가 비친다.
- b. 여러 명이 난동을 피우다가 장면이 끝나기도 전에 엑스트라들이 동작을 멈춘다. 일일!
- c. 감투 브라이언 드 팔마가 거울에 비쳐보인다.
- d. 토니가 TV에 나오는 텔레칸을 "틀리라고홍희"라고 한다.

7 다음 중 토니의 대사가 아닌 것은?

- a. "네 작은 친구에게 인사하 하하지"
- b. "나는 허쿠니마티타!"
- c. "저 바퀴벌레 새끼들을 물어버릴 거다."
- d. "날 상대하려면 군대를 끌고 와야 할 거야"



정답: 1.c / 2.b / 3.a / 4.d / 5.b / 6.d / 7.b

너무 쉬워서 짜증나지? 미안해. (토니 버전) "사실엔 너무 중요한 문제를 상대하니 기분이 좀 나 짜증스럽지? 그렇다고 내가 싸바 마냥이라고 나불대면 나 좋잖은 일이 될 줄이야? 내가 나미 조카..."라고 했을 거야. 토니라고 말이지!

10

미국 영화 창작인 노조 (SAG)가 뽑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액션터 영화 리스트에서의 순위



늘는 것에 미친 남자들

프랭크로 사상 가장 평가가 많이 난 경기는 1933년 12월 13일, 디트 로이트 피스톤스와 앨버 너켓츠의 경기다. 두 팀은 각각 1962, 194를 기록, 합이 무려 370점이다. 경기 내내 점수만 날랐던 채도 123개나 주고받은 격, 이 오웬스밖에 모르는 변신!



8기 실연은 말들 레

1999년 11월 26일 영국 스코치 시 FC의 윌러 보이드는 교체 투입되자마자 상대팀 선수에게 발로 여배를 날려 골망을 넘어 퇴장당했다. 그가 그라운드에서 있던 시간은 57초였지만 주심이 경기를 시작하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0초만에 퇴장 당한 새시기가 됐다.

억 소리나는 사기의 전말

나이저리아를 조심하라!



"나 USA사무총장이야. 아프리카 재건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어. 잘 되면 크게 돈을 태니. 일단 돈 먼저 보자" 나이저리아에서 이런 이름 일 받아 봤어? 49사기라고 불리는 나이저리아 이메일 피싱 때문에 2005년에 한 30억 달러가 공중 산화됐다. 최대 피해자는 브라질 은행 발코 노로에스테. 1996년 나이저리아에서 온 폭스 1장짜리 '신규형 건설 투자 제안서'를 보고 은행이 송금한 돈은 2억 400만 달러. 물론 공황은 없었다.

최근 (만무와 함께한 화요일) 나이저리아 사기(공과)의 모험이 한 채 나왔었다. 작가 리처 시겔은 나이저리아 사기(공과)의 이해를 늘 1년 동안 단신을 한 이사가를 맡았다. 사기(공과) 이름은 만두. 만두는 나이저리아 군사 정부가 송금용은 자금을 찾는 일에 동맹-송금하면 1천만 달러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작가는 "야야! 임신 중이라 크리스토나이트를 먹어야 한다"거나, 아프리카 토끼에서 만나고 약속한 뒤 "토끼(Togo) 미국 샌드위치 체인지업 행동 약국은 데 너무 맛있겠다"던 식으로 1년 간 그와 교신을 한다. 마지막엔 "야야가 죽었다. 난 복이 붙었는데 아직 못 봤겠다"라고 그와의 긴 통신을 마감했다. 이 작가의 홈페이지에선 사기(공과) 음성 듣기, 우스운 기분이 생생하게 다가 가능하다(MAXIM 편집 작가명은 Jack Gold)였다.

www.tuesdaywithmanu.com

세기의 황당커플

포복절도 가족의 탄생

너와 함께 라면

BY Koki Mitani



공연 티켓
독립하기



추석맞이 티켓 30% (9/6-9/18 공연에 한함, 회당 한정, 인터넷 예매 시)



코엑스아트홀 OPEN RUN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766-6007

www.thebestplay.co.kr

문의 02-766-6007

작가 미타니 코우키 (三谷幸喜) 번역 김태희 연출 민준호 출연 김진수 김남예 이주원 최대철 김승이 손희승 차용학 류해린 김민혁 제작 (주)연극발전 제작지원 IPARCO

MAXIM FITNESS CLASS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우리는 그런 떡이 되어야 한다.

ILLUSTRATIONS BY BROWN BIRD DESIGN

1. 팔의 짐승 조교

운동에 빠진 마차꾼을 보면 가끔 무릎을 꿇고 있다. 72세의 **제프리 라이프 박사**가 저 나이에도 볼 끈본다는 비결이 '일주일에 6일의 꾸준한 운동' 이라고 말할 순간 예뻐서 모두 그런 공부를 느꼈다. 영감남. 우리 하루 1번 동태리 화장실 가는 것도, 담배 시러 칠 할 수피 가는 것도 힘들어요.



1. 엎드려 팔·다리 교차하여 벌기
1세트 = 한 팔당 15회 반복

팔꿈치와 발끝을 버티는 푸시업 자세를 취한다. 어깨부터 발목까지 반듯하게 일 (-자)을 만드는 게 포인트. 복근은 안으로 바복 당기고 응교에도 힘을 뺏 준다. 이 상태로 오른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동시에 왼다리를 바닥에서 10cm 정도 들어올린다. 그리고 10~20초를 버틴다. 원래 자세로 돌아와 왼팔과 오른다리를 번어 들어올려 버틴다.

2. 스위트 컬과 프레스

1세트 = 15회 반복

양손에 덤벨을 들고 선다. 발은 어깨·비로 벌린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을 이룰 때까지 무릎을 구부려 않는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면서 양손에 든 덤벨을 상체 쪽으로 들어올렸다가 머리 위로 치켜 올린다. 팔 굽혀 올린 다음에는 느릿하게 반으로, 다시 천천히 원 위치.

뱀배 무게야?



3. 아침에 일어나 담장 너머 이쁜이 관찰

1세트 = 15회 반복

침방 아래에 매트를 깐다. 당신의 링크핏 요가 매트를 써도 좋다(누나 꺼야닌 거 다 알아).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팔은 머리 위로 쭉 뻗은 상태로 매트 위에 놓는다. 천천히 뒷등(요기)을 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 자리에서 뛰어들라 침방에 매달려 턱걸이를 한다. 내려와서 다시 바닥에 앉아서 놓는다. 반복, 또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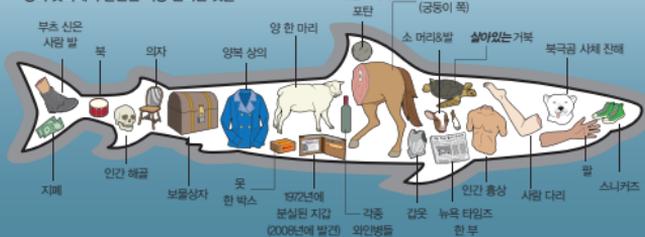
이렇게 관해서 발목 일어난 거야



상어야, 상어야, 무얼 먹고 사느냐

상어 텃밭에서 발견된 기생 천하의 것들

누가 황명수 좀 깃다줘라.



나 이직 안죽겠어!

지난 7월, 남양주에 한 영안실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깨어났다. "너무 추워요. 개·취주머"라고는 하고 말과 비명에 영안실 직원은 혼 박백산했다. 시신같은 갇힌 지 2시간만에 깨어나지만 추운 곳에 너 무 어 데 있었거니 다시 병원에서 후송되었다.



내 덕이야

작년 5월, 전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무려 7억 7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유는 "너의 영靈이 부활하여 내가 주는 기도의 예나자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으니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말이다.



들어두면 다 삼키 되고 피가 된다.



속속한 뉴스

미국 예니나 대학 신자 로빈슨 박사 연구에 따르면 소년이 소녀보다 더 일찍 자위를 시작하고,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는 3세, 소녀의 1/20이 자위를 하며, 일주일에 2회 DDR을 뛰는 소년은 전체의 50%, 소녀는 23% 정도다. 그래서 늙어지면 노 노노! 할 수 있을 때 맞이 해라.



사이코 뉴스

벨기에 루벤 대학 병원은 코를 생형한 사람의 1/30 정상자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치료가 아닌 단지 미용을 위해 얼굴을 리모델링한 환자의 무려 43%가 자기 외모에 결코 만족을 못하는 정신병인 신체이형장애(중독모증) 증상을 보였다. 그냥 다시 태어나.



거시기 뉴스

충주 아델레르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거시기가 부실한 동맹이 있다면 배도 오공들이 세진다고 한다. 비판 때문에 당뇨병이 생긴 남자들의 몸무게를 줄였더니 8주 만에 골무가 뺏겨지고 소변 출기도 세졌으며, 이 효과는 1년 정도 지속됐다. 바아그, 보고 갔어?



씨스타 뉴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 연구팀은 말랑 까진 여자애들의 뒤통사를 했다. 그 결과 인기가 10대에 임신율 하연 여성들도 10대에 임신할 확률이 일반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남습쿠 그럴 확률은 높고요, 이리다 자매가 육봉부 되갔어.

행복이 더하는 곳, 더성형외과



더성형외과 홍보모델
개그맨 **이방용**

그가 달라졌다

이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이미지컷으로 실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성형외과 입체미남 프로젝트!!

더성형외과의 안면윤곽수술은 사각턱축소술과 L타입 광대술을 통해 다각도로 턱의 발달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수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10706-증-22960호

3호선 입구정역 2번 출구 30M 직진, 구정빌딩 5층
www.theclinic.co.kr | TEL.02-3446-0055

 THE PLASTIC SURGERY 더성형외과 의원

2011 MISS MAXIM CONTEST
THE 5TH SEMIFINALIST

이명희

소파 위에서 수줍은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에
MAXIM 남자 스태프들은 일제히 침을 꿀꺽 삼켰다.
귀여운 외모에 과감히 상의를 벗어 던지는 화끈한 성
격까지... MAXIM 여성 독자들은 출렁하다.
정말 훌륭해!

BY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WORDS & FILM BY 송종민 HAIR & MAKEUP 이연영

MISS MAXI



생년월일 1983년 3월 15일생
직업 재즈댄스 강사

페이스북 facebook.com/myungashley

주요 서식지 대구 중앙로

가장 먼저 보는 남자의 신체부위 엉덩이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엉덩이를 보면 뭔가 있어 보인다.

달은 연예인 이정현, 신민아, 이효리, 천도연. 내 입으로 말하기가 참...

노래방 18번 소녀의 '내가 아닌가요'

이상형 기타 치는 남자

이성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예쁘진 않은데 매력 있어요" 남자들은 왜 말을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걸까?

최악의 직업남 질투심 유발하는 남자. 나 좋다고 해놓고 예쁜 내 친구한테 자꾸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싫지만 자꾸 눈에 거슬리고 계속 생각나긴 했다!

촬영 현장
침투하기



M



OF THE
MONTH

2011 MISS MAXIM CONTEST

MAXIM 화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아리따운 여성 독자들에게
2011 MISS MAXIM CONTEST에 도전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 참가 신청 방법
- www.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 우측에 MISS MAXIM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 독자들에게 오문할 예쁜 사진 20장을 업로드한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문의 메디터 김희성 070-4010-8995 alices@maximkorea.net

MAXIM OFFICE ASSISTANT

MAXIM이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일일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기로 했다!

BY 김희영 PHOTOGRAPHS BY ARC STUDIO WORDS&FILM 송승민 HAIR&MAKEUP 이현정 MODEL 이영희

COOPERATIONS 로에베(02-546-7764) 슈즈헨(02-3443-1703) 오비맥주(www.obbeer.co.kr)

▲ 9:11 AM

"오늘 첫 번째로 걸려온 전화네요. 정기구독 신청을 받았어요. 주소는 대구광역시... 어머, 저도 대구 사는데!"



안경 로에베 by
다라인터치세상
구두 슈즈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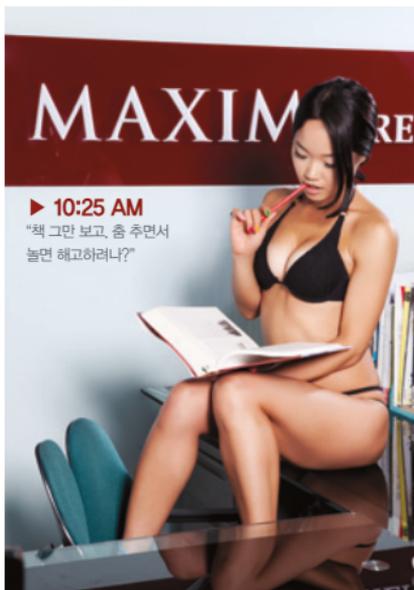
▲ 10:53 AM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하라고, 이 사람!"



▶ 10:25 AM

"책 그만 보고 좀 주면서 놀면 해고하러나?"



▶ 반가워요. 어떻게 어시스턴트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작년 MISS MAXIM 콘테스트에 지원했는데 이미 후보자 선정이 끝난 뒤였더군요. 그 후 콘테스트에 지원했던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MAXIM 에디터에게 "이번 해에 다시 지원해 보지 않겠느냐?" 는 연락이 왔어요. 저 나름 캐스팅 된 거 아닌가요?

MAXIM과 당신은 어떤 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MAXIM 하면 '섹시' 아닌가요? 저도

섹시함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 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걸 보면요. MAXIM의 솔직 당당한 모습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어떤 점이 그렇게 섹시한가요? 유연성이 끝내줘요. 벽에 다리를 일자로 붙일 수 있고 다리를 머리 뒤로도 넘길 수 있어요. 볼래요? 자..

괴, 굉장하군요. 발로 귀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 11:04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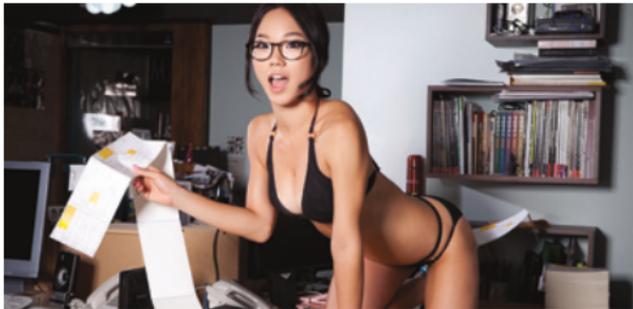
"더하기는 자꾸 틀리는데 뽕샘은 정말 쉬워요. 특히 안에 관해서는 말이에요."



▼ 11:40 AM

"잠심은 언제 주나요?"





▶ 오늘 하루 MAXIM 사무실에서 어떤 일들을 했나요?

밀린 책 주문 포장을 하고 화가 난 독자의 선화를 받기도 했어요. 비가 내려서 책이 젖은 게 왜 제 탓이죠? 살짝 속상했어요. 오후에는 상자 정리를 하다가 MAXIM 남자 직원들과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시선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누구나 그렇거예요! 오늘 퇴근하고 뭐 해요?

운동이요. 운동을 안 하면 우울해져요. 복싱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프로팀에도 있었는데 남자랑 스파링을 하니까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취미로만 하기로 했죠. 그래도 아직 복싱을 사랑합니다.

운동 말고 MAXIM 독자들에게 자랑할 만한 게 또 있나요?

2006년 모 방송국 클럽 댄스 대회에서 3연승을 했었어요. 3주 연속으로 말이죠. 부모님이 축하를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죠. 하지만 TV를 보신 얼마 만에 빗자루로 엄청난 두들겨 맞았어요. 제가 대체 쟁 잘못한 거죠?

오늘 하루 MAXIM에서 어시스턴트 일을 해본 소감은 어떤가요?

사무실 일이라서 재미 없을 줄 알았



구두 슈즈점

▶ 3:43 PM

"이렇게 훌륭한 교양 서적이 5,400원밖에 안 하구나! 너무 싼 거 아닌가?"

는데 재미있었어요. 꼭 올해의 MISS MAXIM으로 뽑혀서 MAXIME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83년생 맞나요?

왜요? 누나는 색시하면 안 되나요? (웃음)

사랑합니다.

남다른 바디스펙의 그녀를 더 보고 싶다면 P.137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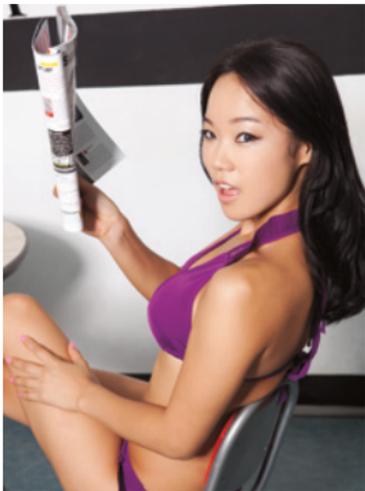


◀ 11:48 PM
"응? 응? 밥? 밥?"

▼ 1:50 PM
"저를 장구독 선물로 부치신다구요?"



◀ 12:35 PM
"와, 점심 식사 후 맥주라니... MAXIM은 정말 신나는 곳이군요! 그런데 이런 자세 처음 보나요?"





락혁! 이혁!

by 송준민 ILLUSTRATION BY 권영준

조빈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달 같은 남자 이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벌써 죽어야 한다네! 더 노라조!

자, 이제 당신의 목숨이 24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묘비에 뭐라고 적을 건가?

Rock Hyuk. 길게 적으면 읽는 사람 짜증날까 봐.

노라조는 언제나 조빈이 센터였다. 이 인터뷰도 사실 1년 전에 그가 먼저 했다. 불만 없나?

전혀. 조빈 형이 중심이라 책임감도 많이 느낄 때가 있고 스케줄도 훨씬 많다. 난 귀찮아서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누가 뭐를 하건 받는 돈은 항상 반 반이거든. 흐흐흐.

《불후의 명곡》 우승을 계기로 대중의 시선이 당신에게 쏠리고 있다. 지금 조빈은 불만해 하고 있나? “그 불도 금세...” 라며 오히려 표정을 짓고 있다. 제일

플리(poly) 의상은 너무 아쉬웠다. 소속사에서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가죽 의상 사라고 돈 주면 물레 레저를 사고 남은 돈을 내가 챙길 거다. 핫한 플리엔 어쩔고 가죽이 먼 어쩔리요. 가죽은 내 실가죽으로 충분하다.

그날 무대에서 마이크랑 싸우고 넘어질 뻔했지?

마지막 편지를 날리는데 옷이 작아 같이 떨어 나간 것 같다. 앞으로 뛰어 나간 게 민망해서 마지막에 사투리를 뒤돌아서 했다. 마지막 사투림도 예전에 없었던 거다.

입가에 생겼던 수포는 정말로 노래 연습 때문인가?

당시 스케줄도 많고 밴드 멤버 친연의 스케줄을 맞추 수 없어 항상 늦게 연습을 시작해야 했다. 그

러다 보니 녹화 이틀 전에 수포가 생겼다.

《불후의 명곡》 참가자 중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나?

유지철 배우 임태경. 무대를 보는 내내 표정과 동선, 노래와 감정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사실 임태경씨가 우승할 줄 알았다.

록커 이혁으로서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시 락을 하고 싶은 생각 없나?

너무 하고 싶어서 꿈에서도 헤드뱅잉 하는 꿈은 꿈다. 하지만 노라조 5집이 먼저 성공해야 밴드 만들어 달라는 부탁도 씨알이 먹히겠지.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노래는?

슬로곡 중에 ‘아직’ 란 노래가 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한다. 세상의 빛을 본 노래지만 만들고 녹음한 것만으로도 현재는 만족한다.

스틸하트와 듀엣이나, 공동작업이나 논란이 있었지만 대형히 ‘슈즈 끈’ 녹음을 마쳤나.

동경하는 유지철이었는데 그런 유지철을 직접 만나 대화도 나누고 함께 녹음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다. 아직 완성된 노래는 못 들어 봤지만 타이밍 향님의 기타가 매우 좋고 편곡도 무척 마음에 든다. 피아노 코드 편곡이 잘 돼서 슬픈 느낌이 좀 더 살아나는 것 같다. 아마 완성되고 나면 더 좋아하겠지? 하하하하

직접 만난 스틸하트는 어땠던가?

과거 머리를 길게 기른 모습만 보다가 짧은 머리를 보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었다. 부인이 머리를 기르는 것에 불만이 많아 그동안 눈치를 보다가 결국 과감하게 찢었다고 한다. 찢긴지도 얼마 보이고, 느낌은 상당히 편했다.

의외로 이런 질문 안 받아봤을 것 같다. 이상형은?

나이 먹고 보니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하지만 트러블 없는 반들거리는 힙 퍼머션 좋겠다. 사람들은 내가 하얀 편이라서 태만한 여성을 좋아할 거라는데 정반대다. 나보다 더 하얀 피부여야 한다고 반드시 (아, 아까 외모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한 말이랑 너무 다른가?)

죽는 순간에 당신 옆을 지키고 있을 사람은?

아마도 부인이 지키고 있지 않을까 싶다. 피부가 아주 흰 부인아...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내 목표는 노라조 60주년 콘서트를 하는 것인데 만약 그때까지 우리들이 살아계신다면 모두 보러 오면 좋겠다. 그 때 조빈 형의 게다리춤을 보는 게 내 소원이다. 하하하하하하

RAT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Authority

디아블로 내가 잡는다.

〈디아블로 3〉가 온다. 그가 누구인가. 수능날 아침까지 횡횡드를 돌게 만들어 수많은 재수생을 양산시켰고, 대학생들의 성적표에 F16 편대를 띄우게 만들었던 악마의 게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흥그라운드를 내줬던 1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국내 게임계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 과연 어떤 전략으로 디아블로를 상대할 것인가? > 송홍민



Blade & Soul

파격적인 섹시함으로 승부!

〈디아블로〉가 중독성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리니지〉도 빠지지 않았다. 블레이드 & 소울은 〈리니지 2〉의 총괄 프로듀서가 디렉팅하는 만큼 몰입감 높은 플레이를 기대해보고 되겠다. 거기에 한국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의 대가 강현태가 디자인한 캐릭터들은 섹시아필에 능하니 보는 재미도 쓸쓸하다. 게다가 레벨이 올라갈수록 노출도가 높아지는 법칙조차 깨버리고 처음부터 과감한 의상을 자랑하는 관계로 상인 등급을 받고야 말았다. 아호!

VS.



KINGDOM UNDER FIRE II

개성 있는 영웅 캐릭터로 승부!

개발 초기 공개된 이시벨라의 섹시한 피부 표현은 게이머들의 입을 벌리게 했다. 사실 전작 〈서플 오브 더〉의 흥행 성적은 초라했지만 엘프녀 셀린의 인기만큼은 날부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유혹의 다크엘프 이시벨라와 당찬 부사관 올리비아를 비롯, 전통의 레그나이어와 캔달 등이 총출동해 영웅들의 웅장한 편지치를 선보일 예정이다. 벌써 다섯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완성된 세계관과 사연 있는 캐릭터만으로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원래 캐릭터가 제대로 완성되면 게임 재미에

HOT SHOOTERS

RATED

FILM

충질을 가장 색시하게 하는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BY 김희정



조 샐다나의 낮과밤

이러 FX 가면 다 알아.



조 샐다나 콜롬비아나

《아바타》에서 퍼퓸 칠을 하고 나비족으로 나온 조 샐다나가 다행! 이번엔 인간 여전사로 돌아왔다. 부모님을 죽인 거대한 조직에 원한을 품은 카탈리아(조 샐다나)가 복수를 하기 위해 칼리가 된다. 우울한 가정사 때문에 늘 눈알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녀의 모습이 남자의 보호본능을 자극

한다. 그러다 갑자기 원수를 보인 눈을 부릅뜨고 무표정으로 변해 구르고, 충질을 해낸다. 거기다 《갯수안》의 할 배리, 《아이언맨 2》의 스킵 화이트 등 할리우드 대표 색시 미녀라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까만 풀풀이 슈트! 그 안에서 움직이는 조 샐다나의 늘씬한 몸이 세밀할 시원하고 티프한 액션을 선사한다. 9월 1일 개봉

사립사 로넌 한나



16세 소녀를 살인병기로 만든다는 설정까지 훌륭했는데 이상하게도 흥을 든 그녀의 액션에선 어떤 긴장감도 느낄 수 없었다. 처음 본 사람의 몸에 안겨 울다 모가지를 확 비틀어 켜는 기습 공격 첫 키스 상대에게 날리는 인연 가격은 훌륭했다. 총대신 다른 것도 취어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츠나 간츠



수수께끼의 검은 구 '간츠'에 의해 F 컵의 소유자(나츠나)가 소환된다. 실 오리기 하나 안 걸치고 그녀는 '이 작품이라면 기꺼이 벗고 싶다. 몸에 라인이 생길까봐 며칠 전부터 속옷을 안 입었다.'며 프로악시를 보였 다. 그래서 우린 나츠나가 충질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신세경 푸른 소금



거 소금 증 주심

은퇴한 조직 보스 두현(송하경)을 없애라는 지령을 받고 어리고 예쁜 여자 세번(신세경)이 접근한다. 영화 내용을 다 떠나서, 카메라가 신세경의 촉촉한 눈망울을 잡는 데만 너무 심함을 가할인 것 같다. 세경이가 예쁜 건 참 예뻐~
나 예쁜 거 나도 알아 안 그래?

나비족에서 칼리가 되기까지

01 조 샐다나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 LA 경찰특공대로부터 특훈을 받고, 실제 총을 쓰는 연습은 물론이요, 조립하고 분해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강제의가 잡사사 어디로 나오는 영화는 누가 안 봐?

02 콜롬비아나는 카탈리아가 어린 시절을 보낸 콜롬비아의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확고한 성격을 가진 여자라는 뜻도 있다(이전 영화를 보면 안다).

03 몸에 딱 붙는 줄풍이도 색시하게 소화한 조 샐다나의 몸에 비결은 발레다. 그녀는 어릴 적 7년 동안 발레를 배웠다. 조 샐다나는 인터뷰에서 "어릴 적부터 몸을 움직이는 일이 좋았다. 어릴 적부터 발레를 배운 것이 몸에 관나나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엄마, 나는 왜?

04 조 샐다나는 2009년 《스타트랙 더 비기닝》의 JJ 에이브럼스 감독과 함께 한국에 온 적이 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봉준호 감독'을 꼽았다.

콜롬비아나 시사회 가기



9월 신작 예고문 보기



지뢰를 피하는 방법

올해 유독 대형 지뢰가 많다. 조심해! 조심하라!

세이프!!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아바타를 창조한 제타 디지털의 기술력과 비인간 전문 배우 엔디 사키스의 유인원 연기가 상당하다. 그걸 봤자 원숭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8월 17일 개봉



로넌의 크라운

다 늙어서 대하에 간 주인공을 응원하는 주변 인물들이 주는 재미가 깨달았다. 여 고수 역을 맡은 줄리아 로버츠도 꽤나 매력적이다. 8월 17일 개봉

지뢰다!!



카우보이 vs 에이리언

서부시대에 카우보이와 외계인이 현미 뜬다는 어이없는 내용과 설정은 그렇다 치고, 웃길 생각은 전혀 없고 다들 너무 지루해서 당황스럽다. 8월 11일 개봉



드라이브 엔그리 3D

아직도 여름 액션 영화는 스토리가 엉망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감독이 많지만 차도 되는 줄 알았어? 엠버 허드가 예쁘니 이 정도로 봐줬다. 8월 25일 개봉



제법 관참은 아이돌 음반

아이돌이라고 무덤덤하고 까지 마라! 관참은 아이돌의 음반은 허세가 잔뜩 들어간 뮤지션의 음반 따위 가볍게 씬을 싸줄 테니 말이다. BY 김성현, 김민욱



인피니트

정규 1집 <오버 더 톱>

특징 80년대 유티팝을 떠오르게 하는 정가론 사운드다. 요즘 남자 아이돌 그룹에서는 찾을 수 없는 촌스러운 스타일의 댄스 음악. 하지만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다.

이래서 좋다 합성이 잘 맞는다. 멤버 개개인의 목소리를 하나의 악기처럼 잘 편성해서 사용한다. 댄스 역기 마친가치. 그래서 멤버가 도드라지지 않지만 인피니트 스타일의 음악은 어릿속에도 더욱 포착이 남는다. 1980년대 디스코장을 떠오르게 하는 흥겨움이 담겨 있다고나 할까?

평가 인피니트의 노래를 들은 유휴열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 1세대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해냈기 때문이다. 이번 음반 역시 그룹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양년의 아이돌마냥 그룹으로 있을 때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성도 ★★★★★
이 음반이 좋다?
오랜만에 H.O.T의 1집 음반을 들어 보도록!

남자라면 들어야 할 신보 3장

리쌍 7집 / 아수라 발발타
더 루시아노스 2집 / 푸른밤의 비로 너머나 / 20주년 기념 음반



f(x)

정규 1집 <피노키오>

특징 걸그룹의 음반에서 케이팝 특유의 뽀빠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놀란다. 음반 전체에서 담백하고, 깔끔하게 정제된 사운드를 들려준다. 우리나라 뮤지션의 음반에선 자주 볼 수 없는 노이즈를 적절히 활용하는 테크닉도 인상적이다.

이래서 좋다 다양한 작곡가들이 음반에 참여했다. 일단 싱크로율이 트레이드마크인 인디밴드 페퍼톤스. 걸그룹 노래를 만드는 일에 진배가 굵은 스윗투의 존재가 눈에 띈다. 페퍼톤스는 f(x)의 싱크로를 더했고, 스윗투는 걸그룹의 보컬을 가지고 노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여기에 프로듀서 히차하이(게저누)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공존하는 세련된 음반을 완성시켰다.

평가 우리나라 아이돌 음악의 진화는 f(x)로 대표된다. 병신 톤은 가사, 독특한 사운드로 무장한 그룹이 결국 대중에게 먹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중성과 실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f(x)는 SM이 여자 동방신기를 꿈꾸며 내놓았던 천성지희 더 그레이스에게 버렸던 바로 그 모습이었을 것이다.

한성도 ★★★★★
이 음반이 좋다?
f(x)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NU 에피오) EP 음반을 정주행하도록!



윤하

정규 2집 <썸데이>

특징 윤하는 어린 나이치고 상당히 곡 해석력이 높다. 토이, 타블로 같은 싱어송 라이터가 그녀의 목소리를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음반에 적극 활용하려는 이유가 있다. 윤하의 2집 <썸데이>는 그녀의 이런 재능이 십분 발휘된 음반이다. 록과 발라드 사운드를 넘나드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래서 좋다 베이비노 보컬 실력을 바탕으로 한 피아노 코리안은 정가기 있음에도 소수자의 눈길으로 말랑말랑한 노래를 불러야 했던 윤하가 자신의 포텐셜을 폭발시킨 음반. 1집과 2집을 비교해서 들으면 동일 가수의 음반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평가 좋은 가수에 필요한 건 좋은 곡이란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1집에 비해 놀라운 정도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2집은 아이돌의 음반이라고 믿지 않을 정도로 자랑한다. 하지만 음반사의 잘못된 타이틀곡 선정 및 홍보로 멸망한 비운의 음반이다. 그런 흑역사만 제외한다면 참 흡입을 구색이 없는 잘 나온 명반이다.

한성도 ★★★★★
이 음반이 좋다?
일본의 싱어송 라이터 유이의 음반을 들어보도록!(에프터스쿨의 유이가 아니다)

직업의 정석

거의 넘어왔다고?
이제 대형 뮤지컬로 최종정점을 찍자.



엔트 뉴옥 이스트 빌보드에서 가난한 예술가의 삶을 그린 록 뮤지컬. 에이즈와 마약, 동성애가 흑인들과 어울려서 결합한 전율을 선사한다.

공연 대상: 옥스퍼드 총관한 여성
VIP석 2인 = ₩14,000 x3
공연 수입 = 로또 1등 198만
MAXIM TAGS: 윤규우, 김자우, 브라이언, 박광민(음?) 도기, 송우진(음), 8월 28일~10월 9일



캐츠 댄스, 발레, 재즈 댄스 등 퍼포먼스와 코미디가 땀이 잔뜩 날린다는 것만 알아두자.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공연 대상: 고양이 대관 사육이 취미인 고양이 애호가들 한 귀요미
VIP석 2인 = ₩14,000 x4
공연 수입 = M/V BACH ZEPPELIN X 684 + all new MORNING X 22
MAXIM TAGS: 악바리, 홍지민, 인순이, 그래요 난~난 꿈이 있어요, 사육사대미어, 9월17일~12월 31일



아카씨와 긴템 문고로 등두하는 손전등 여인 사리를 먼저 독행하는 사람이 내기에서 이긴다는 뉴욕다운 뮤지컬. 1950년 초연 이후 4,886회나 공연된 작품이다.

공연 대상: 뉴욕 하버드대학교 고스 문화학과 수석 졸업하고 키치노 경연 수업 중인 신너성
VIP석 2인 = ₩14,000 x1
공연 수입 = MAXIM 59624912 x1
MAXIM TAGS: 김무연, 친구 정성아, 김중우, 옥주현(음?) 도기(음?) 나는 배우다, 국민 호감의 딸 때까지, LG토센타, 8월 22일~9월 18일.

인생을 담은 게임 게임을 품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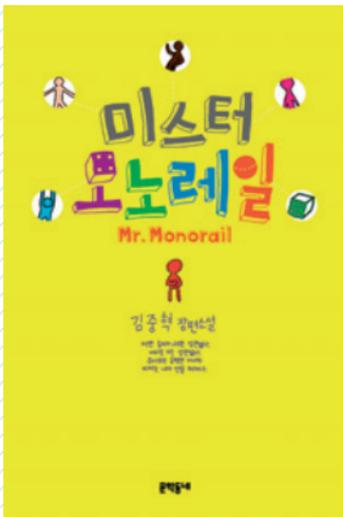


추석 연휴 막히는 버스 안에서 지루함을 피하려면 재미있는 일을 거리가 필요하다. MAXIM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쓸쓸한 재미를 얻겨 줄 책 1권을 소개한다. **BY 김중혁**

미스터
모노레일

김중혁 / 문학동네

〈미스터
모노레일〉
선물받기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게임을 알고도 그랬을까?’ 라는 카피를 달고 나온 보드게임이 있다. 주사위를 던져 가상의 모노레일로 이어진 유럽의 도시를 돌아다니는 게임으로 두 달 만에 50만 개, 100만 개를 판매하는 데는 석 달밖에 걸리지 않는 기염을 토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점점 신으로 간다. 게임을 만든 모노의 친구 아빠가 회사도 6억을 가지고 잠적해버리고, 알고 보니 그는 공을 숭상하는 ‘볼교’에 빠져 유럽으로 건너간 거였고, 그를 찾아 유럽으로 떠난 모노와 친구들이 추격전을 벌인다. 까놓고 말해서 이런 상황 전개는 말도 안 된다. 작가가 쓰려는 소설은 안 쓰고 지금 주사위 놀이나 하고 지빠

졌다? 가. 기본 어떻게든 이 소설의 진짜 콘셉트인 지도 모르겠다. 의지보다는 우연과 타이밍에 의해 좌우될지 때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 4가 나와야 될 뻔 꼭 6이 나와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한 판의 주사위 게임과 뭐가 다르냐는 거다.

주사위가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보드 게임 카피는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 (헬로, 모노레일) 할 때만 빼고’로 바뀐다. 카피가 한결 당당해진 건 주인공 모노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지 게임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든 상관없다.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재미부여를 하도록 만들었으니 소설은 충분히 제 몫을 다했다!

별별 주사위

안잡지 14번째 주사위

통일신라시대 연두인 안잡지가 발견된 주사위. ‘술 석 한 번에 마시기’, ‘술 마신 뒤 소리내지 않고 춤추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술자리에서 사용했던 놀이기구로 추정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영구보존처리를 하려고 전기 오븐에서 건조하고 과열로 태워버려 영구히 사라진 상태.

상아 주사위

〈미스터 모노레일〉에 등장하는 행운의 주사위. 모노는 ‘벨로 모노레일’을 사가지고 가는 여자를 발견하고 그를 미행했다가 그의 아들에게 상아 주사위를 선물로 주고 나온다. 승승장구하던 모노에게 그 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그 주사위를 행운의 주사위로 믿게 된다.



주사위 보드 게임 BEST 3

세월 따라 변화해온 주사위
보드게임의 변천사!



모노폴리 1935년생/해즈브로(미국)
부루마블의 원조격으로, 독과점이 없거나 무서운지 일리기 위해 만든 게임이다. ‘모노폴리’라는 이름처럼 특정 색깔의 지역을 독점하는 사람이 이긴다. 주사위 운과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땅을 사고파는 트레이드 능력도 중요하다.
HAPPY TIME ‘8세 이상, 글을 읽고 셈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제조사의 설명을 듣고 자신감을 느낄 때.



부루마블 1982년생/씨앗사(한국)
국내 최초의 보드게임이자 모노폴리의 한국판이다. 부루마블도 모노폴리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8인 이하로 가능하며 ‘사회복합기’ 카드를 추가해 복지 제도를 확충했다. 부루마블에서 노른자 땅은 서울로, 타이페이(5만 원)보다 20배나 비싸며 통행료를 가장 쓸쓸하게 챙길 수 있다.
UNHAPPY TIME 겨우 서울을 싣는데 ‘반역캐슬’ 카드가 나왔을 때.



벨로, 모노레일 2011년생/모노(한국)
유럽을 하나로 잇는 가상의 모노레일을 만들어 가기로 유럽을 여행하면서 속고, 속고, 도망가고, 따라가는 게임이다. 블루, 화이트, 레드, 블랙, 핑크 다섯 종류의 말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게임의 시작으로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타의 게임과 달리 판권을 만들고 상대의 약점을 역이용해 깨 파고들어야 이긴다. 그래서 흑자는 이 게임을 일컬어 ‘인간의 악마성을 표출시키는 주술사’라고 할하기도 했다. **재미있지만 SORRY** 당신은 낫겠다. 이 게임은 소설 속에서 등장한다!

팝업 유어 걸! 바코드 카노쇼



아이폰만 있으면 당신 주변의 과자가. 에프킬라가, 차약이 어저로 바뀐단! 무슨 헛소리냐고? 책사닷컴 BY 송종민

우렁각시 설화, (미도리의 나날)의 공동점점? 주변의 흔한 물건이 갑자기 에프킬라 처한 처자로 변해 남자를 호감시켜준다 내용이다. 이처럼 굶주린 남자들은 무성물조차 어저로 여기는 정신병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 하지만 그 정신병도 현실로 실현해 주는 것이 바로 전세계 상점의 지문이나 다음같은 바코드를 활용한 재미난 상상력의 게임을 만나보자.

그녀와의 첫 만남



이름을 지어줘



그녀와 할 수 있는 일



진행 같은 사랑일요~



마감에 시달리던 에디터가 당 보충을 위해 '오 귀 비리'를 사먹는다. 포장 용기 뒷면의 바코드를 찍어본다. 다행히 그녀를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얏~

씨리얼의 그녀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이름을 지어줘야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될 테니 이름을 붙여주자. '오 귀 비리'에서 나왔으니 '오 씨리얼'이 좋겠다. (육 하지 마라... 작명소가 괜히 있는 게 아니냐)

지그시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 심장이 두근두근. 하지만 엄청난 상상을 질책이라도 하듯이 그녀와 나눌 수 있는 교감은 무척이나 제한적이다. 가장 기대할(?) 슬가 터지에도 그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쓰아를 뽀이다. 으허허허.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쁘니까.

나와 같은 씨리얼 과자를 먹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해 온다. 그녀를 빼앗기지 않으려던 열심히 그녀를 몰래* 주어야 한다! 일단 내가 도전자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으니 애정(시간)만 있다면 그녀는 당신 편이야! 세상에 돈 뺏기고는 싫어도 여자 뺏기고는 못사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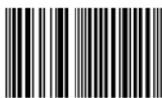
MAXIM의 그녀는 과연 어떤 사내의 여자가 될 것인가



MAXIM의 그녀 쟁탈전

9월 10일 오후 4시에 그녀를 소유하고 있는 남자에게 'SD건담'을 선물한다. 우측의 이벤트를 바코드를 최초로 스캔하여 그녀를 차지할 사람은 누구인가? 또 아직까지 그녀를 소유하고 있을 용자는 누구인가? 뽕과 방어하라! 그게 바로 연애! 이 정도 노력은 들어가 MAXIM GIRL의 남자가 될 수 있지!

이벤트용 바코드



응모 방법

9월 10일 16시 정각, 그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인증 사진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다카로 찍어올 할 걸가를 찍어 jim@maximkorea.net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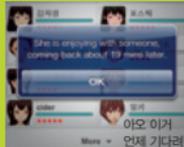


바코드 그녀 림

* 그녀를 돌봐주려면 바코드를 열심히 찍어 당신의 레벨을 빨리 올려야 한다. 레벨에 따라 보유자금과 행동 범위(스테이디나)가 상승하니 의외지만 되는 것이 어려우려 편하다. 과자나 생수 같은 생필품들은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 수입품을 위주로 찍으면 좀 더 쉽게 그녀를 차지할 수 있다.



* 그녀의 남친 소유자는 스테이디나가 있는 한 무제한으로 그녀의 호감을 줄 줄일 수 있지만 도전자는 한번 호감을 올리면 다음 동작까지 2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은 급한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전자는 수시로 바코드 그녀를 켜 두고 그 근처에 병을 넣어 과자가 될 때쯤에야 성과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코드 게임 안 판 더

드래곤볼 바코드 베틀러

반디에서 발매된 패이컴용 에드온 게임 시스템으로 바코드 카드를 읽어서 대결한다. 눈으로 봐서는 승부를 알 수 없는 바코드의 신비로운(?) 화려한 드래곤볼 일러스트는 두 오소스 큰 매력이다. 특히 카드 앞 숫자로 승부를 가리던 당시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 과학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또한 직접 과자 봉지에 입력된 바코드를 으저서 독특한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점은 게이머 주변을 보물로 가득 찬 모험의 세계로 만들어 주었다.



정바비가 만난 트램폴린

트램폴린의 음악은 낯설다.
하지만 이 낯설음에 당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익숙했던 일상의 공간마저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다. 트램폴린의 음악을 곁들이는 순간 말이다.



아름답고 기묘 있는 신스팝을 연주하는 여성 2인조 밴드 트램폴린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를 잊지 못한다. 10여 년을 내 집처럼 다닌 거리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다. 영상 집단 락앤플레이와 작업한 라이브에서 트램폴린은 자신들의 음악으로 서울 시간들의 한 지화보도와 택시 정류장에서 낯선 공간으로 만들었다. 지화보도와 택시정류장을 낯설게 만들어버리는 음악이구나! 어때 구미가 당기지?

물론, 그래서 낯설게 느껴지는 1집과 달리 2집은 노래와 연주의 경계가 명확해서 곡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특히 '리브 미 라이크 낯선즈 해프드 비포'의 반복되는 유희구는 참 매력적이다.

효선: 보통 데모를 녹음해서 기타리스트 나옴씨에게 들려주는데 그 곡은 나옴씨에게 코드 진행을 알려주고, 이렇게 쳐보라고 주문한 후 앞에서 직접 노래를 불렀다. 1집과 달리 이번 음반은 기타 한 대로만 소화할 수 있는 곡도 있대(웃음).

트램폴린과 DJ 은현의 만남은 어떻게 성사된 건가?

효선: 공연장에서 오고 가며 만난 사이였

신스팝이란?

80년대 유행한 뉴웨이브 음악 스타일 중 하나로서 신디사이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펫 시모즈, 듀란 듀란, 하워드 존스 등이 있다.

펫 시모즈

는데 우연히 은현씨가 작업한 산울림의 '더더더' 리믹스를 듣고 반해서 같이 작업하고자 제안했다.

디제이가 산울림 곡을 리믹스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은현: 산울림의 '더더더' 리믹스는 올해 서울패션위크에서 엠비오 콜렉션의 음악을 의뢰받아 진행한 작업이다. 산울림 외에도 윤상, 루시드폴 등의 감성적인 음악도 리믹스했다. 하지만 사실 내 공연에서는 상당히 과격한 시운드를 들려주는 편이다.

효선: 1집보다 심플하면서도 단단한, 팝송에 가까운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베이

스를 기본으로 한 단단한 소리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은현씨가 비트 작업으로 이 부분을 채워서 의도를 살릴 수 있었다.

은현: 그래서 비트를 만들 때 충분히 라우드(loud)감을 살리려 노력했다. 필요한 경우 킥 드럼 하나에 5가지 소리를 섞어 썼다. 음반을 만드는 작업이라서 적절한 사운드 매칭에 대해서 멤버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나옴: 음반 작업을 하다 시간이 나면 평소 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음반이 지루해서 그랬나(웃음)

같은 음악만 계속 들을 수 없으니 중간에 귀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웃음).

은현: 정말 휴식할 필요가 있다(웃음). 그럴 땐 평소 애 좋아하는 공간도 레펠도 딱치는 시운드의 노래를 들려준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나지나 가사가 전부 영어다. 노래 제목이 '인류학'이라는 곡도 있다. 곡의 테마나 가사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효선: 인류학 책을 읽다 문득 연애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려는 일이 문화 충돌과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다. 인류학자가 인류의 원형을 찾아 열대우림을 탐사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자친구의 미니홈피를 뒤지는 것과 일백상통하는 걸까?(웃음)

효선: 사진이 엄청나게 많은 열대우림 같은 미니홈피라면 그렇지요 모르겠네요(웃음).

가사를 영어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트럼폴린

2008년 색다른 팝 밴드로 무장한 1집 <밴드 로물로지>로 흥대 인디씬의 주목을 받았다. 1집은 처유선의 원맨밴드로 시작했지만 2집부터 기타리스트 김나은이 정식 멤버로 합류했고, DJ 은척이 음반의 프로듀싱을 담당해 사운드가 한결 단단해졌다.



효선: 처음 곡을 만들 때부터 영어로 가사를 썼다. 내가 알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하려면 오히려 영어가 자연스럽다. 리틀 에니멀이란 곡에서 '악마에게 무릎을 꿇고 기다린다'라는 가사를 우리말로 표현했다면 내 머릿속 느낌과 달랐을 거다. 다른 언어를 쓰기에 좀 더 뻔해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한글 가사를 잘 쓰는 가수가 정말 부럽다.

곡을 만들 때 나옴씨에게 가사 내용을 먼저 알려주나?

효선: 일일이 가사를 알려주진 않는다.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데 가끔 '바이크'라는 곡처럼 경험이 담긴 가사일 경우도. 비싼 자전거도 아닌데 밤새 창고 철문을 질러서 가자간 도둑의 의지가 대단했다(웃음).
나은: 가사를 알려주고, 까먹고, 알려주

고, 또 까먹고의 반복이다(웃음).

이번 음반을 작업하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

나은: 록밴드는 기타가 채울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신스팝 밴드인데다 효선언니가 노래를 들려줄 땐 이미 사운드에 빈틈이 없었다. 기타는 여기서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기타로 건반을 치는 느낌이 들 정도다(웃음).

효선: 2010년 즈음에 2집을 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늦어졌다. 하지만 훌륭한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가 만나 좋은 음반을 내놓을 수 있어 기쁘다.

은척: 나옴씨는 음정(lune)에 민감하고, 효선씨는 음량(level)에, 나는 주파수(frequency)에 예민해 셋의 궁합이 잘 맞았다(웃음).

정바비가 말하는 트럼폴린

전작보다 친숙한 '노래'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트럼폴린은 여전히 낯선 매력의 밴드다. 스트레이트한 록밴드에서 주로 연주해온 기타리스트 나옴씨에게도, 밴드플레이를 꼭꼭 채우는 사운드에 익숙한 프로듀서 은척에게도 이번 음반은 낯선 작업이었을 거다. 그리고 보면 자신이 가장 낯설 때는 시랑스러운 이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이다. 기껏 '나옴' 남자의 콘셉트로 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너 참 착하고 상냥해"란 말을 들었을 때의 병된. 그러면서도 묘하게 두근거리는 느낌이랄까? 내가 트럼폴린의 음악을 받은 순간 느낀 기분이든 그와 다르지 않았을 거다.



정바비의 신보 청취회(리소닝 캠프리벤션)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정바비의 오피셜 블로그(bobbychung.com)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uild a Better Martini

마티니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3가지 트릭

▶ **카테일 게보** 중 마티니만큼 많이 망가진 놈도 없을 거다. (카지노 로얏)에서 제임스 본드는 진과 보드카를 섞은 마티니를 마신다. 여기까진 봐줄 수 있지만, 1990년대의 바텐더들은 마티니에 기잡에 같은 것들을 추가했다. 애플, 초콜릿, 피치 따위가 마티니 앞에 붙더니, 이젠 마치 스티븐 시걸이 머리에 예쁜 꽃을 꽂은 거나 다름 없다. 그 상태로 시절 생애의 모가지 수천, 수만 개를 꺾는다고 상상해 보라. 얼마나 낫겠나? 그래서 우린 '진, 드라이 베르무트 그리고 가시'의 기본 레시피를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덜 여성스럽게 개조하기로 했다.



PHOTOGRAPHS BY CLAIRE BENOIST

1



필 어떻게? 소주를 베이스로 하라

007처럼 마시고는 싶은데 보드카는 좀 무서운 당신을 위한 레시피다. 소주는 보드카보다 알코올 도수를 낮고 더 달다. 그래서 소주를 베이스로 한 마티니가 파티에 등장하면, 진이나 보드카 같은 독한 술을 넣은 마티니보다 더 많이 마시고 덜 취하고 더 오래 놀 수 있다. 하지만 소주는 당분이 많아서 평소보다 훨씬 자독한 숙취를 선사한다. 소주를 마신 다음 날 아침, 두통에 시달리는 대가리를 바리케 수 차례 내리찍어본 사람은 다 알 거다. 하지만 파티판 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달려야 재밌이지 않 그래?

2



필 어떻게? 오렌지 비터를 더하라

술취기 바에 잘 가지도 않거나, 쓰디 쓴 마티니를 좋아하지도, 주문해본 적도 없는 남자가 적지 않을 터. 하지 만 남자는 바에서 과일 이빨이나 초콜릿이 붙은 마티니를(그 어떤 카테일도) 절대 주문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라! 물론 베르무트 특유의 쓴 맛이 너무 억압되어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도 있다. 이를 뺀 마티니에 오렌지 비터를 조금 넣어 약간 맛은 줄이고 상큼함을 더하라. 이거 넣는다고 고추 안 떨어진다. 걱정 마라.

3



필 어떻게? 흔들지 말고 저어라

007계간 미만하지만 마티니를 흔들 어 섞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다. 세이킹이 없음을 깨부수면서 공격적 술과 팔방술을 술에 과격하게 섞는 과정이라는 건, 고급 화학을 안 배운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짓는 방식은 물을 더하지 않고 카테일을 부드럽게 섞는 거다. 뉴욕의 바텐더 제이슨 리트델은 "마티니는 무조건 저어 만들어라.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걸 추천이 아니라 명령이다"고 말했다. 카테일째 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면 이미 망한 거라여 통탄해하던 그가 말한 카테일의 풀: 순수하게 알코올만 섞는 카테일은 무조건 저어라!



CRAZY INJURY

부상은 언제 어디서 골러올지 모르는 카드 빛처럼 찾아온다. 모든 운동선수가 닥치는 대로 때려부수는 차이네이터가 아니기도 하고 말이다.

by 박한빛(스포츠) ILLUSTRATIONS 현영준

황당 부상
TOP 10



알렌 닐슨

운동 선수의 자제력은 운동신경 자체가 남다르다. 前 토트넘 선수 알렌 닐슨은 트레이닝 소집 전날 눈에 넣으면 살짝 아플 것 같은 귀여운 딸아이와 썰보리 게임을 했다. 어린 딸은 간만에 보는 아비가 거북했는지 닐슨의 눈에 카운터 블로를 꽂았고, 아이의 매서운 주먹은 알렌에게 일시적인 시력손상을 안겨줬다. 닐슨은 이로 인해 몇 주간 벤치를 지키며 공예로 생활했다.

리오 피다넬드

김갑수의 트위터 친구인 리오 피다넬드는 초코파이 마니아로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경기가 없는 일요일 오후, 집에서 情을 까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던 그는 4시가 되자 (인기가요)를 보기 위해 채널을 돌려야 했다. 축구선수답게 리오넬을 향해 발을 뻗었고, 엄지 발가락으로 채널 버튼을 향해 무죄전 프리킥을 시도했다. 발가락에 너무 과도하게 힘을 준 탓에 핸드스트링 근육이 파열됐고, 결국 한 달 동안 맨유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다.



고종수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비운의 축구천재 고종수. 그의 공중제비 세레모니는 그 실력 만큼이나 화려했다. 그 간의 부상과 방황을 딛고 대전 시티즌으로 K리그에 복귀한 2008년 FC 서울전. 시원하게 한 골 몰아친 고종수는 기쁨을 만끽하며 점프를 뛰었고, 세레모니를 보여줄 틈도 없이 착익과 동시에 잔디에 몸을 묻었다. 고종수는 그것에 실려나가며 "세리머니로 뭘 할까 생각하다 점프하는 순간 쭈가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알렉스 스테프니

어딜 가나 주둥이로 공을 차며 병장축구를 하는 놈들이 있다. 70년대 맨유의 골대를 지키며 539경기중 175점점 기록을 세운故알렉스 스테프니도 주둥이만큼은 병장 급이었다. 그날 따라 꼬여버린 경기에 무척 예민해진 상태였다. 스테프니는 동료 선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묵직한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다. 너무 격렬한 욕지거리에 아래턱이 빠져버린 것이다. 벤치감독의 도움으로 턱을 끼워 넣은 스테프니는 그 뒤 조금 내성적인 모습으로 골대를 지켰다.

내가 천재!



하~

스베인 그룬달렌

70년대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한 스베인 그룬달렌은 새벽 일찍 일어나 조깅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던 것일까? 멀리서 그를 향해 뛰어오는 사슴을 보지 못했다. 사슴은 그대로 스베인을 들이받았고, 사슴 뿔은 그의 턱골을 아작 냈다. 인근 주민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실려간 스베인은 그 해의 노르웨이 경기를 병실에서 라디오로 청취할 수밖에 없었다.





브루스 프렌치

영국 크리켓 선수 브루스 프렌치의 몸개그는 미친개조 정형돈을 능가한다. 파키스탄 원정 경기를 나선 브루스 프렌치는 관중석에서 날아 온 공에 옆동수를 가격당했다. 머리에 머리가 하나 더 생긴 그는 구급차에 몸을 실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브루스 프렌치를 싣고 가던 구급차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그 후 선수생활의 내리막길을 밟아간 브루스 프렌치. 이제는 느긋하게 등산이나 즐기며 노년을 보내고 있단다.



박용택

LG를 이겼고 이제는 캄뎀 박용택이 주전자를 나르던 2002년 9월이었다. 세수를 하던 박용택은 어떤 열정이 솟았는지 세면대를 잡고 분노의 팔굽혀펴기를 시도했다. 세면대는 키 185cm의 건강한 체구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고 박용택은 엄지손가락 근처를 찢기는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한 달 가까이 결장했고 '천돌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클린 스미트

영국의 럭비 선수 클린 스미트. 1982년 5개국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짜릿한 어느 날이었다. 흥분한 동료가 장난으로 애프터셰이빙을 건네주었고, 짜지는 기분을 주체할 수 없던 클린은 이를 시원하게 원샷했다. 잠시 후 그는 풀어오르는 오바이트가름을 느끼며 병원으로 후송됐고, 위 세척을 받았다. 동료 스티브 스미스는 인터뷰에서 "상대는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지만, 그가 술할 때마다 좋은 장기가 난다."고 말했다.



존 스몰츠

아구팬이라면 맥데스 글래인과 함께 애플랜타를 내세워달라! 최강급 팀으로 만든 존 스몰츠를 잊지 못한다. 팔꿈치 부상을 이겨내고 완벽하게 복귀에 성공한 애플랜타의 수훈선수로 불리지만, 장작 자신의 몸은 지키지 못한 날이었다. 다량질 세빙이 너무 귀찮았던 존 스몰츠는 서초 일부만만 다리졌다라는 명칭한 생각에 와이셔츠를 입은 채 다림질을 시도했다. 화끈한 다리미는 그의 뱃가죽까지 노릇노릇하게 구워버렸다. 유년몸을 입기 어려웠던 스몰츠는 당분간 결장할 수 밖에 없었다.



애덤 이튼

2001년 당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의 투수 애덤 이튼은 DVD 수집광이었다. 어느 날 평소 갖고 싶었던 한정판 DVD가 그의 집으로 배달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과도를 깨내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다. 얼마나 화끈한 녀석이었기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칼질을 했을까. 손에서 미끌어진 과도는 박스대신 그의 손바닥을 그었다. 미국에선 사시미 칼로 과일들을 깎아먹는지 손바닥 상처는 꽤나 컸었고 애덤 이튼은 몇 주 간 뱃치를 지킬 수 밖에 없었다.



MAXIMI 뽑은 최고의 유리물

세계적인 유리물 하드리브스가 연유와의 재계약에 실패했다. 워낙 짙은 부상 탓에 팬들도 이제는 체념한 분위기다. 연유 09-08시즌. 그는 겨우 2경기에 출전했고 심지어 09-10시즌에는 아예 출전 기록이 없다. 그렇게 참대에 누워 재발한 밤에 일주일에 1억 5천원 고 박고파 받았으니, 창간의 소문에는 '실존이물이 아니라 CG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권 이상 무료 배송 배송비 합계 기준 인터넷 최저가

MAXIM을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 으로 오라!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가 장정 MAXIM의 마니아라면 www.maximkorea.net 으로 양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 수시로 티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레
- MAXIM 고화질 화보와 웰메이드 다운로드 서비스
-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무료 공개
- 잡지에는 없는 미공개 화보 컷과 기사 감상
- 연예인보다 세시한 여성 독자 모델들의 사진 감상과 MISS MAXIM 투표 참여

MAXIM SEPTEMBER 2011

정기 구독 신청 안내

6 개월 정기구독

정가 ~~32,400원~~

할인가 29,400원

3만원 할인
+ 1000원 적립

12 개월 정기구독

정가 ~~64,800원~~

할인가 57,800원

7만원 할인
+ 2000원 적립

24 개월 정기구독

정가 ~~129,600원~~

할인가 114,600원

15만원 할인
+ 4000원 적립

36 개월 정기구독

정가 ~~194,400원~~

할인가 164,400원

3만원 할인
+ 6000원 적립

48 개월 정기구독

정가 ~~259,200원~~

할인가 209,200원

5만원 할인
+ 8000원 적립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사은품 확인
하러가기



가스비 Perfect Scrub



시세이도 우노 포그바



로티옹 드 보مج지도 (가태태냉제)



뮤지컬 (미라클)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연극(너와 함께라면)



TASK Self Tanning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버튼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통장 입금(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9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9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딱'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원=1원)

S+UFF

NO SPRINGS ATTACHED

동네 놀이터에서 1분에 100원주고 타고 놀던 '봄똥'과는 차원이 다르다. 요즘 신상 트램폴린에는 용수철 따윈 없는걸!

PHOTOGRAPHS BY TOM CORBETT
ILLUSTRATIONS BY CHRIS PHILPOT

어릴 적 봄똥(동네에 따라 방망, 콩) 위에서 점프를 할 때마다 나던 용수철 뛰는 소리 기억하나? 별리큰 트램폴린은 용수철 대신 아주 평평한 번지 밴드가 매트를 잡아줘 뛰 때마다 부드럽고 묵신한 반동을 느낄 수 있다. 관성에도 무리가 적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 번지 밴드가 장착된 트램폴린의 또 다른 장점은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것. "피요옹" 하는 용수철 소리가 동네방네 들릴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트램폴린에서 방향 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운동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헬스장 근처는 얼씬도 하기 싫은 귀차니스트에게 이만한 운동기구도 없다.

가격 \$630

문의 bellicon-usa.com



MAN SKILLS

진짜 높이 뛰는 법

봄똥 위에서 주구장창 발만 구른다고 높이 뛸 수 있는 게 아니다. 침대에서도 트램폴린 위에서도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때 트램폴린 세계 챔피언이었던 조지 해리 형남한테 물어 봤다. "형, 천장 따윈 기겁게 뛸는 점프 기술 중..."



STEP 1

점프와 동시에 팔을 위로 들면 아무리 하체부실한 당신이라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 팔을 위로 꼭 뻗



기만 하면 일평형. 그림처럼 아래에서 위로 몸을 그리며 새 똥을 움직이는 게 포인트다. 동시에 다리를 꼭 뻗고 발가락을 곳곳이 세워 트램폴린의 중간 지점을 꼭 차면서 날아올라 겠.



STEP 2

점프했다 아래로 내려오는 도중에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트램폴린이 발이



닿기 약 15cm 전쯤 곳곳이 세운 발끝을 평평하게 펴고 다리를 뻗어라. 팔은 기저귀를 썬듯이 등 뒤쪽으로 원을 그리며 내린다. 헛차차차~



STEP 3

트램폴린에 완전히 안착할 때는 팔을 위로 바깥치켜든 파도타기 자세를 취하면 된다. 하늘을 향해 꼭 뻗은 팔은 점프할 때 뛸었던 가슴도를 고스란히 당신의 몸에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점프하다 보면 천장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건 시간 문제겠지?



TENNIS PRINCE WANNABE GEAR

이 녀석들과 함께라면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일취월장할 거다. 원래 아웃도어 스포츠란 게 장비빨이면 50%는 먹고 들어가는 법 아니겠나? 그렇다고 실사판(테니스의 왕자)을 찍을 만한 고수에게 개기란 소린 아니다. 볼꽃 서브에 딱실신 당하기 딱 좋은 테니 말이다.

BY 김성현 ILLUSTRATION 천영준



WILSON SIX ONE TEAM BLX

명품 라켓을 지른다

고 당장 내일부터(테니스의 왕자)처럼 변신할 것 같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장비로 바지런하게 연습하는 게 실력 향상엔 제일이다. 당신이 테니스에 막 걸음마를 댄 베이비 수준이라면 필슨의 식스 원 팀 라켓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비싸지 않다는 이유로 품질을 의심하는 이를 위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세계 테니스 랭킹 1위를 쫓아왔던 페더러도 이 라켓을 사용했다지?

가격 17만 원대

문의 shop.tennis.co.kr

02-561-7020



TENNIS TRIVIA

이 정도만 알기도 미리아 사란포바와 말을 섞는 게 어렵지 않을 거다. 레알이다.

1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시기?

1896년 중간에 빠진 적도 있다.

1988년에 올림픽 종목으로 복귀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TECNIFIBRE

TOUR STANDBAG

집에서 골라다니는 가방에 대충 테니스 라켓을 넣어 다닐 생각인가? 내부 공간이 제대로 나눠진 가방이 아니라면 물건이 비빔밥마냥 엉망진창으로 뒤섞이는 지옥을 경험할과 동시에 라켓도 엉망진창으로 너덜너덜해질 거다. 테니스를 진지하게 배울 거라면 테크니화이버의 스탠드백을 질러라. 라켓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은 기본. 운동화나 다른 물건이 섞이지 않게 별도의 수납 포켓이 있다. 무엇보다 당신 라켓이 뽀송뽀송한 속살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

가격 13만 원대 문의 www.tecnifibre.com 02-3462-5889



2

그랜드슬램 대회의 종류?

랭킹 포인트, 전통, 상금, 인기 등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4개의 주요 대회 US 오픈,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그리고 Wimbledon 오픈을 말한다. 이들 대회의 단식, 또는 복식 경기에서 모두 우승하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말한다.

전 Wimbledon 챔피언 비비 리스(男)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여자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 '빌리'란 별명답게 그녀는 메이저 대회 통산 33회 우승을 차지한 레일 전설이다.

3

역대 최장시간 테니스 경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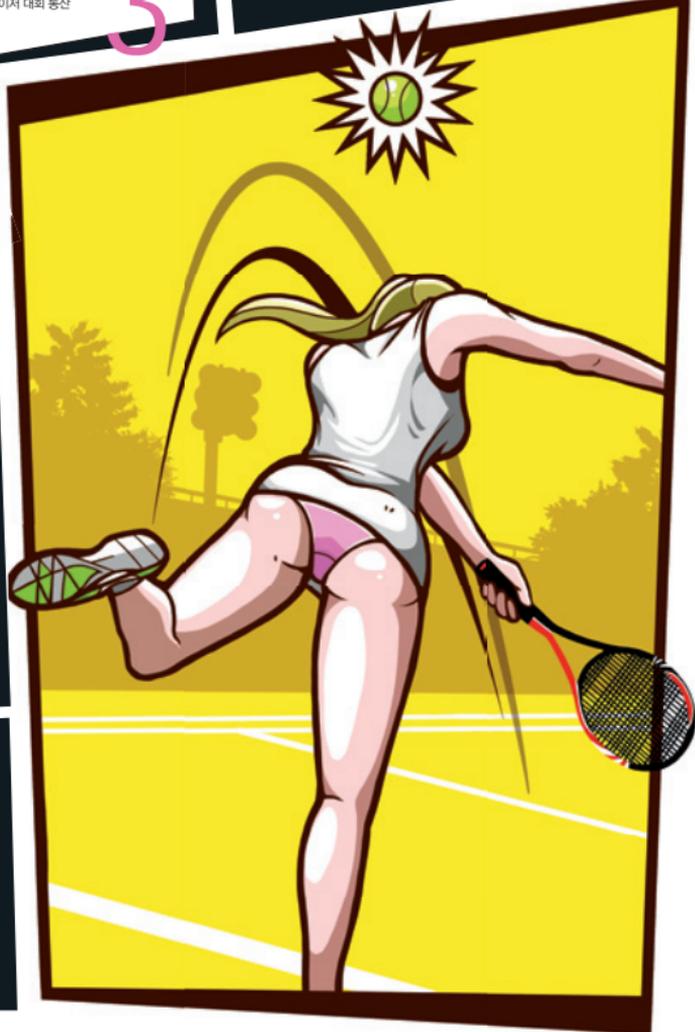
미국의 존 이스너는 Wimbledon 오픈에서 프랑스의 니콜라 Pietrangeli를 제압했다. 단식 1회전 경기에서 만난 둘은 해가 질 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 3일 동안 연장을 거듭했고, 2010년 6월 24일 이스너가 138번째 게임에서 마침내 승부를 결정지었다. 경기 시간은 자그마치 11시간 5분. 기존 최장시간 경기 기록을 경신하였다. 마지막 5세트 경기는 8시간 11분이 소요됐는데 세트스코어는 무려 70-68이었다.

4



NIKE
AIR MAX
COURTBALLISTEC 3.3

실사판 테니스의 왕자 라파엘 나달의 공식 테니스화다. 코트 위에서 미친 할동향을 보여주는 나달이 쓰는 제품답게 충격 흡수 기능 및 내구성이拔군이다. 이 놀과 함께라면 플세트 경기 후에도 당신 발은 무사할 거다. 나이키가 자랑하는 쿠션 재질 루니론이 발바닥의 앞부분을, 트실한 맥스 에어 유닛이 발꿈치를 커버해 주니 말이다. 땀막질이 필수 옵션인 테니스에서 당신 발이 (혹성탈출)의 완성이 시지처럼 뻘신하길 원치 않는다면 꼭 필요한 파트너. 가격 20만 원대
문의 www.nike.co.kr 080-022-0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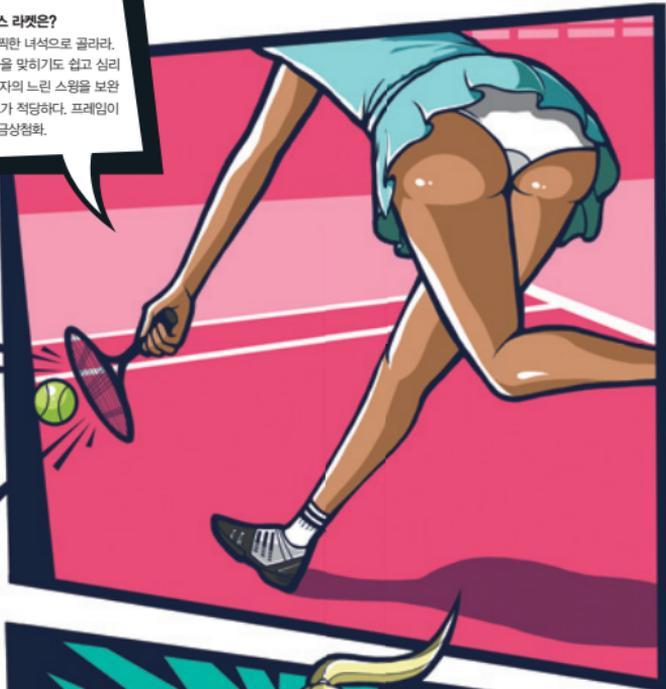
5

에이즈로 사랑한 테니스의 전설은?

1993년 2월 6일 사망한 아서 애쉬. 그는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한 최초의 흑인이자 US 오픈, Wimbledon 오픈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흑인선수였다.

초심자에게 적합한 테니스 라켓은?

고민하지 말고 헤드가 널찍한 녀석으로 골라라. 일단 맞는 면이 넓어 볼을 맞히기도 쉽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준다. 초보자의 느린 스윙을 보완하려면 무게는 340g 정도가 적당하다. 프레임이 두껍고 그림감이 좋으면 금상첨화.



6

에이즈로 사랑한 테니스의 전설은?

1993년 2월 6일 사랑한 아서 애쉬. 그는 그린 드슬럼 타이틀을 획득한 최초의 흑인이자 US 오픈, 윌콕던 오픈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흑인 선수였다.

ADIDAS CC GENIUSII

한 번 신으면 발이 땅에 착 달라붙는 느낌을 잊을 수 없어 사랑하게 되는 아디다스의 CC 제너스2다. 이 녀석은 당산이 코트에서 수피 히어로 플레시만큼은 아니지만 움직이는 속도를 한결 빠르게 만들어 준다. 여기에 아디다스의 스피드컷 기술이 적용돼 급작스런 방향전환으로 인한 부담도 줄여주니 일석이조. 신발의 전 방향에서 고무 열을 방출하여 격렬한 테니스 경기를 여러 번 치르더라도 발이 신발 안에서 육포가 되는 일은 없을 거다. 가격 9만 원대 문의 www.adidas.com/kr 080-022-7981



7

시드를 배정받지 못한 선수 중 최초로 윌콕던 대회를 우승한 선수는?

보리스 베커. 그는 1985년 당시 17살의 나이로 윌콕던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최연소 우승 기록이자, 시드 배정을 받지 않고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독일인 선수였다. 그는 1999년 은퇴하기 전까지 총6회의 그랜드 슬램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ADIDAS
COMPETITION
TRADITIONAL POLO

테니스는 실 틈 없이 움직이는 스포츠다. 싸구려 티셔츠를 입고 코트에 나서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육수를 흡수한 티셔츠가 몸에 찰떡 마냥 달라붙어 불쾌지수를 무한대로 상승시킬 거다. 반면 아디다스의 컴피티션 트래디셔널 폴로 셔츠는 통기성이 좋아 땀에 먹히는 재앙을 줄이고, 열마 없는 당신의 근육을 지지해줘 한결 게임에 집중하기 좋게 만든다.

가격 8만 원대
문의 www.adidas.com/kr
080-022-7381

**BOLLE
COMPETIVISION TENNIS**

테니스는 빠른 리액션이 중요하다. 역동적이 걸린 순간 공은 이미 당신 곁을 지나가고 없을 거다.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빨리 확인하는 게 승부의 관건이다. 만약 당신이 승리를 위한 장비 버프를 받고 싶다면 볼레의 컴피티비전 고글을 질러라. 이 녀석은 노란색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노란 테니스공의 움직임이 보다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그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지? 나이의 노랗말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면 곤란하다. 가격 18만 원대 문의 www.bolle.com



8

**테니스 코트의
왼쪽을 뒤라고 부를까?**

왼쪽 코트는 애드 코트,
오른쪽 코트는 듀스 코트라고 부른다.



테니스를 배우기로 결심했는데 도통 코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나?

그렇다면 한국어마주어테니스연맹 홈페이지 (www.kato.or.kr/club)를 방문하라. 당신 집 근처의 코트 위치를 손쉽게 확인 가능할 테니!

해마에의 JAZZ CONCERT

진짜 오토매틱 시계를 차고 싶다면 첫 경험 상대는 이 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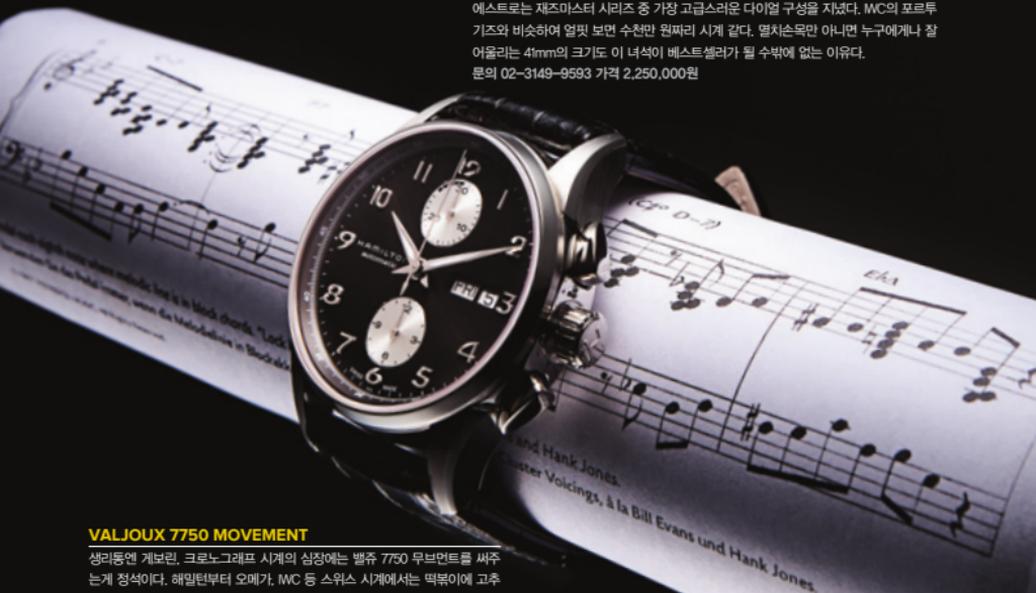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S BY ARC STUDIO



JAZZMASTER MAESTRO 41mm

MOVEMENT: NEW AUTOMATIC H21 VALJOUX 7750 MOVEMENT

해밀턴 재즈마스터는 오토매틱 입문의 교과서라고 불린다.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나 첫 오토매틱으로 구입한 재즈마스터가 평생 손목을 책임지는 경우도 많다. 입문용으로 처음 시작했던 오른손이 평생 당신 존슨과 함께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중에서도 마에스트로는 재즈마스터 시리즈 중 가장 고급스러운 다이얼 구성을 자랑했다. MC의 포르투기즈와 비슷하여 얼핏 보면 수천만 원짜리 시계 같다. 열치수목만 아니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41mm의 크기도 이 녀석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의 02-3149-9593 가격 2,250,000원



VALJOUX 7750 MOVEMENT

생리동행 계보된,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심장에는 밸류 7750 무브먼트를 싸주는 게 정석이다. 해밀턴부터 오메가, MC 등 스위스 시계에서는 딱뚱이에 고추장 만큼이나 널리 쓰이는 녀석이다. 투명 백판을 통해 안을 살펴보면 1초에 6회 진동하는 무브먼트가 현아의 끝만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계를 흔들어도 오토매틱 테일이 감길 때 밸류 7750 특유의 동봉대는 소리와 그 진동이 손목까지 전해져서 시계 안에서 '버블팝' 리듬이 무대가 한창인 줄 알았다. 손목 위에서 탁터거리는 밸류 맛을 본 사람이라면, 수은전자 시계는 전부 돌핀으로 보일 거다.

HAMILTON

1892년 미국에서 태어난 시계 브랜드 해밀턴은 1947년 스위스 그룹에 인수되기까지 큰 소독없이 몇 십 년간 근근히 목구멍에 기름칠하며 명맥만 유지해왔다. 1961년 영화 《프로그래머》에서 해군 특전대들이 해밀턴 시계를 차고 나오면서 할리우드 시계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 후 해밀턴의 카키모델라인이 베트남 전 당시 미군에게 납품되어 찬영을 건디는 내구성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명품 시계 대열에 합류했다.



● 100m 방수

가난한 자의 (MC 포르투기즈라고도 불리는 재즈마스터 마에스트로)만 방수 면에서는 이놈이 활동하다. 포르투기즈는 30m 방수인 반면에 마에스트로는 그보다 70m는 더 깊이를 자랑할 수 있다.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 정확한 사망시간을 알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유용한 기능인가.

CHARACTER KILL THE CHARACTER TOY

휴대용 캐릭터 스피커

귀염귀염 열매를 먹은 내가 지엽적이?

50만 원을 훌쩍 뛰어넘지만 병변거리는 저음을 들려주는 닥터 드레 헤드폰을 사 람들은 '비싼 머리띠'라 했다. 그러나 밖에서 쓰는 제품은 디자인이 생경이라며 목에 핏대를 올리는 당신이라면 이 제품이 안성맞춤! 휴대용 스피커인 주제에 뽀넛과 맞짱 뜯 만큼 귀엽고, 충전이 가능하여 배터리를 교체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훌륭한 녀석이다. 추석 귀경길에 MP3와 노트북에게 짝 지어줄 캄캄한 파트너로 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주의해라. 주위의 여자 생물에게 이 제품을 보여주는 순간,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될 테니 말이다.



지르면 편한 제품들

'지르면 편하다'는 지르는 예나 지금이나 유효하다.

BELKIN FLIPBLADE

10인치의 아이패드를 장시간 들고 있다면 손목이 남아나질 않을 테니 거저치는 필수다. 저렴한 독서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이패드2의 배대를 반강시킴 뿐 아니라 들고 다니기 무겁다. 벨킨의 플립블레이드는 가볍고, 접이식이라 휴대하기도 편하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고정감도 만족스럽다. 웃든 주고 지를 가치가 충분하단 얘기다.

PHONE&PHONE HANDS FREE

아이폰 유선처럼 충전기를 꽂아둔 상태에서 전화 걸을 때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지 잘 알 것이다. 이 녀석이 있으면 더 이상 콘센트 옆에서 쫓고고 앉아 통화할 일은 없다. 충전은 물론 핸드즈 프리 기능으로 유선전화처럼 편하게 통화 가능하니 일석이조다. 장시간의 통화가 일상인 커플이라면 침대 옆에 이놈을 준비시켜 두도록!

D-LINK DUB H7

못 생긴 녀석이란 건 인정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USB 허브가 필요하다면 이놈을 따라갈 녀석이 없다. 그만큼 안정적인다. USB 전원이 과도하게 필요한 외장하드 같은 녀석을 여러 개 사용할 거라면 별도의 전원이 공급되는 녀석을 선택하자. 선이 다소 번거롭지만 컴퓨터를 꺼도 USB로 전자기기를 편하게 충전 가능하니 참아줄만 하다.

USB 3.0이 처음 나올 때 기존 USB 2.0보다 최대 10배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떠들어댄 놈 나와 아직 갈 길이 멀다. 제조사에 따라 제품의 읽기속도 31~129.0MB/s, 쓰기속도 13~149.7MB/s까지 차이가 난다. SSD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USB 3.0의 스펙상 최고 속도로는 내는 제품을 만나기만 요원하단 말이다.

소중한 구입일수록 귀한 것을 찾는 것이 진짜 남자. 나의 PC 및 노트북 짜증에게 저렴한 스피커 따위를 물려줄 수 있다면 보스의 콧대엔 20 일터미디어 스피커 시스템을 찍어주어도 2개년 스피커 주제에 \$249.95(약 27만 원)의 몸값을 자랑한다. 가격 대비 성능은 논하지 마라. '비싼 스피커란 사실 해라-로 충분하다.'



SKULL / JASON / ALER / BLACK MUSIC 가격 150,000원
문의 imacille.co.kr 031-963-2058

SEXIER THAN BMW

EARPHONE CX980i

BMW의 디자인에 폭넓힌 당신이라면 이 녀석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다. 섹시한 그브의 라인만큼이나 잘 빠진 CX980i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STUFF

→ 섹시한 그브와 자동차의 공통점은 남자를 달아오르게 하는 매끈한 라인에 있다. CX980은 BMW의 디자인을 담당한 디자인웍스 USA의 손을 탄 녀석답게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인다. 디자인이 전부인 뱅앤올룹슨의 A8과 달리 섹시한 여자의 갖속 말만큼이나 당신을 달아오르게 할 소리를 들려주려 가격에 트집 잡지 말자. 스마트폰의 종수 속에 등장한 녀석이라 마이크로도 지원한다. 제품명에 표기된 'i'는 애플 제품에는 완벽히 호환됨을 인증 받았던 의미나 아이폰(아이팟) 유저라면 호환성 걱정은 접어둬라. 몸집, 가죽케이스, 줄감개를 비롯해 액세서리 구성 역시 실한 편

GOOD

탁월한 중·고음과 이어폰답지 않은 공간감을 전달하니 특처럼 지르는 음악과는 차별극한 일...처럼 플리그를 기어(?)자형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어폰 단자의 위치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다.

BAD

비슷한 가격대의 이어폰보다 떨어지는 보컬의 해상력은 아쉽다.

FOR

만족스런 소리를 들려주는 리시버가 필요하지만 오다 현상 때문에 헤드폰을 사용하기가 꺼려진 사람이라면 CX980i가 좋은 선택이 될 거다.

가격 40만 원대
문의 www.sennheiserusa.co.kr
02-533-3496

대안이 필요하다면?

10만 원대

PHONAK PFE 112

보청기를 만드는 회사의 제품답게 착용감 하나는 끝내준다. 저음과 고음이 다소 거친 게 흠이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소리를 들려주는 커널형 이어폰도 드물다. 이어폰과 귓구멍이 첫 도킹할 때의 느낌이 시뮬 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만 원대

SONY MDR-P06

헤드폰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P0 시리즈지만 P06는 예외다. 속 시원하게 감쌀만 베이스와 소니만의 색갈로 투영된 음색은 P06를 지를 이유 로 충분하다. 착용감도 만족스런 편이며, 컬러풀한 디자인은 패션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다.

힙한 촬영장
잇보기



MOTOR

MAXIMO! 남녀관계(?)를 활활 불태우게 해 준 자동차 7대의 '숨막히는 뒤태' 콜렉션을 준비했다. 자기가, 오늘은 트렁크에서 만나자.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S 한가은, 조유림, 김희성, 기타 남자 몇몇

적재 용량 235L



시세 2구 적재 가능

시세 1구는 골프백 1개 정도 크기다. 보통 적재 공간의 크기를 가능할 때 골프백을 척도로 삼지만, 우린 골프백보단 좀 더 친숙한 소재를 채택했다.

카섹스 지수



2인승 쿠페라서 시트를 뒤로 젖힐 수도, 뒷 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그래도 일단 사냥을 하기에는 빨간 스포츠카만한 게 없으니 별점 두 개 주겠다. 카섹스고 나뭇잎고 여자를 닮아야 할 거 아니?

NISSAN
370Z



MINI COUNTRYMAN

적재 용량 350L - 1,170L



시세 3~6구 적재 가능

MINI의 SUV 버전이라는 사실에 가슴 뛰었다가 SUV라기엔 적재량이 너무 조출하던 사실에 실망이 밀려온다. 준중형 중에서도 작은 밴인 골프보다도 전체 길이가 10cm쯤 더 짧다. 뒷 좌석을 접은 상태에서 잘 포개 봐야 컬스데이 다섯 멤버와 함께 당산이 겨우 들어갈 정도 밖에 안 된다.

카섹스 지수



여자는 귀여운 걸 좋아한다(귀염을 떨라는 건 아니다). 미나의 앙증맞은 실내 인테리어가 그녀의 마음을 70%쯤 열어준다. 자비의 응축한 연상도 미니 뒤에 좀 희석될 거다. 다만 컨트리맨의 내부 전체를 앞뒤로 가로지르는 레일(Rail)형 수납기구 때문에 뒷 자리 카섹스의 버라이어티는 포기해야 한다. 뒷 좌석도 앞 좌석처럼 레일을 사이에 두고 위치 두 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키미섹 미니 컨트리맨은 영화배우 손예진의 자기용으로도 유명하다. ()

(O) 카섹스 *

적재 용량 정보 없음

시세 3구~8구 적재 가능



쌍용 자동차의 아심적, 코란도C다. 철저히 도심형으로 변질(?)된 SUV지만 적재 공간만은 예전 뉴코란도 밴을 압도한다. 뒷 좌석을 접으면 그야말로 광활한 화물 공간이 나온다. 골프 가방이든 소녀시대든 8개는 너끈히 쌓을 수 있다(한 명 빼고, 누군진 알지?). 아쉬운 건 2열 시트를 접기 전의 공간이다. 2열 시트를 접으면 아무리 공간이 넉넉하더라도 여차피 사람은 2명 밖에 못 탄다. 중요한 건 4명이 뒀을 때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아심게도 코란도C에 4명이 타면 골프백 3개가 한계다.

카섹스 게이지



하지만 코란도C는 최적의 카섹스 환경을 제공한다!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마감, 언제든 시트의 적정 각도를 메모리에 들 수 있는 전자동 시트 콘트롤, 그리고 여차하면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펼쳐지는 '광장'으로 이동해서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세우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 2열 시트가 접히는 자동차 중에도 코란도C처럼 트렁크 바닥과 완전히 평면으로 이어지도록 접히는 자동차는 찾아보기 힘들다. '광장' 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거다.

SSANGYONG
KORANDO C.



KORANDO의 뜻은 Korean Can Do(한국인은 할 수 있다)의 줄임말이다. ()

2009년 12월 10일



연비 최강 결정전

SPARK vs MORNING

MAXIM 최강 경차를 가리기 위해 스파크와 모닝을 동시에 구입한 지도 벌써 반 년이 다 되어간다. 지금까지의 테스트 결과는 오토상박, 난형난제, 뽀빠뽀빠. 이제 경차 대결의 하이라이트 연비 대결의 막이 올랐다!

BY 유승민, 김성현



변인통제

공정한 연비 대결을 위해 우선 두 녀석의 누적 주행 거리를 맞추었다. 모닝은 기특하게도 기본트내장된 트립 컴퓨터에 의해 연비 측정이 가능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스파크는 외장형 연비 측정기구를 장착해야만 했다. 차에는 운전자 외엔 아무도 타지 않았으며, 짐도 실지 않았다. 스파크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었고, 모닝에는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대결을 위하여 모닝의 트렁크에 실려있던 휠타이어도 빼고 대결했다. 연비 측정 대결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한 길,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시내 도심 세 가지 코스로 나누어 펼쳐졌다.

배기량	996cc	996cc
최대 출력	70마력	82마력
최대 토크	9.4kg·m	9.6kg·m
공차 중량	910kg	966kg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한 길

배들 코스는 바로 북악스카이웨이.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심한 이 곳을 주행거리가 30km가 될 때까지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경주를 벌인 건 아니고, 두 차 모두 최대한 연비주행을 하면서 함께 속도를 맞추어 달렸다.

기아 모닝 11.1km/L
쉐보레 스파크 10.2km/L

역시 경사 굴곡이 심한 곳에선 70마력과 82마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났다. 속도를 맞추려고 해도 오르막에서 스파크가 자꾸 뒤로 처졌다. 힘이 딸리니 액셀 레레이터를 더 깊이 밟고, 연료를 더 많이 태워야 했던 스파크의 완패였다.



ROUND 2

고속도로

배틀 코스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목적지인 가평 휴게소를 향해 강일 IC를 통과하자마자 연비 측정기를 리셋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목적지까지는 약 40km. 워니 워니 해도 고속도로 주행에서 최고의 연비 기록을 뽑을 수 있기에 이번 판은 그 어느 리운드보다도 불꽃 튀겼다. 실형하는 분위기에서 주행했던 1, 3차 운드와는 서로 분위기가 달랐다. 고속도로에서 곳곳히 70~80km/h를 유지하자 뒤의 차들이 뺄뎡대고 추월하고 난리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ROUND 3

시내 주행

1차 상황에서 마지막 배틀 코스는 잠실 롯데월드에서 출대 입구에 위치한 MAXIM KOREA 빌딩까지 강변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시청 앞을 돌고 지나가는 시내 코스를 택했다. 정체와 신호 정지가 많아 공회전이 많은 시내 주행 상황에서의 배틀이었다.



👉 **기아 모닝 18.8km/L**
쉐보레 스파크 19.2km/L

정속 주행시 스파크가 더 좋은 연비를 낸다는 걸 직접 확인했다. 각차는 좋았지만 MBC(경제대전)에서의 결과가 뒤집어 지진 않았다. 모닝을 운전한 에디터가 돌아오는 길에는 스파크를 몰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뺏을 때의 관성 주행이 모닝보다 부드럽게 더 멀리 나간다는 느낌이었다. 몸으로 느낀 거라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만의 사실이라면 모닝을 몰았을 때 더 자주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이고, 그게 패인이었을 거다. 하지만 보아는게 더 다 공인연비를 훌쩍 앞지르고 말았다!

👉 **기아 모닝 14.5km/L**
쉐보레 스파크 13.2km/L

마지막 리운드 시내 주행은 모닝의 승리로 돌아갔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시내 주행에서 저속 토크가 더 뛰어난 모닝에 비해 스파크는 더 곧뜨게 움직였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모닝에서보다 더 세게 밟아야 했다. 모닝의 힘이 더 좋다고 해도, 모닝의 차 무게가 스파크에 비해 무려 75kg이 나 더 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닝은 스파크보다 나중에 나온 만큼 연료효율면에서도 확연히 더 발전한 형태임에 틀림 없다.

● 종합 성적은 역시 공인 연비에서 앞선 모닝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스파크가 기록을 필요는 없다. 작은 차이긴 하지만 장거리 고속 주행에서는 스파크의 일상적인 시내 주행에서는 모닝의 연료 효율이 더 높다는 게 밝혀졌으므로 용도에 맞게 차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리고 고속 주행이든 시내 주행이든 실험을 통해 밝혀진 1~2km/L의 연비차는 운전 습관에 따른 연비 차에 비하면 새白菜의 피란 얘기다.





多말 多탈, 토요타의 슈퍼트랙스 콘서트

수지 직접 보러 가기



팬타포트의 명당에 자리잡은 토요타 부스

록 페스티벌을 빼놓고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드디어 큰 돈 몸치들이 너도나도 록 페스티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중 음 여름에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건 바로 팬타포트의 1/3을 사버린 토요타다. 이를하여 토요타 '슈퍼트랙스' 콘서트 에~ 뷔뻬? BY 유은



역시 놀 줄 아는 내셔널 GD, TOP, 태연! 대상이 사식은 넘어주고 있나?

토요타답게 환상적인 스타 뮤지션들로 슈퍼트랙스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문제는 거기다 팬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1/3을 잡아먹은 슈퍼트랙스의 라인업이 '록'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들이었으니, 키드 리드콘과 탐, 그리고 태연우의 대상이 김리조와 루시퍼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다면 박영으로 나왔겠다. MAXIM 표지모델에 빛나는 타이거 JK 형님 내외, MSS A 그리고 월드 스타 BOB가 피날레를 맞았다. 이 어마어마한 콘서트를 왜 굳이 '록' 페스티벌 안에서 가꾸려는 지 도무지 모르겠다. 기업 홍보 담당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양대 록 페스티벌 신드롬이 아니었다면 슈퍼트랙스 콘서트는 아예 기획조차 되지 못했겠다.

라인업 또한 티켓이 거의 매진된 시점에 발표되면서 3일권을 구매할 록 팬들의 원성을 샀다. "우리 아이들 콘서트를 보기 위해 3일권을 구매하게 아니냐"는 얘기가. 슈퍼트랙스 콘서트에 록 팬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만, 스타는 역시 장르에 관계 없이 스타인 법. 무대 위에 컨지용이 등장하자 곳곳에서 알음알음 관객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애라 모르겠다" 하며 무대 앞자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비록 록은 아닐지언정 제대로 노는 게 뛰기 보여준 박영 3일, 타이거 부부와는 반대로 미쓰에이는 '축제'에 대한 성의 자체가 부족했다. 반개처럼 나타난 '행사' 뛰고 번개같이 사라지는 모습에 관객들은 적잖이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미

쓰에이 또한 어딘지 모르게 황급히 무대를 छो고 도망치듯 철수하는느낌이었다. 실제로 미쓰에이가 가볍게 행사 뛰고 간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빨리 무대를 접어버린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건 무대와 함께 팔뚝뚝뚝 뛰는 광란의 한 가운데서, 보는 이의 혼을 쏙 빼놓는 수지의 거드랑이에 잠시 관객들은 발을 멈추고 넋을 잃었다는 거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영락없이 '냉담한 관객'의 모습으로 비쳐질 일 했다. 불거리가 넘쳤던 슈퍼트랙스 공연을 담은 영상에서 어느 장면을 독자들에게 선사할까 고민했지만 결론은 역시... 수지 직캠!다. 즐겁기 바란다. 토요타 보러!



입항으로 록 페스티벌의 한가운데를 활활 불태운 B.O.B 내년에 꼭 다시 올 거란다.

제5회 MAXIM 무료 티팅 당첨 독자는?



나에게도 래플 기회가 오겠는가? 예전에 처음으로 MAXIM 정기 구독을 신청했다가 2개월 만에 상표권 등록으로 돈 받은 회사가 없어졌다. 환불 없었다... 아깝지만 MAXIM을 다시 정기 구독하기 시작했다. 벌써 3개월째 되어간다.

말들이 시작될 때부터 티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확인하더니! 연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 생각된다. 예전 월, 시력이 너무 좋아 차 안에서 연인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 난 눈 씻고 봐도 못 봤는데 자기 눈은 보통 사범보다 예나저나 많이 소모해서 피곤하다. 그녀의 눈가에 핏줄이 서서 안타깝다. 장시간 드라이브할 때는 미안할 따름이다. 그녀의 눈 건강을 위해, 그리고 명품 아래에서도 좀 더 가까이질 수 있도록 MAXIM이 적극 지원 바란다.

-G.W(소수 차량 경쟁자 기차기)

P.S. 이런 질문엔 해하지?

제5회 당첨자 공개를 위한 QR 코드 스캔하기



대해 물어 먹어먹는 건가? 나이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키에 어저드도 보유하고 있다. 정말 존경스럽다. 향이려고 할때도 다!? 당신의 예능보이 예능의 눈높이를 위해 MAXIM이 시연하게 솔라트랙스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귀찮길 꼭 확인 고속도로 위에서 예능보이 드가든 신나게 갖길 바란다.

솔라트랙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코팅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 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로, 그만한 존중의 명료. 솔라트랙 열 차단 필름이네

Solar Gard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고속도로에 10시간을 갈 준비 됐어? 꼭 약한 도로 위 차 안에서 열감을 피하고 싶다면, 쿨구멍을 따서 입 안에 편히 넣고 싶다면, 고추를 조롭꼭거리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차엔 최고급 솔라트랙 열차단 티팅(선형)이 필요하다. 차 실 때 온 기븐 티팅에는 보통 가장 중요한 일류의 티팅이 빠져있다. 오늘을 위해 비유된 일류에 솔라트랙을 꺼내자. 태깅이 다르다나??

- ▶ 응모 기간: 201. 8. 22 ~ 201. 9. 18
- ▶ 상품: 22만원 상당의 열차단 티팅(선형) (전원 시중, 즉 후면 제로)
- ▶ 응모 방법:
 1. 본인의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이런 호기나있으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웃음원 사연이 걸리면더더 원전 송고
-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내라.
 - 010-5169-7881(담당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아침에 ~~주스~~ 한 잔? 섹 판

하루를 가장 보람차게 만들어 주는 건 역시 모닝섹스다

» 모닝섹스의 정의는 아침에 하는 섹스이지만 단지 그것뿐이라고만 생각해서 안 된다. 점심섹스, 저녁섹스라는 말은 없고 모닝섹스만이 고 유명사처럼 통용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 저녁에 하는 섹스가 에피타이제(전회)-메인 요리(삼입)-디저트(후회)를 갖춘 코스 요리라고 한다면 모닝섹스는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다. 코스 요리는 언제든 환영이지만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도 땡기는 법이다. 하지만 이 좋은 걸 아꼈 수 없이 포기하는 때가 있다. 여자들이 모닝섹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대체 무엇인지 한 번 들여보자.

LOVE

화장을 안 지워서

아이리인 반지고 개기름이 찰찰 흐르는 내 얼굴을 본다... 522세, 대학생

여자들은 술 약속이 있는 날 평소보다 화장이 진해진다. 때문에 화장을 안 지우고 잠든 다음 날이면 팬드 눈이 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게 된다. 낯선 남자가 옆에 잠들어 있더라도 한다면 "어제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섹스를 했구나" 라는 공포감보다는 "어제 화장을 안 지우고 잤다" 는 공포감이 백만 배는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런 그녀는 자신의 추한 얼굴을 들키기 싫다는 이유로 모닝섹스를 거절한다. 그녀와 마주보는 자세는 피하고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안아라. 그리고 그 상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 요.

생얼이러서

매번 샤워실에서 비비 크림까지 바르고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까? H24세, 휴학생

일어나자마자 곧장 샤워를 하고 나서 모닝섹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곧장 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여자는 화장이 변진 얼굴만큼이나 생얼도 보이기 싫어하거나, 그녀가 당신을 만날 때 종종 생얼로 나왔다고? 그동안 당신이 생얼이라고 믿고 있었던 건 투명 메이크업을 한 얼굴이데남자들은 아이리인인 그리고 색조 화장 안하면 생얼인줄 알더라 하하. 그녀를 먼저 사

유실로 돌려보내라. 먼저 샤워를 마친 그녀는 당신이 샤워를 할 동안 빠른 손놀림으로 비비크림 바른 기산공을 펼칠 거다. 당신은 최대한 여유를 부리면서 그녀의 꽃대장이 끝나가만을 기다리던 된다.

출근 or 등교를 해야 해서

머릿속은 온통, 최소한 여기서 몇 시에 나가야 필지를 계산하고 있다. 이 동네는 지하철 역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F23세, 소림물 MD

회사나 학교에 지각할까봐 그녀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모닝섹스를 느긋하게 즐길 상황이 아니라 하는 거다. 이 상황에서 천천히 애무를 시작하려고 했다간 바로 거절의 메시지가 날아올 거다. '네가 곧 출근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지금 너무 예쁘게 그냥 지나칠 순 없어' 라는 몸짓으로 거칠게 삽입부터 하지도 말려들어. 당신이 짧고 강렬하게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그녀도 마음이 흔들린다. '빨게 한 판 더?' 하고 말이다. 아침엔 저녁과 모든 게 반대다. 아침엔 진희를 과감히 생각하고 짐승처럼 밀려드는 게 매너다!

키스를 할까 봐

눈 뜨자마자 알차도 안 하고 술 냄새 나는 일로 자꾸 키스를 하니 여자가 없었다. 아예 담배까지 피우지 그러니... J25세, 모델

연애 초기이거나 어쨌든 처음 본 사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키스를 한다는 게 색 내키지는 않는다. 모닝섹스를 할 땐 억지로 키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침이 아니었다면 '키스 없는 섹스는 사랑이 식은 거' 라며 당신에게 토라졌지만 모닝섹스에선 귀찮은 중간 단계를 생각하고 바로 합체를 해도 웅성된다. 삽입만 하고 싶으면 이것저것 다 하느라 섹스가 번거롭게 느껴졌던 당신이라면 의도적으로 아침 시간을 노릴 것.

오월 섹스를 하라고 해서

졸려 죽겠는데 오월까지 시킨다. K27세, 리포터

모닝섹스는 간편한 게 제이맛과 했지만 시간이 여유로울 땐 당연히 적절한 애무를 곁들이는 게 좋다. 하지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당신의 아래로 내려가는 건 정말이지 힘들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눈을 반 이상이나 감고 있는 우리에게는 득이나 더 어려운 미션이다. 그녀가 아직 잠에 취해 있다면 오월섹스를 시키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일으켜 깨워주자. 잠이 깨어난 그녀는 당신이 시키지 않아도 아래로 내려갈 거다. 그녀를 몸 움직이게 하지 말고 최대한 크게 움직이도록 배려나인 배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몸을 움직여서 아랫도리를 그녀의 입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그녀는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흔쾌히 오월 섹스를 승낙할 거다.



베가 아파서

▶ 주말 아침엔 여유롭게 그와 침대에서 퐁퐁고 싶
다. 하지만 아랫베가 부글부글 끓어서 하는 수
없이 그를 침대에서 밀쳐낸 적이 많다.
P(26)세 맨스 강사

아랫베가 살상 아픈데 번 때문에 섹스를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급해 죽겠는데 당신이 계속 조르기도 하던 그녀는 정말이지 미칠 지경이 될 거다. 그런데 MT에는 화장실 문이 왜 없는 건지, 설사 칸막이가 있다 하더라도 왜 밖에서도 침허 보이는 유리문 만든 건지... 아떨 땀 잠깐 편의점에 갔다 온 다음 자리를 피해주는 게 당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센스다. 당신이 MT 주변을 몇 바퀴 배회하다 돌아오면 그녀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당신과의 모닝섹스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끄러워서

▶ 부끄럽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밝은 거였구나...
S(20)세 대학생

평소에도 수줍음을 많이 뒀던 그녀라면 환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부끄럽다며 모닝섹스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건 그렇고 당신엔 지금이 기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조명은 그녀의 속살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제껏 절대 볼을 커지 못하게 하는 그녀의 완강함에 암흑 속에 서만 섹스를 하느라 아쉬웠다면 인도적으로 그녀와 함께 아침을 맞을 구실을 더 많이 만드는 거다. 아침엔 볼을 꿀 수도 없잖아? 평소 아드워시 미처 볼 수 없었던 그녀의 몸 구석구석뿐만이 아니라 흥분하는 그녀의 표정까지도 감상할 수 있다. 게다가 땀하게 내리찍는 햇빛은 인공 조명을 켜둘 때보다 원지 더 까발러지는 기분이 든다. 지난밤 적극적이던 그녀가 아침 햇살 아래선 환연이 수줍어 하는 모습을 감상하는 것도 모닝섹스에 깨달음이 흥분을 가져다 준다!

햇살을 들먹일까

▶ 웃으며 잘 가지고 다녔던 속살을 다 볼 텐데...
혹. K(28)세 홍보 대행사

부끄러운 것과는 별개로 감춰왔던 살들을 훤히 내놔야 한다는 격정에 캄캄한 저녁 섹스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허벅지 살리더티 등등한 햇살이 당신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걱정돼서 섹스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다. 그런 그녀에게는 친연이 자랑이다. 단호히 "베베다"는 말을 써달라고 먼저 말한다. 친연을 하려면 최대한 구체적인 할 것, "살까 나 온 햇살이 귀여워 죽겠다", "살까 튀어 나온 엉구리 살이 진짜 섹스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자신감이 생길 그녀는 더 이상 모닝섹스를 마다 않을 거다. ☺



모닝섹스를 해야 하는 이유

▶ 좀 더 그럴싸한 이유로 그녀를 고드고 싶다고? 모닝섹스가 좋은 과학적 인 이유를 알려줄게.

다이어트에 직방

일주일에 세 번씩 클리에서 신나게 놀기만 했을 때는 한 달에 3kg, 일주일에 두 번씩 클리에 가고 모닝 섹스까지 병행했을 때는 한 달 만에 5kg가 빠져 있었
다. 운동 안 하고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비결이 여기에 있지. 후후... L(23)세, 휴학생

공복 상태에서 섹스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복부 피하지방과 간 등에 저장된 과다 지방이 에너지로 활용돼 체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이다. 미국 버클리 의대에서 비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도 했는데 일주일에 세 번, 세 달 정도 계속 섹스를 하게 했더니 살이 무려 7~10kg이나 빠졌다.

피부를 윤기나게

모닝섹스를 하고 나면 화장이 잘 먹는다. 외부 미팅이 있을 땐 반드시 모닝섹스를 한다. K(28)세, 직장인

다이어트만 되는 게 아니다. 아침에 하는 섹스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줘 머리리카와 피부를 더 윤기나게 만들어 준다. 이 사실을 반드시 여자에게 알려라. "거기 언니, 보고 있나요? 모닝섹스는 온몸의 순환을 활발하게 해 붓기도 빠지고, 호르몬분은 늙은 호박 튀기 거러도, 하루 종일 피부가 수분은 머금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못 믿겠으면 내일 아침 한 번 해봐요. 정말이라니깐?"

심장 건강 OK

모닝섹스를 하면 ის은 이상하게 하루 종일 의욕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그 날 저녁에 만나서 또 한다! H(22)세, 휴학생

모닝섹스는 지방을 분해해 주고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켄즈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주일에 3번 모닝섹스를 하게 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고 재미없는 러닝머신을 주구장창 뛸 필요가 없었나? 그나저나 1주일에 3번 모닝섹스를 한 실험하는 누구였을까?

화제의 시간대

아침엔 내가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곳이 유독 서서 편하다. 처음엔 내가 옆에 누워있는 자 체만으로도 흥분해서 그게 서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들은 아침에 원래 더 그렇다고 하더라. 하 지만 상관없다. S(27)세, 교사

수컷들의 경우 짐을 지는 동안 테스토스테론이 축적된다. 계속되는 이른 아침에 심신이 지쳐 있거나 오래 하는 게 힘든 당신이라면 아침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봐라. 지난 밤엔 섹스 실패했다면 아침에 그 때를 만족시켜주면 그녀의 머릿속은 당신을 강한 남자라고 기억될 거다.



스마트폰계의 지각변동은 시작됐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진영에 진정한 적자가 탄생했다. 여태껏 “위 아 더 월드”를 외친 안드로이드 연합군은 느닷없는 구글의 백러택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바야흐로 스마트폰 세상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주도하는 ‘애플 VS. 구글 VS. MS’이라는 새로운 삼국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애플의 아이폰

내가 제일 잘 나가

2007년 출시된 아이폰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전화 기능은 물론, 멀티미디어 감상, 웹서핑까지 가능한 진짜에기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간 자기 입맛대로 소비자에게 빅엿을 먹이며 와이파이가(Wi-Fi)의 채택을 차일피일 미룬 통신사의 입김을 배제한 것도 유효했다. 애플은 콘텐츠를 팔아 돈을 버는 기업이었으니 굳이 통신사에게 목을 맬 필요가 없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는 기본 안 타지는 곳에서만 통신망을 쓰도록! 통신사가 우리 폰 운영체제에 이상한 프로그램 끼는 건 용납 안 할 것임!”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아이튠즈에서 음원을 팔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폰의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성공했다. 애플이 “우리 스토어에서 물건(프로그램)을 팔면 그중 70%는 개발자의 몫이다. 우리는 30%만 먹겠다. 그래도 개발자가 배 이상을 먹는 것이라,

통신사가 여기에 끼어줄 여지는 없으니 합리적인지?”라고 말하자 그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몰려들었다. 그들이 만든 다양한 즐길 거리가 앱스토어를 가득 채웠다. 그렇다보니 아이폰 유저는 자연스럽게 앱스토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곳에 쓰는 돈도 그만큼 많아졌다. 애플이 창조한 생태계는 이런 형태로 온전히 자리를 잡았다. 아이폰이 발매된 지 불과 4년도 채 지나기 전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의 유일한 대항마가 되다
온라인 광고 시장을 접수한 구글이 여러모로 실패
보니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이 먹음직했다. 그런데
아이폰이 점령한 시장을 독과다처럼 치고 들어
가만 참지 않았다. 일단 현 구글 부사장 엔디 루빈
이 만든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OS를
집어 삼켰다. 그리고 애플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에서 벗고 울분을 삼키던 제조사와 애플의 순정주
의 때문에 예전처럼 자기 굴리는 대로 휴대기의 운

영체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통신사에게 손을 내밀
었다. 구글이 “제조사 형님들! 우리가 OS 그냥 공
짜로 내놓게. 업데이트도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형님들은 휴대폰에 이것만 깔아주시오. 통신사 누
님들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수익 발생하면 개발
자에게 70% 주고 남는 30%는 그대로 넘겨드릴 테
니 빠지지 말고, 우리 마켓에서 한번 잘 팔아봅시
다”라고 설득하니 ‘사과’만 봐도 부들부들 떨던 제
조사와 통신사는 구글의 떡밥을 탐욕을 수밖에. 사
실 구글은 스마트폰 시장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깔아둔 후, 모바일 광고 시장을 정복할 생각이었으
니 통신사의 마진을 굳이 배해제서 사자가 들어질
필요는 없었던 거다.

MS

이 생쥐를 봐라. 날 (줄)우로 보나!
그동안 침침 팔뚝을 끼고 있었던 MS였지만 언제까
지고 스마트폰 시장을 간파할 순 없었다. MS가 꺼
내 든 윈도우7폰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중간
조음에 위치한다. 애플처럼 폐쇄된 플랫폼을 지향

하지만, 스택만 규제할 뿐 MS가 단독으로 제품을 찍어내진 않는 구조다. 그리고 중요한 건 스마트폰은 여차저차 적은 PC다. GUI그래픽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비롯해 특허로 도배(레인지어) 미우스의 더블클릭까지 특허로 보유한 MS의 그룹웨어 안드로이드 진영이 패배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MS는 HTC를 비롯해 삼성에게 휴대용 한 대당 \$5~10\$의 특허료를 받으며 윈도우7을 구현할 충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그렇지만 애플과 구글이 그간 뛰어놓은 토대는 제법 단단해서 천하의 MS도 쉬이 점유율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MS는 아이폰 이전에 휴대용 업체를 쫓아냈던 노키아에게 지난 4월 1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고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애플과 구글이 내세우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MS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안드로이드론, 애플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하다

아이폰에 맞설선 당한 휴대용 제조사와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안드로이드를 띄워야만 했다. 그러자 자신들이 먼저처럼 먹고 살 길이 열리니, 구글이 먼저거리던 자신들이 플랫폼의 최적화를 위해 배웠고 나서는 경우도 생겼다. 아이폰처럼 애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업계 1위 통신사가 버스를 끌어오려, 하드웨어 제작 스킬은 세계에서 제일인 삼성, 윈도우 모바일 시절부터 최적화 하나는 끝내주는 HTC가 꾸준히 안드로이드폰을 내놓으니 물량 앞에선 결국 장사가 없었다. 시장조사기관 기트너는 올해 안에 안드로이드가 38.5% 점유율로 1위에 오를 후 내년에 점유율이 49.2%까지 치솟을 거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진영이 흥하자, 벵투기의 대가인 오라클이 나뉘기 시작했다.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사용된 자바, 그것을 개발한 썬미크로시스템을 자신들이 사들였으나 특허료를 내려고 징징거렸다. 구글이 오라클과 순순히 합의했다간 MS에게 1차 벵을 뚫긴 업체가 오라클에게도 2차 벵을 뜯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구글이 죽기 살기로 오라클과 법정공방을 벌인 이유다. 겨우 통신사와 제조사를 달래서 이만큼 플랫폼을 구축했었는데 판이 깨지면 곤란하니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드로이드 진영을 흔들기 위한 소송은 줄을 이었고, 이에 백전 구원은 플랫폼을 방어하기 위해 '신의 한수'를 던졌다. 그것은 바로 모

토라라의 인수다.

구글의 속 시원한 백어택

구글의 모토로라를 인수한 사례는 이거다. "아, 진짜 싸이X를 너무하네. 그냥 우리가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부를 사들여, 실례에 우리도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고, 특허 출원해서 한판 물어봐야겠어!" 이런 안수로 삼성과 HTC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은 소송과 특허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약 1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회사를 특허 방어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고 발표할 걸 믿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구글이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담은 정식 안드로이드(원래 레퍼런스 폰은 모토로라의 차지가 될 것이고, 그간 안드로이드의 토포를 열심히 뽑아준 나머지 회사 제품 라인업을 늘려주는 정도로 그럴지 모른다. 공식석상엔 "안드로이드 진영을 위해 노력하는 구글, 레알 고마워!" 라고 밝힌 회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삼성이 자체 OS인 바다에 전력투구를 하겠다는 드림을 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리미리 자체 OS에 힘을 쏟아주었던 거다. 하지만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생각에 그런 힘이 되어 준 제조사의 사다리장을 걷어차 단간 열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삼성, HTC가 구글이 아닌 MS로 눈을 돌리던 지금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테니 말이다.

진정한 삼국지의 시작, 그리고...

1위 자리를 수성 중인 아이폰은 완벽하게 구축된 오픈토라라는 생태계를 바탕으로 순항을 거듭할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노망이 나서 차세대 아이폰을 개떡같이 만들지 않는 이상 망하기도 힘들다. 저가형 아이폰을 발매한다는 루머가 사실이라면 저가형 안드로이드폰 시장마저 아이폰이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블로깅 취급 당하던 안드로이드폰은 아이폰을 위협할 만큼 명치를 키우는데 성공했다. 애플처럼 자신만의 독점적인 하드웨어를 만들 회사도 확보했다. 남은 건 양방정창으로 방지된 마켓의 정리다. 개발자들이 훗날 만한 환경만 만들어 준다면 그 생애에서 구축한 플랫폼에서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할 일만 남았다.

MS는 윈도우7의 부진을 노키아를 등에 업고 만회할 준비 중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엑스박스 시리즈로 대표되는 게임 기능과 동영상 및 오피스 시리즈의 호환 여부가 될 거다. 윈도우 비스타가 멸망

했다가 윈도우7에서 언제 그랬는 듯 부활한 것처럼 윈도우7은도 그럴 가능성은 존재하고도 남는다.

역시 문제는 구글만 믿고 있다. 벵을 당한 삼성과 LG, HTC(원래 Others 집단). 이들은 자신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바실히 움직여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삼성은 바다라는 자체 OS도 있지 나머지 애플은 애플에게 까이고, 구글에게 털리고, MS에게 버리고... 그건 안습이다. 빅3의 포용 역할을 하기 싫다면 최근 HP가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WEB OS를 노려볼 필요가 있을 거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의 빅3 중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이들의 경쟁 상대로 새롭게 등장할 플랫폼은 무엇인지를 지켜보는 것으로도 흥미진진할 거다. 마지막으로 구글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를 가장한 튀기지만 있을 뿐!"



개발 같은 LG의 병맛 크리
우리가 급이 있지, 시제품, 뭐? 안드로이드? 그만 걸 어떻게 만들어...이랬던 헬지가..

2004년 삼성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팔려다 실패한 엔디. 루빈은 LG에게 안드로이드 시제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시 LG는 초콜릿, 프롬다. 아레나 같은 고급 피쳐폰 개발에 여념이 없었어 "안드로이드 폰 뭐임?"라며 쳐다보지도 않았어. 오려라 윈도우 모바일 OS에 매달렸어. 그런데 MS가 이놈을 단종시키고 안드로이드7로 갈아타는 바람에 LG는 멸망의 길을 걸었다. 이때 LG가 구글의 손을 잡았다던 아이폰을 상대할 걸출한 물건이 나왔을 지도 모른다. 2007년 당시 LG는 프리라드폰이라는, 아이폰과 맞짱 뜰 걸출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만화가 김성모

ICON

뼈와 살을 분리시켜 주는 진짜 남자를 만났다.
있어 줄구나!

BY 유승민 PHOTOGRAPHY BY ARC STUDIO STYLING 곽경희
MAKEUP & HAIR 황주희(에스더 02-548-1787)
ASSISTANTS 김성현, 조유림, 김 정원숙

어 '강악강강강강강중'도 상대의 땀모를 알아낸다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쓴 거다.

원래는 본격 성인 작가는 아니었던 걸로 안다.

코믹스 시장이 무너지던 때에 나도 대본소에 두지 않다가 제대로 망했다. 160ページの 문하생을 먹여살리기 위해 고안하다 생긴 안화 시창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있었나?

난 자신 있었지만 주변에선 모두 알았다. 당시 성인 만화에는 드라마로도 제작된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도시정찰> 등 흥행한 시리즈가 연재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입해서 성공하기를 굉장히 친 입장벽이 두터웠다. 백이면 백 다 망할 거라고 했다.

이름만으로도 대단한 만화들을 읽고 들어가 성인만

화의 새 장을 열었다. 어떤 차별점이 있었던 걸까? 당시 인기있던 성인작품은 너무 스케일이 크고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난 당장 우리 생활 속에서 저쪽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일을 듯한 이야기로 승부했다. 그것도 말초신경을 아주 자극하게 말이다.

자세히 묘사하길 꺼리던 색소와 폭력을 역으로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했다. <용주굴>같은 작품은 솔직한 남자로서 공명해서 안 볼 수가 없었다.

'용주굴'은 나를 성인 극화로 성공하게 한 최대의 모험이자 대박이었다. 성인 극화로 전환한 후에 <용주굴>이 나오면서 만화가로서 수직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일간스포츠 같은 메이저에서 나를 찾고 '대탈' 같은 작품도 나올 수 있게 된 거다.

<용주굴> 이후로도 <용주굴 블루스>, <용주굴 리스트>, <용주굴과 눈물 1리터> 등 용주굴 시리즈가 계속 나왔다. 그런데 사황가 생리에 대해 어떻게 그리 잘 아는 건가? 난 당신이 호주가 아닌가 했다. 용주굴, 남자라면 누구나 지나치지 못할 소재지. 용주굴 이야기를 그려 보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무작정 용주굴로 향했다. 현장을 스케치한답시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 건물들에게 끌려가기도 했다.

맞았나? 족족도 맞았다. 용주굴 시리즈에 자주 등장하는 그 개ئن 다리 밑에 끌려가서 맞았다. 다시 나타나면 죽어버린다고 하더라.

어쨌든 그 개ئن이 자주 나온다 싶었다. 그런데 거기 길도 간 건가?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손님으로 갔다. 문하생 10명에게 돈 쥐어주고 방 안을 썩다 그러서 나오라고 했다.

정말인데 나도 당신의 문하생이 되고 싶디!

하지 말고 그림만 그리라고 했다. 제한된 30분 정도의 시간에 내부를 그려가지고 나오야 하는데 할 시간이 어디 있나? 방마다 유리방이나 골룸이랑이냐 내부 생김새도 다 다르다. 돈 엄청 들었다.

그래도 그림 그려 오는 것만으론 시나리오를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내가 두 달 동안 몽 타임을 잡고 들어가서 살았다. 그 곳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가씨들이랑 애기도 많이 하고, 건달들이랑도 두루 친해졌다. 사전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지. 다행히 작품은 딱 내놓자마자 흥 터졌다.

업소 여성들이 다 미안일텐데 취재하다 보면 솔직히 남자로서 좀 끌리지 않았나?

난 안 그랬지만 문하생들은 어렸을지 모르겠다. 난 잘짜왔기 때문에 그런 생리가 들 거예요. 큰 돈을 쓰면서 머무는 동안 뭐라도 하나 정보를 얻어야 했으니까, 오히려 유혹을 받은 건 나야. 절절.

성인 작품으로 넘어온 후 여자 캐릭터 이름 중에 소희, 송화가 유독 많다. 이유가 뭔가?

이유는 있다. 하지만 밝히지는 않겠다.

당신의 작품은 피비린내 나는 조직 간의 싸움도 정말 리얼하게 묘사한다. 그런 선명한 칼집이름도 다 직접 만났나? 아니면 건물 친구들이 많았나? 만화를 그리기 위해 쫓아다니다 보니, 강하게 형사도, 조직에 있는 건달 친구도 참 많이 생겼다.

만화에 나온 남자 중에 실존하는 캐릭터가 있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캐릭터가 다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 거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내가 있다. 내가 모 경찰서 반장남과의 인연으로 청부업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정말 눈이 마주치는 순간 등에 얼음을 넣은 것처럼 얼어 붙고 말았다.

반했나? 본능적으로 파편새가 느껴졌다. 마시는 내내 호랑이처럼 우리에 갇힌 염소마냥 오금이 저졌다. 그 초점을 처음이었다. 많이 건달들 하나도 무지 않은데 그 남자는 잊을 수가 없다. 돌아와서 그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 게 바로 <대탈>의 '개'나리다.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과정은 없나? 성인 만화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너무 후덜덜하다. 과정된 거 없다. 거의 다 진짜다. 리얼 극화를 표방

▶ 일간스포츠에 연재된 <강남남자>로 <대탈> 이후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강남남자의 인기비결은?

모든 남자의 로망인 돈과 성공, 섹스를 조절봉이 대리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쫓아가는 조절봉이, 정경이에 사로잡힌 전형적 주인공보다 더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주로 조직폭력파 매춘같은 어둠의 세계를 다루다가 <강남남자>에서 좀 더 양자로 돌아왔다는 느낌이다. 앞으로의 방향도 그런가?

굳이 그런 의도는 없다. 캠페인 캠페, 영업사원이면 영업사원, 컨셉을 잡으면 그에 맞게 가는 거다.

조절봉이 국회의원 될 때까지 계속 만화로나오나? 그렇다. 아마 시즌10까지는 나올 거다.

단골 캐릭터인 황산, 구석기, 주영기가 요새 계속 쉬고 있다. 이들을 다시 볼 수는 없는 건가?

그럴 리가. 각각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10년의 노력이 들었다. 하나같이 10년 속성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진짜 활력이 될 거다.

그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릭기평의 강간이다. 강간미에게서 지금의 모든 캐릭터가 파생되어 나왔고, 무엇보다 나를 세상에 알려주고, 지금처럼 성장하게 해 준 캐릭터다.

포탈에 감성이라고 치면 명대사를 모아놓는 필방이 끝도 없이 나온다. 본 적이 있나?

제이에게 보고 있다. 그 또한 내 만화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앞뒤 잘라먹고 무턱대고 회화하는 것도 많은데? 상관없다. 사람들이 내 만화를 가지고 노는 것도 하나의 놀이 문화니까. 예민한 작가들 중엔 그런 걸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난 단 한번도 그런 걸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대인배다. 대인배니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 4차원 만화들을 유머로 쓴건가, 아니면 진지하게 쓴건가? 진지하게 쓴 것도 있고 유머도 있다. 그런데 지금 널리 알려진 대인배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쓴 것들이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예를 들

하고 있는데, 하다 못해 전해 들은 거라도 있어야 만화로 그리지, 내가 지어내서 쓴 건 없다.

과장 논란이 가장 많이 빚어낸 건 <대탈>에 나오는 적외선 굴뚝기 때문이었다. 외로움 적외선 물리치 료기와 천연 루비 7개, 그리고 건전지 두 개만 있으면 보안용으로 거미줄처럼 출몰하게 쳐 놓은 적외선을 걸어 물리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는 얘인데, 고도소나 관련 보안 업체에서 그 얘기가 세상에 못 나가게 하려고 나를 굉장히 압박했다. 그 얘기를 알아내려고 당시 기술자를 찾아 고도소 면회도 많이 갔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면회 스톱이다. 결국 알아내긴 했지만 발표하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안 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 다"라는 대사만 인터넷 유행어가 되어 대 히트를 쳤다.

폭력과 섹스의 미학이란?

사람들은 말이지, 결혼 후 상 착한 척, 돈도 멀리 하는 척, 성(性)도 굽기시키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걸 맹렬하게 원하고 있다. 나는 그 치열한 욕망을 만화로 표현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만화를 보면서 억압된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거다.

그 신조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가끔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좀 멋진 작품을 남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길 듣는다. 하지만 내가 아는 멋진 작품은 '재미있는' 만화다. 꿈이나 이상이나 떠들어 대도 재미없고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만화는 생명력이 없는 만화다. MAXIMO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

김성모가 생각하는 MAXIMO는 어떤 매거진인가?

세상 모든 콘텐츠는 폭력과 섹스를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고상한 척 취향을 떠는 부류들도 사실은 폭력과 섹스를 은근히 섞어서 팔고 있지. 내 만화와 MAXIMO는 폭력과 섹스에 대한 갈망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같은 선상에 서 있다. 인간의 맹렬한 욕망을 포장하지 않고, 인간의 근원적 공포를 숨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욕망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다.

그 MAXIMO가 다음달로 100호 발행을 달성한다. 축하라도 한마디 끼여주라.

처음 MAXIMO를 봤을 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었다. 지난 99달 동안 MAXIMO 지켜온 '강한 남자'를 앞으로 또 지켜나가기라 믿는다. 그게 우리의 과제다. MAXIMO 99호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다. 100호 달성 축하할 겸 내가 한 사이다.

정말인가, 우린 사랑하지 않는다. 언제 살 건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내 스타트업 자바심이 없다면
보는 순간 넌을 읽고 말지
”

슈트 트루젠
조키 자이코
시계 사티콘
벨트 시스템
구두 카사



웹툰의 순재들이
이웃들 뒤랑
커 출몰 주고
싶다면



기자들 상대로 <디아블로3> 베타 버전 시연이 진행될 거란 소식을 듣자마자 블리자드에 영혼을 팔아넘긴 MAXIM 에디터 김군과 월간 <게임머즈> 에디터 그레이는 태평양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 블리자드 본사를 전격 방문했다. 시연이 시작되자 <디아블로3> 한글 버전을 세계 최초로 플레이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달아오른 두 에디터의 X꼬는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게임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이렇게 외쳤다. “아~이렇게 인생 퇴장은 반복되는가...” **BY 김상현, 그레이(월간 게임머즈 에디터)**

TIME WARP COMING

세계 최초로 한글 버전 디아블로3를 만나다!

디아블로3
영상 보러가기





〈디아블로3〉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게임이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콘솔 게임계의 스페셜리스트 월간 (게이머즈)의 에디터 그레이와 MAXIM에서 게임과 애니에 미친 진성 오타 에디터 김군이 〈디아블로3〉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왔다. 블리자드 본사에서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본 후 내린 판단이니 그저 인터넷에서 정보를 파피기해서 만든 기사 따위와 비교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액트1의 스텔레온 킹 VS. 마법사

전작과 자연스러운 비튼 터치 성공

2D에서 3D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스카트레프트〉와 달리 이질감이 거의 없다. 전작과 동일하게 마우스를 베이스로, 간단한 키보드 조작만 더하면 게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 아예 게임 경매 시스템의 공개 및 한글 버전을 공개하기 위한 이번 이벤트전 시연에 참여한 기자 중 누구도 조작 방법에 대해 묻지 않았을 정도다.

▶**CHECK POINT** 평면적인 화면만 보여줬던 〈스카트레프트〉과 달리 〈디아블로3〉는 사이드 뷰 시점으로 진행된 게임이었기에 2D임에도 입체감이 느껴졌다. 3D 화면으로 변경된 게임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다. 여기에 흔들리는 물결마저 섬세하게 잡아낸 유희종의 게임 일러스트 덕분에 3D로 렌더링된 캐릭터와 배경에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다.

콘솔 게임 못지않은 타격감

전작에 비해 타격감이 더욱 향상되어 콘솔 게임을 즐기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이만한 타격감을 줄 수 있는 게임은 손에 꼽는다. 시점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인 상태로 보스 몬스터와 싸운다면 몰입도는 배가 될 거다.

▶**CHECK POINT** 콘솔 액션게임의 대명사 〈갓 오브 워〉 시리즈를 연상케 할 만큼 적을 때려치는 손맛이 짜릿하다. 이런 타격감을 대충도 자랑하지 않는 블리자드의 오만함이 놀랄 정도. 아만용사 캐릭터의 스킬 중 몇 가지는 크레스트의 기술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속도감 업그레이드 완료

2010년 G5수스타에서 공개된 것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엔 게임이 전반적으로 느리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한글 버전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속도감이 향상됐다. 블리자드가 자랑하는 〈와우〉나 최근 인기가 뜨거운 〈리그 오브 레전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CHECK POINT** 캐릭터 움직임이 캠프의 대표작 〈몬스터 헌터〉와 많이 닮았다. 〈디아블로3〉에선 캐릭터의 동작 중 '점프'가 배제되어 한 번에 빠른 이동이 불가능해 몇몇 캐릭터의 전용 스킬을 제외하고 말이다. 이런 경우 이동이 지루하게 느껴지니 게임 내 속도감 향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고기는 역시 구워서 제맛!

당신을 도와줄 든든한 원군, 우충지의 위령!

한마디로 디아블로3는?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재미 하나는 끝장나는 게임. 다른 인체의 장점을 흡수해 자신만의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에 능한 블리자드답게 〈디아블로3〉는 〈갓 오브 워〉, 〈데빌 메이 크라이〉의 장점을 흡수해 이를 뛰어넘는 호쾌한 타격감과 액션성을 가진 게임으로 거듭났다. 여기에 게임 넘치는 캐릭터 육성 시스템, 본격적인 아이템 경제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디아블로3〉는 나오는 순간 모든 온라인 게임을 세 하얏게 질릴 거다.

디아블로3 Q&A

벌써부터 (디아블로3) 생각이 통요가 달아오른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Q: (디아블로3)도 (외우)처럼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나?

A: 당근. 경쟁에서 아이템도 사고파는 마당에 당신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뭉스 프로그램을 돌려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템을 입수하면 곤란하잖아. 대신 당신이 접속을 한창 동안 하지 않더라도 캐릭터가 사라질 일이 없고, 친구 찾기 기능도 쓰기 쉬워진 데다, (외우)의 언저 시스템처럼 (디아블로3)의 깃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해하라고.

Q: 파티 플레이로 보스 몬스터를 잡으면 아이템은 1인당 1개씩로 떨어지는 거야?

A: 물론이지. 게다가 자신이 먹은 아이템 외에 다른 이의 아이템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নিজ처럼 아이템을 먹고 파티원을 만날 일은 적을 거의 어택 신-기?

Q: 전직에서는 지역별로 아시아 1, 2, 3처럼 여러 개의 서버가 있었잖아? 디아블로3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생각이야?

A: 이번에는 심플하게 나라별 1개의 서버만 동생각이야. 그러나 한국에서 (디아블로3)를 즐기려면 한국 서버에 접속하면 되겠지. 당연히 경쟁장도 지역별로 운영되고, 이곳에서 산 아이템은 다른 지역 경쟁장에서 팔 수 없어.

Q: 한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 서버에서 게임을 즐길 수 없어? 전직을 비롯해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다른 지역 서버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었잖아?

A: 지금처럼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는 걸 추천해. 하지만 당신이 다른 서버에서 게임을 하겠다고 하면 말할 수는 없지만, 대신 아예도 말했듯이 아이템은 플레이한 곳의 서버에 귀속되니까 나중에 서버를 옮기면 맵에서 혜택을 해야 할 거야.

Q: 디아3 베타 테스트는 언제 시작하는 거야?

A: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지만, 곧 북미 지역부터 시작할 거야. 한국 베타 테스트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조금빨라지 마. 이번 베타 테스트에서는 디아3의 액트의 보스 해골 왕과 싸움까지 맛볼 수 있을 거야. 5/13 직접 오뚜기 사용 해볼 수 있고 말이지. 베타 테스트는 베타넷 계정으로 디아3를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되면 별도의 메일이 갈 테니 기다리면 돼.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베타 테스트 이후 당신이 얻은 모든 아이템은 사라져.



디아블로3의 깃발 시스템!



HP 회복 방식 변화

전직처럼 단순히 물약/회복 포션을 빨면서 손쉽게 게임을 진행하려는 생각은 접어라. 물약 딜레이가 생겨서 몬스터를 때려잡아 죽시 회복 아이템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곧잘 발생한다. 당신이 쉼시한 여자에게 들이대듯 지나가는 몬스터는 일단 잡고 봐야 일단 예기다. 체력이 떨어졌다고 물약을 쳐둬서 묵했다! 난패보기 심상이다.

▶ **CHECK POINT** 실제로 게임에서 물약을 구매할 수 있었던 베타 버전을 플레이하던 몇몇 기자들은 액트의 최종보스를 물약 없이 상대하는데 피통을 썼다. 물약이 없어도 딜레이 때문에 체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망명한 경우도 많았다. 반대로 극적인 상황에서 물약을 때려잡아 체력을 회복한 후 액트 보스를 점은 에디터 김군은 원호성을 질렀는지?

스킬트리는 빼고, 아이템 조합은 넣고!

캐릭터에게 개성을 입히는 방법으로 '스킬 트리(스킬 특성)'를 사용한 전직과 달리 스킬에 아이템(문)을 조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의 스킬트리로는 제한된 스타일의 캐릭터 밖에 못 만드는데 판단에



서다. 다양한 아이템만 스킬도 다양하게 변하기엔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기는 더 쉬워졌다.

▶ **CHECK POINT** 스킬 슬롯에 아이템을 차버리면 어떻게 되나고? 예를 들어 마법사의 원거리 공격 스킬에 특정 룬을 조합하면 근거리 공격 또는 방어 공격으로 기술이 바뀐다. 즉, 자신이 카우고픈 캐릭터의 스타일을 감안해 스킬을 선택한 후 다양한 아이템으로 속성을 바꿔주면 된다의 거다.

(디아블로3)를 콘솔 게임으로?

직선적인 게임 루트(시나리오 분기)가 없다고 봐도 무방. 간헐한 조작 및 호쾌한 타격감 등을 고려하면 콘솔용으로 아쉽지 않는 게 더 와야한다. 얼마전 블리자드가 콘솔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채공 공역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소문이 들린다.

▶ **CHECK POINT** 최근에는 PC 패키지과 콘솔용을 모두 출시하는 게 유행이다. 게다가 블리자드의 게임 중 (디아블로) 시리즈만큼 콘솔로 내기에 적합한 게임은 없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는 콘솔 게임이 대체내 블리자드로서는 의욕이 불타올 수 밖에

히든카드, 아이템 경매장

사실 이번 베타 시연을 기저를 상대로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템 경매장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블리자드 본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공개된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만큼 블리자드가 꺼낸 히든카드의 위력이 엄청났던 거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레이와 김군은 심각한 직업을 메디터에서 (디아블로3) 게이머로 전직해야 할 지를 고민했다. 레알이다.



경매장의 화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 **아이템 거래를 허락하다.**

암묵적으로 이뤄진 유저간의 아이템 거래를 제작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위한 장을 만들 어주겠다고 선언했다. 그것도 세계 1위 게임 제작사 블리자드가 말이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골하게 “(디아블로3)가 발매되면 아이템 거래는 피할 수 없으니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CHECK POINT** <디아블로3>는 금화 거래장 및 화폐 경매장을 운영한다. 금화 거래장은 게임 속 금화로 아이템을 사고팔고, 화폐는 공인된 결제 방식 또는 배틀넷 계정에 충전된 화폐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화폐 경매장은 나라의 정책에 따라 이용 여부가 제한될 수 있다.

▶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문제?**

우리나라 게이머 중 상당수는 아이템을 자신으로 여긴다. ‘독했다. 이 아이템 팔면 xx만 원이 생길 것구’라고 생각한단 얘기다. 그런데 블리자드에서 아이템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니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게임에 뛰어들 사람이 폭주하겠지.

▶ **CHECK POINT** 우리나라 게임위권화는 유별나다. 현금으로 아이템 거래를 한다는 말만 나오도 질질 쓴다.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면 즉시 “너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릴 정도. 사형성 논란이 있으면 등

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블리자드가 게임 심의에 골머리를 썩는 이유다.

▶ **BUT 경매장의 숨겨진**

우리나라에서 화폐 경매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마약을 합법화하면서 관리가 가능해진 것처럼 경매장은 과도한 현금 거래를 막아줄 거다. <디아블로>처럼 아이템의 소유권이 강한 게임이라면 송구영을 터주는 게 합리적이다.

▶ **CHECK POINT** 우리나라는 게임 아이템(또는 게임머니) 거래가 합법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7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2억 3399만 원어치를 매입해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된 판매상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게임머니 역시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템 거래는 합법인데 게임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걸 문제 삼는다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다.

▶ **경매 수수료는 고정**

블리자드는 유저에게 경매장을 제공하는 대신 거래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는다. 재미있는 건 수수료로 거래 금액의 일정 퍼센트가 아닌, 고정된 수수료만 챙긴다는 것. 블리자드가 거래의 아이템 거래에



경매시작기와 즉시구매가의 등록은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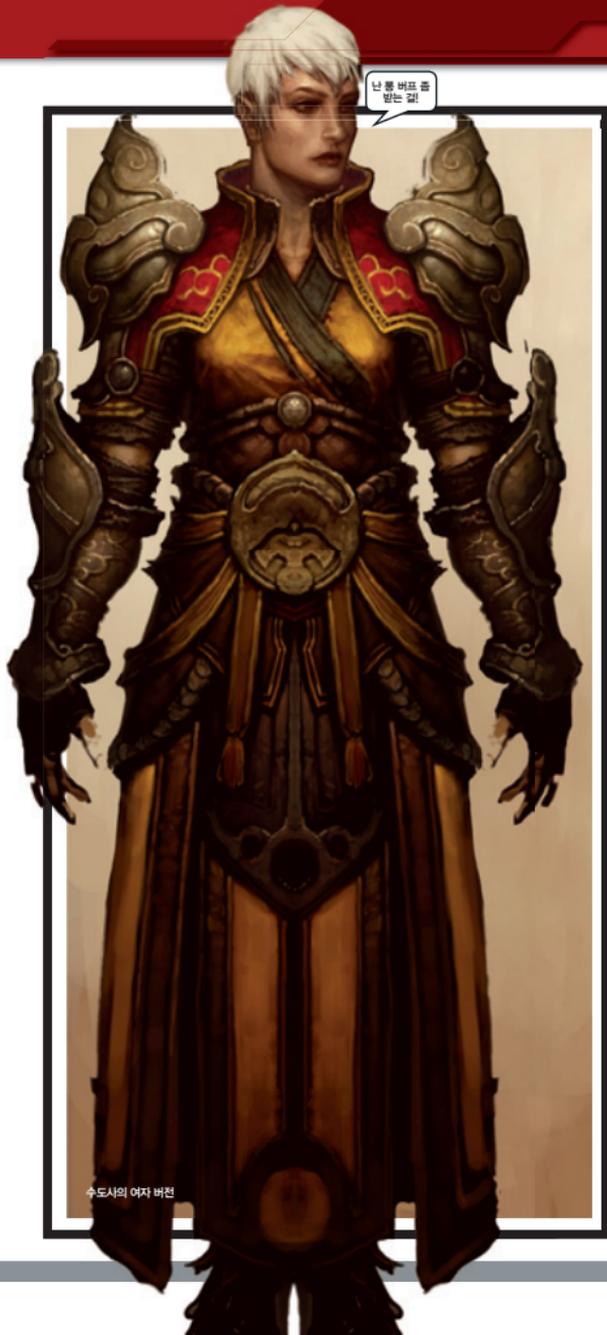
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포기했던 의미이며, 동시에 저가의 아이템이 무분별하게 경매장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이다.

▶ **CHECK POINT** 경매장에 아이템을 등록하면 고정 등록 수수료를 내고, 판매되면 판매 수수료도 내야 한다. 한마디로 돈보잡 아이템을 경매장에 내놓으면 지갑만 달리게 될 테니 애초에 팔릴 만한 아이템만 경매장에 등록하란 얘기다. 엄한 돈(또는 골드) 놀리기 싫으면 말이다.

▶ **경매장 시스템의 득과 실**

+ 유자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 지금까지의 평행한 거래방식을 피할 수 있고,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게임성을 높이는 건 무의미하다. 그저 직업에서 (리니지) 대신의 돈벌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 **아이템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디아블로3>의 게임성을 높이는 건 무의미하다. 그저 직업에서 (리니지) 대신의 돈벌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난 좀 바보 같아

수도사의 여자 버전

디아블로3의 아이템 관리는?

- +** 유저가 여러 개의 캐릭터로 플레이해도 아이템은 공용 보관함에 보관된다. 어떤 캐릭터로 플레이하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아이템은 얻고 보관 예기다. 여자하면 경매장에 올려 팔아버리면 그만이다.
- 경매장에서 '스마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당시 캐릭터를 분석해 경매장에서 어떤 아이템을 지르면 더 강해지는지를 알려준다. 심지어 특정 능력치를 기준으로 경매 물품 검색도 가능하다. 이거 참, 지름신이 강림하겠구먼.

디아블로3의 성공 가능성?

성공 지수
99.9%

니오면 대박이다. 주요 언론에서 블리자드의 경매장 시스템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게임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베타 테스트 전이라서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지만 한글 버전을 플레이해 본 결과 이 게임이 양한다면 그것 자체가 부조리라고 느껴질 만큼 완성도가 대단하다. 특히 블리자드의 꾸준한 한글화와 음성 지원이 결들여져 퀘스트를 클리어 하기 위해 <디아블로3> 시절처럼 공략 사이트를 뒤져볼 필요가 없다. RPG 성격이 강한만큼 한글화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한글 버전을 체험한 대부분의 유저들이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기사만 쏟아낸다는 사실! 게임성 자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반응이다. 시리즈물이 가지고 있는 진압장벽, 전직의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재미가 반감될 수 있던 점만 극복할 수 있다면 <디아블로3>의 성공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CHECK POINT <디아블로3>의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출시와 동시에 컴퓨터 부품 가격이 폭등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PC방에서 대대적인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나설 테니 말이다. 제아무리 늦게 나와도 내년에는 발매를 기약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석 운동을 아껴 일찌감치 컴퓨터를 갈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2012

지구 멸망 시나리오

인류 퇴멸의 해로 하나 같이 2012년을 지목하고 있는 수많은 예언들.
우리는 과연 정확히 언제 어떻게 망할까? BY 김희성







마야 달력

90년대의 수많은 종말론이 예언자들의 예언 위주로 돌아갔다면 2012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요즘 종말론 중에서는 단연 마야 달력이 대세다. 마야 달력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누리던 마야인들이 만든 달력으로, 공교롭게도 2012년 12월 21일에서 끝나 버리고 만다. 환날 달력에 불과할 수도 있었던 마야 달력이 2012 인류 대멸망설을 주도하게 된 데는 마야인들이 유난히 발달된 문명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아주 세세한 별자리의 움직임까지 관찰할 인간들이라면 달력 하나도 허투루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거다. 실제로도 마야 달력은 자연, 별자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기록했고 은하 평면의 축과 중심이 수평선을 향해 가까이 움직이는 걸 무려 2000년 전의 기술로 관찰해 냈다. 고대 마야의 우주론을 연구해 온 켈킨스는 '마야인들이 은하 일직선 배열의 마자락 날을 2012년 12월 21일로 잡았을 것'이라며 은하 일직선이 되는 날이 곧 지구 멸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은하가 일직선이 된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일어버린 예언서

그런데 좀 무서운 건 몇 해 전 로마의 국립 중앙 도서관에서 발견된 노스트라다무스의 숨겨진 예언서 또한 2012년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다. 1999년에 반드시 종말이 찾아온다고 했던 이야기는 보기 좋게 틀렸지만,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 세계대전, 현 시대 교황들의 즉위와 사망, 심지어 9/11 테러까지 예언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의 예언이라고 하면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학자들은 예언서에 담긴 80여 점의 그림 속 상징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1962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전체 정렬이 일어나 지구가 멸망할 것'라는 그의 새로운 예언을 밝혀냈다. 전혀 다른 문화권의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걸 신기한 거 같기도 하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신비 학자였기 때문에 예언서를 일어버리고 난리법석인지 모르겠다.



확성 소년 보리스카

노스트라다무스한테 성질이 나는 이유는 또 있다. 왜 굳이 알아보기 힘든 그림을 그려놓는 거냐. '꿈보다 해몽'이라고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예언서에 해석자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림에다 이야기를 끼워맞췄을 가능성도 있었어? 그런데 때마침 전쟁에 자신이 화성언어였다고 주장하는 소년 '보리스카'가 등장한다. 96년생인 그는 태어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아서 들었던 4개월 후에는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1년 6개월 후에는 어려움 없이 신문을 읽었다. 지구를 탐색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 이 화성인은 '지구의 자전축이 변동하면서 세 재인이 일어나게 되는데 2009년 21년 후 대륙에 첫 번째 큰 재인이 발생하며 2011년에 세 차례 재인이 한 대륙에서 일어난다. 2013년에는 큰 재인이 닥치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008년 쓰촨성 대지진과 2011년 일본 대지진을 통해 훌륭히 뒷받침된다. 남은 건 2013년에 대재일이 닥칠지 안 닥칠지 지켜보는 거다. 2012년 12월 21일이나 2013년이나 사실 그게 크게 아니겠어?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 휴거운동

지구가 종말한다면 소동을 벌였던 이들은 예언에도 있었다.



1992년 10월 28일 다이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자정 세계가 잠말 하던 예수가 세상에 오고 자신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거라는 한 목사의 주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휴거'라고도 지칭한 날 TV로 생중계까지 하며 하얀색 '휴거복'을 차려 입은 그들의 공중 부양 소동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신도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고 이 소동을 훑는 '다이선교회 사한부 종말론 사건'이라 부르게 된다.

어이없게도 이 사건은 한 편의 해설서 비롯된다. 1950년 미국에서 순진포 (Captured)는 '성경에 있는 재앙이나 기적이 현대 미국 사회에 벌어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상상한 SF류의 소설이다. 하지만 이 소설이 너무 심취했던 이정림은 소설 내용을 '예언'으로 간주하고 만다. 미책을 들먹이며 열심히 사한부 종말론을 설명한 데에 그에게는 꽤 많은 돈이 생겼다. 휴거 운동 이후 활동한은 학교나 회사에 결석한 사람을 위해 '휴거장려금' 거두느라 고 노는 장인이 유행하기도 했다.





중산도

이름에서 우리는 세상이 난무하는 2012년 지구 멸망설을 새롭게 해석한 충고를 만난다. 바로 중산도다.

중산도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몰라도 '우주에 가솔이 온다'는 문구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건 진짜로 우주가가 더했다 후웠다 한다는 말은 아니다. 성로병사, 홍양성사와 같이 4배로 맞물려 돌아가는 우주의 이치를 우주의 일 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여든 중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봄의 기운이 강한 우주의 '여름'이라서 싸움, 전쟁, 불화, 강쟁이 심하다고 말한다. 아, 신사주우주의 무한경쟁사회의 도래가 우주의 계절이 여름이라서 그런지는 미처 몰랐네. 그리고 우주에 '가솔'이 오면 인간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서로 화합하게 된다며 '상생'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따르면 2012년이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기며, 2012년에 우리는 멸망하는 때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해야 할 게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게 무엇?



웹툰

은유와 비유투성이 예언, 화성에서 왔다는 외계인 사이에서 2012년 이후의 세상을 부정하는 로부터 등장했다.

웹툰은 1990년대 말 주가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능형 검색기다.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웹툰을 가동 시키면 수많은 세계 로부터들이 전 세계 웹을 뿌려지게 되고, 세로로봇들은 그것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긁어 모아온다. 그 자료를 중앙시스템이 분석해 그럴싸한 답을 내놓는 거다. 이 로부터는 2001년 6월에 "앞으로 60~90일 후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해 주식시장이 커다란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귀신같이 맞아떨어진다. 2001년 9/1 테러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웹툰은 자신의 신용감을 계속적으로 입증한다. 그런데 이 로부터는 "2012년부터는 주가가 0이 된다"고 예언했고 아무리 검색기를 돌리고, 돌리고, 또 돌려봐도 2013년 이후 주가 예측을 거부했다.



존 티토

하지만 미래에서 온 인간의 생각은 이들과 좀 다르다. 자신이 2009년에는 온 1998년생 미인이라고 주장한 존 티토는 핵 전쟁 후 황폐해진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 컴퓨터 EM5100를 가져 오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한다. 그는 2009년까지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그것이 꽤 적중해 유명세를 탔다. 그가 목격한 인류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기에 바로 멸망이구나 싶다. 중동 국가에서는 대량 살상무기가 사용되고 2019년에는 러시아가 미국에 핵무기를 투하해 도시 내부가 완전히 파괴된다. 미국이 미비가 된 등을 타 중공은 대만, 일본,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난다 30억 명의 인구가 사망한다. 뭐 그런 것 같다. 차고 존 티토가 진짜 2006년에서 온 미국 군인이라고 한다면 올해 해 68년이면 된 존 티토가 초중학교 교실 어딘가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가 무럭무럭 자라서 군인이 됐다는 건 2012년에도 지구는 멸망했다는 것일 텐데. 가만, 지구는 그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2011년 5월 21일 패밀리 라디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패밀리 라디오의 설립자 해럴드 캠핑은 "5월 21일은 최후의 심판일이며 이후 5개월 동안 자연재해가 발생 한 뒤 10월 21일 지구가 완전히 멸망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날 휴가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에 추종 세력들은 함께 모여 최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캠핑은 1994년도 '9월 6일 하늘이 열리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계산 착오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 틀림없이 중일이 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가 기다리는 중일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캠핑은 "보이지 않는 휴가가 있지"는 말 정도로 많은 소리를 냈다. 한편 5월 21일이 생일이었던 커리의 박규리는 "점성 때가 됐는데 도대체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 하는 심경을 트위터에 전해 자신의 생일을 지축했다.

MAYBEE SHE IS THE ONE

여신강림! 이 페이지를 펼쳐는 순간부터 당신은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될 것이며, 그녀의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볼륨을 높이게 될 거다. 감히 장담컨대 MAXIM 독자에게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추석 선물도 없을 거다.



BY 김성현 WORDS BY 송종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경희 FILM 김민숙 HAIR 삼나려(베테스타 02-548-7787) MAKEUP 곽영은
ASSISTANT 조유림





뷰스티에 에디터소장
바지 핏피가데님
귀걸이 제이미앤벨
신발 게스

스트라이프 니트 원피스 콜업오나코
구두 프리미엄 소다





**1년 만이다. 쉬는 동안 얼굴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광채가 난다!**

가족과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영화들도 열심히 몰아봤대웃음.

저작권료가 역시 효자로군. 1년 정도 쉬는 건 껌인가? 에디터 말고 작사가를 할 걸 그랬다.

'템 미닛'이 흥 터진 때만큼은 아니지만 먹고 살만 하다웃음. 그런데 노는 건 한 달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너무 폭 쉬니까 늘어진다. 이제는 일이 그리우니 열심히 해야지.

이번 달에 싱글 음반이 나온다고 들었다. 어떤 곡인지 살짝 맛만 보여 달라.

기존 곡들보다 템포가 빠르고, 노랫말이 강하다. 1, 2집을 프로듀싱한 김건우씨가 작곡을, 내가 작사를 맡았다.

가수와 작사가 중 당신이 선호하는 포지션은 뭔가? 당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역시 '작사가 메이저' 덕분 아닌가? 다른 가수가 내가 쓴 노래를 부를 때 내가 부르는 것과 비슷한 감동을 느낀다.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순 없다.

작사는 역시 당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겠지?

아니. 노래를 들었을 때의 영감을 중심으로 쓴다. 이번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템미닛'처럼 특정 상황이 아닌, 누구나 경험해볼 만한 사랑 노래다. 자세한 건 노래를 들어보도록!

요즘 가요계는 걸그룹이 대세다. 솔로, 그것도 30대 여가수로서 부담스럽지는 않나?

음악적 방향이 다르잖아. 솔직히 질투할 나이도 자났대웃음.

가장 인상적인 걸그룹은? 요즘 '재일 잘 나간다'고 말하는 2NE1인가?

ㄷ이다. 파격적인 가사와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마저 자신의 색깔로 소화하는 게 인상적이다.

작사가로서 '패스슈리처럼 알겠어요~' 와 '스캔해징징왕왕'이란 병맛 짝하는 가사를 용인할 수 있던 말인가?

노래 가사에 쓸 수 없는 단어가 꽤 많다.

이런 임팩트적인 문을 무시한 채 다양하고,

가치없는 단어를 선택하는 모습에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

귀걸이: 핀피 모두 제이미앤벨
브이세 화석 니트 클럽모노코
신발: 게스



'메이비의 볼륨을 높여라'의 DJ 당시 인기가 대단했다. 라디오로 복귀할 생각은 없나?

라디오를 진행한 3년 6개월 동안 본업을 잊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DJ로서 해보고 싶은 건 이미 다 해봤고, 이야기거리도 떨어졌다. 라디오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번에 드라마 복귀적으로 추석 특집극을 골랐다. 드라마에서 크고 작은 역할로 꾸준히 출연 중인데 연기 욕심이 많은가?

라디오를 그만둔 이유 중 하나다. 연기에 전념해보고 싶었다. 음악이 평생을 함께 할 직업이라면, 연기는 도전해야 할 대상인 셈이다.

일에 전념한다는 사람처럼 트위터에 셀카로 찍은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

늘 혼자 놀다 보니 갑자기 사진과 내 사진처럼 올릴 게 없더라. 슬픈 감정이 표정에서 느껴지지 않던가?

그럼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남자 배우는 누구인가?

박해일씨 이런 멘트가 공개되면 나중에 만날 때 정말 어색하던데 큰일이다(웃음).

"우리가 하고 싶은걸 하며 살기 어려운 건,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따라붙는 실은 걸 견뎌내지 못해서 일거야." 라는 작사카다온 글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연습생. 같은 꿈을 향해 달려던 주변 친구를 생각하다 떠오른 말이다. 나도 쟁개야 할 사람이 많은 위치가 되다보니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 물론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그렇군.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은?

힘을 뺀 편안한 음악을 하고 싶다. 내 나이에 맞게 내 마음과 음악도 같이 성숙해서 세월을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래면 좋겠다.

그때까지 MAXIM도 당신의 노래에 볼륨을 높이고 있겠다.

도 보자. 



시스루 니트 클럽모나코
치마 탑걸
팝피모양의 시계 제이미앤벨
구두 게스



구두 프리미엄 소다

SEPTEMBER 2011 MAXIM 87



메이비 in 드라마

MBC 일일 연속극 <분홍 립스틱>

KBS 추석특집극 <노리코, 서울에 가다>

그녀의 숨은
매력 엿보기



“
늘 혼자 놀다 보니
강아지 사진과 내
사진밖에 올릴 게 없다.
”



KOREA NO.1 NAVY

광개토



대양함

1966년 시작된 'KDX-1 계획'은 우리 기술로 차세대 구축함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10년 후, 그렇게 만들어진 국산 구축함 1호가 세상에 나왔고 바로 지금. 그 자랑스러운 광개토대왕함이 대한민국 동해를 책임지고 있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S 대한민국 해군(www.navy.mil.kr), 한국위기관리연구소(www.kica2008.or.kr)

동해의 배틀크루저 광개토대왕함

길이

134.4m



축구경기장
x 1.5배

무게

4,000t



보잉 747기
x 24대

마력

60,000마력



스나타
x 410대

만땅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

8,000km



대한민국-미국

연간
운영비

130억 원



도쿄동 타워빌딩
228.1m 169명
x 7채



해군 제1함대 사령부

사회 시간에 코 좀 골았어도 대한민국이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바다에 노출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해군의 힘도 그만큼 막강할 수밖에 없다. 동해를 지키는 대한민국 해군 제1함대. 서해를 지키는 제2함대. 남해를 지키는 제3함대의 막강 해군 덕분에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이렇게 MAXIM을 볼 수 있는 거다. 그 중에서도 동해를 지키는 해군 제1함대 사령부는 강원도 고성에서 경북 김포까지 해안선 528km,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총 면적 96,000km², 남한 면적만큼의 동해를 책임지는 정예군이다. 태연하게 오징태가 있다면 동해에는 해군 1함대가 있다!

대한민국 광개토대양함 VS 일본 아사기리함



VS

	광개토대양함	아사기리함
승조원	286명	200명
하푼 대함 미사일	8기 탑재	4기 탑재
주포	127mm 함포 사정거리 24km	76mm 함포 사정거리 16km
방어체계	굴기떡 30m 계단형포 자동으로 위험 평가하여 위험한 것부터 차례대로 일어서 공격	펠링스 20mm 한번에 한 타깃밖에 공격 못함
씨스패로우	배안에서 수직으로 발사되어 레이더 탐지 확률이 낮음	외부에 설치되어 발사되는 순간 탐지 가능

해군 관계자와의 대화

Q 왜 광개토대양함인가? 광개토대양은 육군이었는데요.

A 대동령까지 정하신 거다.

Q 광개토대양함이 얼마나 센가? 북한 함선처럼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A 그것은 군사 기밀이라 알려주기 곤란하다.

Q 광개토대양함에 장착된 포 파워 가 어느 정도인가?

A 음... 그것도 군사 기밀이다.

지시간에 물어보음~



어디까지 쏠 수 있나?

한대함 미사일
HARPOON
150km
(서울-대전)



127mm 함포
24km



함대공 미사일
SEA SPARROW
18km



어뢰 청상어
11km



가장 멀리
발사된 장애물
5.71m

먼리뛰기
세계신기록
8.95m



어떤 놈이 동해를 넘봐?

(MAXIM 사령관 지휘 가상 훈련)

대공전

동해 상공에 미확인 물체 출현

3월 11일 9시 38분, 동해 상공 210km 지점에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감지되었다. 최대 탐지거리 500km의 대공 레이더는 동해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 하늘을 MAXIM 확보 넘기 도 볼 수 있으니 명에서 뜨지마져 꼭 격할 수 밖에

10시 52분, 경계태세를 취한 광개토대양함을 향해 적 항공기가 유도탄을 발사했다. 광개토대양함 방



어체게 끌기피기 자동 으로 표적을 잡아 초당 7발, 분당 4,200발의 탄환을 발사한다. 끌기피의 무수한 탄환이 유도탄을 향해 하나 하나 발 탄환막에 난도질 당한 유도탄은 바나나식 부스리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광개토대양함 대원들은 코웃음 치며 공중에서 부서지는 유도탄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 있었다.



동생도 한 번 발 쏘피 나도록 매려줘야 형님 무서운 줄 아는 법이다. 10시 55분, 광개토대양함은 곧바로 대응포격을 준비했다. 함대공 미사일 썬스 페로우는 함정에서 전파를 발사, 반사되는 표적을 따라가는 유도탄이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썬스페로우는 마하 1.25(1,530km/h)로 날아가 눈 깜짝하기도 전에 적기를 공중분해한다. 미인, 꼬피만 나가 해라고 했는데 창래식을 치러줬네.

대공전 Anti Air-Warfare:

적 항공기 및 유도탄과의 전투

대함전

도도가 자기네 땅인 줄 아는 멍청한 완승이들이 동해에 출몰하여 간죽거기기를 수차례, 대방님 심기가 예민한 어느 날이었다.

5월 24일 16시 19분, 울릉도 근해에서 일본 함선의 수상박은 움직임이 해군 1함대 레이더망에 잡혔다. 동해를 순찰하던 광개토대양함은 뱃머리를 돌려 최고속력 30노트(55km/h)로 출격했고, 두 척의 일본 함선이 울릉도 근해를 맴도는 게 보였다.



17시 43분, 일본 함선 한 척이 겹고 엮어 포격을 해왔다. 날뽀는 완승이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광개토대양함은 127mm 함포를 진전했다. 목적이든 게 돈도 보여서 서울에서 분당 신도에서 부하는 24km 밖에서도 1분에 43발을 뱉어내는 재빠른 녀석이다.



17시 49분, 127mm 함포의 지원사격과 함께 즉시 함선 잡는 유도탄 하 썬파ARPOON이 발사됐다. 광개토대양함 양 옆에 배치된 하문은 최대 사정거리 150km의

유도탄으로 서울에서 대전만큼 멀어진 수상함도 단숨에 격퇴할 수 있다. 하문은 발사되자마자 마하 0.85(933km/h)의 속도로 일본 함선을 향해 날아갔다. 어지간한 배의 레이더망으로는 탐지하는 순간 이송에서 제령이 될 정도니, 완승이들도 "훔땀~" 까지 밖에 못 외치고 눈을 감았다.

대함전 Anti Surface-Warfare:

적 수상함과의 전투

대잠전 Anti Submarine-Warfare:

적 잠수함과의 전투

대잠전

7월 15일 19시 30분, NLL(북방 해상경계선) 근해를 순찰하던 광개토대양함 수중음파탐지기(소나)에 북한 잠수함이 감지되었다(사건 통보없이 NLL을 넘어온 잠수정은 통신 무응답 시 격침 가능하다).

20시 14분, 잠수정도 마음이 급했는지 광개토대양함을 향해 수중 어뢰를 발사했다. 북한군의 어뢰가 전파를 이용해 함선을 추적해오고 있다.



20시 15분, 광개토대양함이 TACM을 발사한다. 바다에 빠진 TACM은 음향 고주파를 발산했고 전파 혼란이 넘치는 바닷속에서 북한군의 어뢰는 길을 잃은 사춘기 소녀냥 방황했다. 어뢰가 TACM에게 실컷 강간 당하는 사이 광개토대양함은 유유히 빠져나와 잠수정을 향해 청상어를 겨냥했다.



대한민국 근해에서 가장 무서다는 식인상어 청상아리, 그 명성답게 청상어리 한 마리면 10km 밖에 있는 잠수정 뒤에는 한입 거러다. 차례적으로 발산하는 음파를 따라가기 때문에 광개토대양함 주변 모든 각도에 있는 목표물 공격이 가능하다.

20시 15분, 광개토대양함은 침로를 바꿈 필요 없이 발포했고 청상어는 90km/h의 속도로 날아가 북한 잠수정을 물어 먹었다. 아... 이걸 헛소리 하는 일본 의원들 X구역에 꽃이겨야 하는데!

광개토대양호의 여가생활

대양님도 좀 쉬어야지 말입니다.



잡악어와 집자지

국방부는 대양님의 위장을 채우는 일에는 매우 관대하다. 자색식사로 닭볶음탕과 계란 찹쌀이 한 식판이 나왔다. 명절이나 연휴 수 있는, 토레스, 비아할 능가하는 단 백질 푸들 메뉴 체제에 감탄을 연발했다.



공중에서 오직 MAXIM

24시간 교대 근무로 잠이 부족한 대원들, 그런데 에디터가 가져간 몇 권의 MAXIMI! 그들을 기쁘게 했으니... 흥분한 병사들은 "7, 8월호는 이미 있으니, 과월호를 달라"며 무리 공평했다.



플레이스테이션

강달전

현아 못지 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플레이스테이션 한 대가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준다. "근무, 휴전, 개인연방 하는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대로도 충분히 게임한다."라고 장교가 말했다.



아! 수정!

드라마 OST를 달콤하게 속삭이던 가수 차수정이 트로트곡
'깜빡, 깜빡'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가 가진, 익외로 폭발적인 매력에
당신도 정신을 '깜빡, 깜빡' 놓게 될 거다. 우리처럼!

BY 곽영희 WORD&FILM 박민정/유니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김사라(메디스타 02-548-7737) MAKEUP 조영은 AEGEAN1 조유림
장소협찬 뉴스올림(02-3454-1888)



이렇게 예쁜 차수정씨를 그동안 몰랐다는 게 천후의 원이 될 지경이다! 소개를 부탁한다.

트로트 곡 '깜빡 깜빡'으로 돌아왔다. 예전에 MARRY-M이라는 모던록 밴드에서 '딤아'라는 이름의 보컬로 활동했다. (군세아라 금순아), <형수님은 열아홉> OST를 부르기도 했다.

차수정이라는 이름은 드라마 <자이언트>에서 가수를 연기한 황정음이 연상된다.

원래는 활동할 때 차수정이란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너무 보석 같잖아, 고민하던 차에 <자이언트>의 차수정이 생각났다.

로커 생활은 별로였나? 장르를 바꾸게 된 계기가 뭔가?

모던록을 좋아해서 곡도 쓰고 그걸 엠버와 창작 활동도 많이 했는데, 뭘 좀 하려고 하면 회사가 망

하더라. 그런 곡들을 몇 번 껴다보니 대중의 사랑이 잘 실패했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랬다. 똘 (웃음) 심지어 당시 회사에 돈이 너무 없어서 공짜 녹음 시설이 있는 강원도 어느 대학교까지 가서 녹음한 적이 있다. 삼각김밥만 먹으면서 결과가 좋을 리 없다. 결국 앨범이 없어졌다.

Marry-M의 M이 '음악과 결혼했다'라는 의미라더니... 음악과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군. 무슨 소리인가? M은 MONEY대웃음.

음악 이외에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요리를 정말 잘한다. 실패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만약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요리사가 됐을지도.

김수미는 간장게장을 잘 만드는데, 차수정은 뭘

잘 만드나?

몽골레 스파게티, 갈비찜도 잘한다. 내 손씨에 여러 사람이 감동 받았다. 재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당신도 눈을 줄줄 흘릴 거다.

갈비찜이 많이 매운가 보다. '깜빡 깜빡'의 가사 중 '알마온 사랑은~ 내 가슴에 상처만 주고'는 본인 이야기인가?

내 얘기라고 하기에 너무 가볍다. 내 사랑 이야기를 노래로 풀지면 평바닥에 주저앉아서 비석 좀 치고 시작해야 할 거다.

그나저나 여태 솔로라니... 이번 싱글 앨범엔 '쉬운 여자'라는 노래도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안 쉬운 여자'인가? 이상형이 궁금하다.

인상 좋고 대화가 통하는 남자가 좋다. 요리까지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고.



원색 서스 타원지다무연
안더웨어 상의 잠빈클라인 안더웨어
안더웨어 하의 멜로리오 아르미니 안더웨어

본인이 무심한 스타일이라 남자가 지쳐 떠나간 건 아닐까?
구속이나 침착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한다.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사랑에 빠지면 나만큼 적극적인 사람이 또 없다.

드라마 OST 작업과 본인의 음반을 작업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드라마 OST는 철저한 주문제작이다. 내 음악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감독의 주문에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장면, 캐릭터, 스토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재미도 제법이다. 그리고 난 한때 곡도 해본 사람이다.

라이벌이 있어야 빨리 성장할 수 있다. 가수 홍진영은 라이벌로 어떤가?

아이들도 아니고 성장이라...! 자리를 잡을 뿐이다. 홍진영 씨는 이미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대결 구도가 되려면 내가 너무 부족하다.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

사랑 받는 가수. 그리고 많이 버는 가수(웃음)

'깜빡 깜빡' 대박이면 모른 척 하지 말자! 약속! ☆



차수정

키/몸무게: 163cm, 43kg

타이틀 곡 '깜빡 깜빡' 과의 평행이론:
외출할 때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아서
집에 다시 가는 경우가 많다."

생활력 강한 여자기 대세: "가수를 안
할 때, 아는 언니 옷 가게를 봐주고 백화
점에서 판촉 판매도 하면서 생계 활동
에 매달렸다. 너무 잘 팔아서 스카우트
제외도 받았다."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은 필수. 이별
은 선택."

남의 딱: "(최고의 시팅)을 재밌게 봤다.
OST를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는데 아쉽
다. 노래가 전부 대박이서 더 더욱..."

HUMAN

VS

누가 물이 생명이래?

WATER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이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물은 총 14억km³. 전체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 이런 새끼가 맘 먹고 덤비면 인간은... 조매는 거다. BY 박한빛누리



인간 VS. 인간이 만든 물



1

가장 비싼 생수

할리우드 부자들만 마신다는 럭셔리 생수 브랜드 H2O. 이 녀석의 맛도 안는 가격은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박힌 보틀 덕분이다. '럭셔리 에디션 보틀'은 무려 2,600달러(280만 원)로 이 녀석 1병으로 대학교를 한 학기 다닐 수 있다.

→ WE WIN 안 사!



2

가장 독한 물

현재 생산되는 가장 독한 술은 알코올 도수 96도의 스피리터스(Spiritus)다. 맛모르고 이 녀석을 털어넣었다가는 식도는 물론이고 장까지 흔적도 없이 타버린다.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80도가 넘는 독한 술을 만들지만 성표가 없는 영타리 술이 대부분이어서 잘못 마셨다가는 실명하거나 죽사할 수 있다.

→ WE WIN 안 먹어!



오늘 여기
물이 왜 이래?

3

내 몸에 가까운 물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은 인도네시아의 시타람 강이다. 세계 8대 환경 재앙으로도 손꼽히는 이곳은 생활쓰레기와 배설물,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등등 떠다닌다. 이곳 주민들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그냥 강에 버린다고.

→ WE LOSE 미안해.



4

오션걸스

하나같이 길쭉길쭉한 기러지여 어디 하나 흠 잡을데 없는 미끈매끈한 몸매로 우리를 그릇 물놀이 현장으로 이끌다니, 게다가 'Ride Now' 라는 유행한 제목의 노래까지...

→ WE LOSE 완전한 패배를 인정.

물에 맞서는 강인한 인간들



얼드려 봐!

2.7m

눈에 우유를 머금고 가장 멀리 쓴 세계 기록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나를 잊지 말아요

1979년 오스트리아의 다이스 안트레아 마하베츠 군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가 이를 까탈케 잊은 경찰 덕분에 18일(43시간) 만에 세상으로 나왔다. 이 사건은 물과 음식 없이 인간이 가장 오래 생존한 기간으로 기록에 올랐다.



이제근 나와

강한 남자만~

말레이시아의 앙(Ang)이라는 남성이 찍은 무려 4.57m까지 뜬 긴 소변줄기 배출 동영상에 화제다. 남달리 강한(?) 소변의 비결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꾸준히 해온 운동 덕분이다.

인간 VS. 사람 잡는 물



1

축제, 너마저

2010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세계적인 물축제 '본 옴 퓌(Bon Om Touk)' 이 사상 최악의 대참사로 이어졌다. 물축제 마지막 행사인 보트 경주 이후, 수천 명의 인파가 얼지러뒤치러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400여 명이 깔려죽고 750여 명이 부상당했다.

→ **DRAW** 김희성 에디터 싸인회 후 결정하겠음.



판정장님. 이래서 제가 팬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에서 싸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 김희성 에디터



나도 차구엔

2

나이아가라 참사

지난 8월 14일, 나이아가라 폭포 앞 난간에 걸터앉아있던 여성이 폭포 아래로 추락했다. 1903년 이후, 나이아가라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사람은 6명이다. 한 해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것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치다. 다이빙에 도전한 사람도 있었는데, 뛰어난 16명 중 11명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 **WE WIN** 11명은 살았다.



보지만 말고 구해, 이자세!

3

얼음 사고의 위험성

지난 2월, <MBC 뉴스데스크>의 조의명 기자가 해빙기 얼음 사고의 위험성을 전하다 강물에 빠지는 사건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조의명 기자는 조용영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순식간에 검색순위 1위에 올랐지만 지금은 까랑개 잊혀졌다.

→ **WE LOSE** 박대기처럼 기억해라.

인간 VS. 때로 덤비는 물



1

서울 도심 워터파크 개장

7월 27일, 서울에 내린 엄청난 폭우를 뚫고 MAXIM에 정식 출근한 직원은 단 두 명이었다. 인천 거주자 이은하 디자이너는 1호선 은행 중단으로 역에 고립됐고 김진욱 에디터는 열차를 내고 어머니 가게의 물을 뿌려 갔다. 고경희 에디터는 양화대교에 갇혔고 강남 피플 송중민 수습에디터는 집 앞까지 차오른 물이 빠져서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막내 어시스턴트 조유림은 '그냥' 늦게 왔다.

→ **MISS CHO WINS ALL!**



2

세계에서 가장 축복한 곳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인도 메갈라야주 남부에 위치한 체라푸리로, 연평균 11,430mm의 비가 내린다. 1861년에는 무려 22987mm나 되는 물기록이 쏟아져 정미의 만병을 찍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1245mm의, 무려 18배나 되는 비가 땅을 물폭격? 한 것이다. 양이 많은 날엔 위스피를.

→ **WE WIN**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어서

인간 VS. 바람 만난 물



1

강태풍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태풍은 1979년 10월 4일 발생한 틱(Tip)이었다. 참 빈곤한 이름이지만 지름 2,220km의 미국 본토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폭집을 가진 녀석이다. 태풍 틱은 870hpa로 관측 사상 가장 낮은 기압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육지를 많이 비껴가 사망 115명, 부상 247명, 이재민 11,000명의 경미한 피해(?)밖에 남기지 않았다.

→ **WE WIN** 이 정도로 지지 않아.



2

사라!

대한민국 역대 최고 태풍은 1959년 9월 17일 방문하신 사라(Sarah) 되시겠다. 사망자 832명, 총 피해액 661억 원, 이재민 40만 명을 발생시키며 한반도 역사상 가장 악몽 같은 태풍으로 기록됐다.

→ **WE LOSE** 두고 보자.

뭇 학생입니다



4

최악의 침몰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선적 침몰사고는 1934년 9월 28일에 일어난 스웨덴 커버너 침몰이다. 엄청난 폭풍우를 견디지 못한 배머리가 부서졌고, 그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갔다. 배는 20분 만에 전복되었고 탑승자 989명 중 309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승과 작별했다.

→ **WE LOSE** 잔인한 파도같으나...

3

메가 쓰나미

1960년 5월 22일 칠레 해구에서 강도 9.5의 지진으로 약 4,000명이 사망하는 쓰나미가 발생했다. 쓰나미의 질주 본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50km 떨어진 일본 해안까지 쳐들어가 무려 180명의 일본인이 극락왕생 했다. 그리고 우리 단군의 위엄 돈는 개국 위지 선정 능력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된다!

→ **WE WIN** 대한민국은 랜덤이어.

4

최악의 침몰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선적 침몰사고는 1934년 9월 28일에 일어난 스웨덴 커버너 침몰이다. 엄청난 폭풍우를 견디지 못한 배머리가 부서졌고, 그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갔다. 배는 20분 만에 전복되었고 탑승자 989명 중 309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승과 작별했다.

→ **WE LOSE** 잔인한 파도같으나...

인간 VS. 돈 잡아먹는 물



1

역대 최고의

자연 재난 손실

바로 올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자연 재해 손실액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2,700억 달러(284조 원) 가량으로 우리나라 일 년 총 예산과 맞먹는 수치다. 그 중에 일본 쓰나미가 2,100억 달러로 전체 손실액의 80%에 달하는 재난 피해를 당했고, 미국 남동부 토네이도 75억 달러, 호주 홍수 73억 달러도 한 몫 거들었다.

→ **WE LOSE**

배춧값이 올랐다.

유술 하지 마세요!



2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2002년 11월 스페인 갈리시아 해안에서 갑작스런 기상 이변으로 기름을 실고 가던 배가 반으로 쪼개졌다. 6만 3000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의 암바다를 까맣게 뒤덮었다. 피해액 약 1조 164억 원 역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남았다.

→ **WE LOSE**

기름값도 올랐다.



PIC FANTASY

BY JESSE BRUKMAN PHOTOGRAPHS BY MATT JONES



2011년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의 역사를 다시 쓸 <코난>의

여주인공 레이첼 니콜스가 스크린을, 그리고 모래발을 뜨겁게 달군다.



오덕 기질이 있는 영화 마니아에게 무척 익숙한 이 얼굴과 몸매. 레이첼 니콜스는 JJ 에이브람스의 <스타트렉: 더 비기닝>에서 온몸에 녹색 칠을 한 '그린길'로 등장해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

3년 뒤 그녀는 샌달을 신고 몸에는 털거울 천포자리를 걸친채 나타났다. <코난: 더 바버리안> 속 거친 근육질 수컷들이 뿜는 땀냄새를 꼭 참

은 보람이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한다. 그녀의 우아한 자태는 2012년 본사미의 할리우드 영화 <지.아이.조 2>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날까지 못 기다릴 성미 급한 당신을 위해 레이첼 니콜스의 비키니 화보를 MAXIM 한국판에서 시원하게 공개한다.

<코난>에서 색시한 여전사 수도자로 등장한다. 천에도 화끈한 액션이 있는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 이렇게 폭력과 가까이 지내는 이유가 뭔가?

남을 때리는 걸 좋아한다거나 24시간 내내 헬스장에서 사는 여자는 아니다. 트래이닝을 시작한 건 <엘리어스>와 <지.아이.조>에 캐스팅되었기 때문이다. <엘리어스>는 액션 장면이 아주 많고, <지.아이.조>와 <코난> 역시 몸을 쓰는 장면이 굉장히 많다. '액션을 잘 소화하는 여배우'라고 인식되는 건 무척 기쁘지만, 이제 나도 진짜 색시한 남자랑 뜨거운 러브신을 찍고 싶다.

오, 이제 매튜 맥커너히와 <10일 안에 남자 친구에게 차이는 법>, <사랑보다 황금> 같은 로맨틱 코미디를 찍는 건가?

계약서만 가져와라! 나도 약간 번듯스럽고 괴짜인 4차원 여자로 나오고 싶다. 부모님도 내가 위기탈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화에 나왔으면 해서나, 출연만 성사되면 무척 고마워하실 거다.

당신은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자랐다. 스스로 과거의 자신이 메인주 혼구서에서 온 수줍은 소녀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혼자할 기질이 남아있나?

예전엔 확실히 그런 면이 있었다. 믿을 수 없겠지만 말이다. 물론 나는 여전히 예의바르고 정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수줍음은 나오는 거리가 먼 단어다.

모델 일을 하기 위해 학교를 쉬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다. 당시에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
프랑스어를 할 줄 알긴 하는데, 자주 말할 기회가 없어서인지 막상 실력 발휘를 하려면 좀 위축된다. 나의 모델로서의 첫 작업은 파리에서였는데, 그때 사진작가가 나에게 "Tu es belle(넌 예쁘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 예쁘다"는 의미다. 근데 나는 그걸 "Tu es pouibelle(모뽀)"이라고 들었다. 프랑스말로 "당신은 쓰레기뽀이다"란 뜻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펄펄 쏟았다. 작가는 그 상황을 언짢아했지.

운동 좋아하나?

최근에 골프 레슨을 시작했다. 정말 신난다! 처음에 골프를 접한 곳은 어느 골프연습장이었다. 그때 내 손에는 종이봉지에 들래 숨겨놓은 크라운 로얄 위크스가 들려 있었다. 지금은 골프 강사에게 레슨을 받는다. 레슨 첫날 그가 "이년, 작은 게 참 유언하구나"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봐, 이 골프 연습장에서 내가 유일한 여자야. 이제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이런 저런 걸 가르쳐주겠다고 할 거야. 내가 이쁘니까. 하지만 넌 그 사람들한테 꺼져라고 해야 해." 참고로 그 강사는 일흔이 넘는데!



"자신감? 유머 감각? 난 젊고, 다부진 체격에,

운동 잘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좋다. 그리고 힙에서 허리까지 이어지는 그 아도니스

라인이 살아있는 그리스 석상 같은 몸매를 원한다."





입술에 노친네 이야기는 그만 하자. 우린 당신이 남자를 볼 때 뭘 보는지가 궁금하다. 재발 "남자는 자신감" 아니면 "유머감각" 이런 뻔한 말은 하지 마라. 자신감? 유머 감각? 그런 거 조개 난 절고, 다부진 체격에 운동 잘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좋다. 물론 사람들은 친구 같은 다정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하지 이해한다. 그래, 맞는 말이지. 하지만 난 힘에서 하리까지 이어지는 그 아도니스 라인에 살아있는 그리스 석상 같은 몸매를 원한다. 그리고 내 남자라면 자신의 옷차림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난 좋아하는 것과 안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척 엄격하고 까다로운 여자니까.

명쾌하군!

음, 나는 그런 면에서는 무척 현실적이다.

또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다면?

가끔 지나칠 정도로 완벽주의자다. 한번은 어떤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로 선 적이 있다. 40명 정도의 하객이 있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고 싶었다. "누가 헤드셋 줄 가져다 줬 2번 테이블에 상향 발생 애셋이 들어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결혼식을 망치지 않도록 저 애들을 옷장에 가둬!"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었다. 기회가 온다면 아마 딱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

33



레이첼 니콜스

생년월일: 1990년 1월 8일

태어난 곳: 미국 메인 주 오거스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새끼 송아지 흉선 요리

"환상적인 것이다. 나랑 저녁에 이거 먹으러 갈 사람?"

자동차 장식: "나의 자동차 개조기를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스피네럴과 파피로 도는 고가의 바퀴 장식은 없지만 그래도 바퀴가 꽤 죽어준다."

작업 노하우를 향한 열망

"책 (더 게임)에서 고시는 직업 노하우가 담긴 베스트셀러의 편이다. 저자 닐 스트리우스를 만나보고 싶다."

작가 데뷔 희망: "여자 버전의 직업 노하우가 담긴 책을 써볼까 생각 중이다."

트위터에서 만나요!

@Rachelnichols1

시범판
촬영 환경
속으로



마피아의 道



존나게 성공한 악당들의 돈 버는 비결 대방출.

BY DAN BOVA, LORENZO CARCATERA, GREGORY J. MORRIS, DAVID SWANSON
ILLUSTRATIONS BY KELSEY DAKE

한 때 보나노 마피아 패밀리를 이끌던 조세프 마시노. 그가 브루클린에 위치한 뉴욕 지방 법원에 들어섰다. '마지막 대부'라 불리던 이 사나이가 한 손을 성경에 올리고 자신의 옛 친구와 후임자 보스 빈센트 '비니 고지스' 바스치아노에 관해 한치의 거짓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그 순간, 마피아들이 수 세기동안 고수한 침묵의 코드 '오메르타(침묵의 규율)'가 종말을 맞이했다. 이것은 하급 균인이 장역살이 몇십 년을 끌어보겠다고 고자질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었다. 혹은 측근의 배신 때문에 오랜지색 수의를 입고 철창에 갇히게 된 그저그런 마피아 중간 보스 이야기도 아니다. 그는 우두머리였다. 뉴욕의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을 이끈 초대 보스 마시노가 FBI에 협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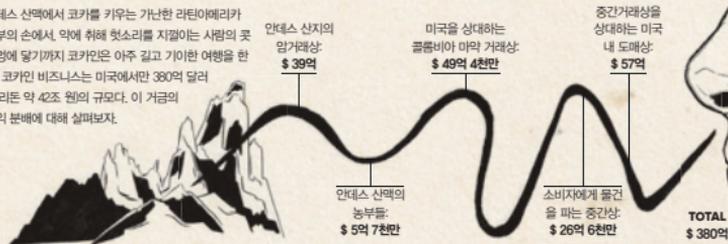
그의 증언은 지난 수개월 간 지속된, 마피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멸-올해 1월 말, 무려 110명의 마피아가 체포됐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사건만으로 우리가 아는 마피아 조직이 완전히 소탕되거나 소멸 절차를 밟게 되

었나?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아니다' 라고 답했다. '마피아가 타격을 입었나고? 그렇지도, 사라졌나고? 미국에서 마피아가 완전히 방출하는 건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말대로 미국 정부는 이미 마시노의 아내와 어머니에게 그의 집 10채 중 5채와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凍결할 수 있게 허락했다. 보답으로 연방수사국은 이 마피아 거물을 증인으로 앉히고 모든 질문에 단순히 말할 것을 약속받았다. 2004년 7건의 살인과 16건의 협박, 여기에 방화와 강탈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이듬해 1건의 살인죄가 추가되어 사형 판결을 받은 마시노. '마지막 대부'가 바스치아노의 죄를 밝히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것은 지난 4월의 일이다. 그러나 정치, 돈 그리고 인명(人命)을 좌우하는 여타 범죄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마피아는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로 얼룩진 마피아 조직의 단면과 그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거대한 흰 물결

약쟁이가 마약을 사는 데가로 자불한 지폐다발은 과연 어떤 루트로, 누구에게 갈까?

안데스 산맥에서 코카를 키우는 가난한 리티아메리카
농부의 손에서 약에 취해 헛소리를 지껄이는 사람의 콧
구멍에 닿기까지 코카인은 아주 길고 기이한 여행을 한
다. 코카인 비즈니스는 미국에서만 380억 달러
(우리돈 약 42조 원의 규모다. 이 거금의
수익 분배에 대해 살펴보자.



AMERICAN GANGBANG

파이는 아메리칸 파이,
갱단은 역시 미제.

FBI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안에서 활동하는 갱단 멤버는 약 1백만 명이며 미국내 범죄의 80%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갱들이 도심지에서 교외나 시골 동네로 이주하는 일이 잦아졌다. FBI는 이들의 움직임을 계속 추시하고 있다. 오픈 폭력은 미 전역에 걸쳐 활동 중인 2만 개 이상의 범죄조직 중 최대 규모이고, 그리고 가장 폭력적이거나 갱단을 정리한 것이다.

조직명	CRIPS 크립스	BLOODS 블러드스	THE LATIN KINGS 라틴 킹스	GANGSTER DISCIPLES 갱스터 디스플	VICE LORD NATION 바이스 로드 나이션	MARA SALVA-TRUCHA 마라 살바트루차
조직 규모 (인원)	30,000~35,000	30,000	20,000~42,000	25,000~50,000	30,000~35,000	30,000~50,000
역사	베이비 에비뉴스라는 조직에서 출발. 40개 주 22개 도시에 걸쳐 활동 중. 파란 반다. 머리 수건을 착용함.	197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크립스에 맞서기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 붉은 반다 나뭇잎 착용함.	1960년대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 출신 남자들이 불명동에 대항하려고 조직한 그룹에서 시작. 600쪽에 달하는 선언문과 부칙을 고수함.	60년대 중반에 결성. 30개 주 110개 도시에 걸쳐 이사회와 수백 개의 지부가 활동 중. 한때 이사회 의장 래리 '킹 후버'가 옥중 경영을 함.	5대로 주변에서 활동하는 갱단을 규합한 단체. 중앙이 사회를 꾸려 운영.	LA에 온 엘살바도르 이민자 모인 얼 굴 전체를 문신으로 도배. '마의 불' 제스처로 인사를 나눔.
취미	코카인, 크리, 마리화나, PCP(펜타스테) 등 마약 유통. 폭행, 차량 절도 등 각종 도둑질 살인.	폭행, 차량 절도, 도둑질, 자동차 강탈, 도로에서 총기 난사, 살인, 금품 착취, 명의 도용 사기, 강도, 마약.	코카인, 크리, 헤로인, 마리화나 유통, 도둑질, 살인, 명의 도용, 돈 세탁.	폭행, 차량 절도, 도둑질, 총기 난사, 사기, 살인, 매춘, 돈 세탁.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유통, 폭행, 절도, 살인, 명의 도용, 돈 세탁.	마약 밀수, 불법 밀입국 살인, 도로에서 총기 난사, 명의 도용, 매춘, 불법 무기 거래.
인간 신공식	산입 단원은 반드시 갱단 멤버를 맡아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여자 멤버는 기증 크립스 멤버와 '몸'을 섞는 것으로 갱단에 섞여 들어가 수 있다.	역상강행 모양으로 세 군데를 지저서 마치 개 발바닥 같은 화상을 오른쪽 어깨에 새긴다. 행인이나 구경꾼의 얼굴을 연도날로 긁게 하기도 한다.	보통 활인 관계를 통해 멤버를 영입한다. 조직원의 아이들은 자동으로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30초 동안 6명의 갱 멤버에 둘러싸여 치명한다. 이따이~ 이따이~	활인 관계로 영입하지 않은 신입 멤버는 두들겨 맞는다. 신공식을 지춘다. 멤버의 가족에선 자동으로 가입 자격이 생긴다.	13초 동안 6명 중 버릇없는 가족에게 맞는다. 이걸 견디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 처벌은 허락되지 않는다.

약당의 전당

글로벌 범죄 조직을 이끈 거금 약당들의 얼굴을 기억해두자. 세상 일은 모르는 법.



**홍아인
크운다 문에라**

일명 '엘 리포'라 불리는 그는 멕시코 최대 마약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이다. (포브스)가 뽑은 세계의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총 자산 추정치는 약 1200억 원.



**마테오
메시나 드나로**

시칠리아의 마피아의 보스. 콜레오네(대부)의 일문 브린도보다는 알약한 고지에 가깝다. 아르바이트 정장을 입고 링크는 포르세를 모는 배낭으로도, 세계 10대 자수범 중 현상금 59억 원.



**쓰카사 사노부
(본명: 사노 다케아키)**

30대 5천여 명의 조직원을 보유한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 구마의 6대 부소. 차세대 수소하여 일본 대지진 구호 물품으로 100억 원(2천600만 엔)의 구호품을 보내고 고베 시를 직접 방문했다.

MADE IN KOREA

한국인 마피아 제이스 리



알파카네가 활동하던 시절, 미국 마피아위원회 3대 보스라 등극한 전설적인 한인 마피아 이강은. 어릴 때 가족과 하와이로 사탕수수 이민을 갔다가 미국 본토에서 도박과 밀주 사업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다. 예바 가드나, 그레이스 캘리 등의 여배우를 온몸으로 후원하기도. 1960년대엔 일본에서 쿠우 야쿠자와 대립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독립 자금을 지원했다는 증언도 있다. 오. 남자자랑!

한국 사람은 주목을 타고 우리 집에 왜 왔나?

중국 흑사회: 흑룡강파가 연변 흑사피에게 일러 패권이 흑사 회로 넘어감. 현재 동북 3성 조산족 흑사회, 한국 흑사회, 타이완계 삼합회 등이 국내 활동 중. 적년 삼양 흑사회가 철성파, 청양리파와 손잡고 북한 마약을 몰아져다. 적발, 자정연필러 온 건 아닌 게 확실함.

일본 야쿠자: 야마구치 구미파는 부산 칠성파와 두목끼리 의형제를 맺은 사이.

리비아 마피아: 부산을 통해, 대우병 회사수사관 건부, 직원으로 위장 진출.

가터: 태국의 말타이아 방글래세의 군다 등.

악당의 전당



이차허크 아베르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공동 수장. 마약, 금융 갈취, 사채, 일, 도박, 그리고 살인 등에 연루되었다. 미 검찰은 77개(지)에 달하는 기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미국에서 재판을 앞둔 아베르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세르게이 미하일로프
구 소련이 붕괴될 즈음 나타난 미하일로프는 러시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범죄 조직을 꾸렸다. 동유럽 마피아의 방식이 아닌 서구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비즈니스맨'이라고 칭한다. 살인, 금융 갈취, 마약, 불법 무기 매매, 해운 등을 자질한다.



다두오 이브라힐
수십 년 동안 범죄왕 국 D-퀵패니의 조직원 5천 명을 이끌어온 수괴. 인도 지하경제를 지배해 온 그는 마약과 무기 밀매, 살인, 테러에 만수무강하다. 일곱만 보드 맥 그렇게 생겼다.



제임스 버거
(디피드)의 적 니콜슨의 세이코 마피아 캐리커에 영감을 준 실제 인물. 보스턴 기반의 아일랜드계 경주 두목으로, 도피 전 에 마약 밀매, 금융 갈취, 살인 등을 자질했다. FBI 10대 수배자 중 형상권 순위 19(2001년) 달라이로 나 지난 6월 체포됐다.

MAPIA PIE

거대한 조직범죄의 판에서 과연 어떤 이탈리아 마피아가 가장 큰 조각을 차지할까?

키오라

나폴리를 배경으로 성장한 마피아 조직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100여 개의 가문이 이를 구성한다. 전체 조직원은 약 7천 명. 비밀리에 활동하는 조직원들이 정부와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영역에 침투해있어 심사가 기소하기 힘들다. "본 범인은 피고에게... 어라, 사촌형이잖아? 무죄!"

라 코사 노스트라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이탈리아 마피아의 원조. 19세기 시칠리아에는 페카노아, 로아, 아랍,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외세에 밀려온 지역인들을 괴롭히는 시칠리아 전통 부호들이 있었다. 라 코사 노스트라는 이들을 막기 위해 생겨났다. 치열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나 이후 동향 사뮈엘 주머니에서 동진한 낱피지 밀당 밀어가는 범죄 조직으로 성장했다.



드란게타

이탈리아 반도의 장화처럼 생겼다. 그 장화의 밑가락에서 발생한 드란게타는 끈끈한 혈연 관계로 맺어졌다. 약 160개의 가문이 배출한 드란게타 조직원들은 이탈리아 사회 전반에 침투되어 있다. 이탈리아 전체 GDP의 3.5%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다. 거침 짚어야겠네!

시크라 코로나 우니타

장화의 밑꿈치 정도에 위치할 이 조직은 60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한때 토지 권리를 보장해주는 명목으로 다른 마피아로부터 돈을 걷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이 서비스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크라 코로나 우니타는 그다지 함박이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지타산을 맞추며 견재하고 있다.

토포 매뉴

무기 밀매



마약 밀매



정치 부패



돈세탁과 화해 위조



인신매매



절도



납치



살인/살인 협박



고리대금업



도박



도박



도박



도박



도박



도박



도박



도박



도박



도박



동유럽 개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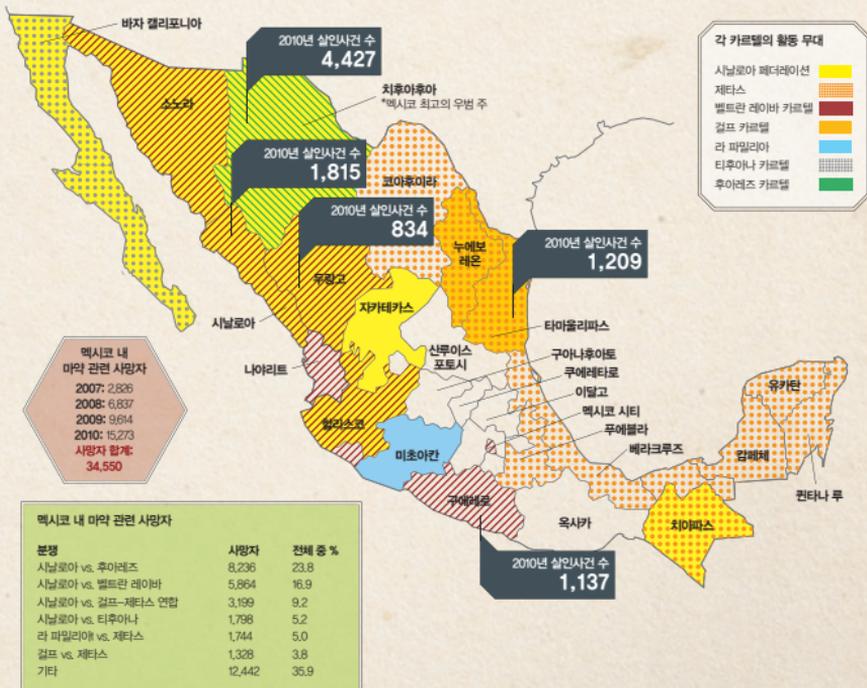
돈 많고 찬박한 동유럽
개의 향기를 느껴보자

영화 속 마피아처럼 모든 범죄자들이 다 말쑥하고 정직지는 않다. 하지만 동유럽 마피아의 과시적 소비는 그 찬박함의 차원이 다르다. 한탄한 자가용, 번쩍이는 추리닝, 합합 긴지마저 풍기는 개향한 보석이 휘기휘까... 그러나 당시 슬직히 그들을 비난할 수 있나? 당시 주변에 수십억

달러 화폐 동치가 골라다한다고 생각해보라. 요트를 지르고 남은 돈으로 축구 구단 설립 한 두개 사는 게 뭐 대수라, 고급 대리석 높이 3m짜리 모비를 만들어 당시 인생을 청송하는 내용을 우주 최고의 찬박한 미사여구로 새기면 또 어떠랴. 인생 팔다. 지르고 보자.

멕시코가 떨고 있다

파에 옥마른 마약 카르텔이 경찰과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서서히 조여오는 그들의 마수, 어디까지 뻗었나?



세미온 모길레비치

동유럽 마피아 사이에서 '두목 중 두목',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 '브레이니 돈 (마리 좋은 두목) 이란 별명이 있다. FBI가 잡은 10대 수배자 중 4위. 마약, 매춘, 금융 갈취, 밀수, 심지어 핵무기까지... 그의 손이 안 닿은 범죄가 없을 정도.



빅토르 보우트

(로드 오브 워)의 실제 모델인 '죽음의 상인'. 냉전 이후 최고의 무기 거래상으로 꼽히는 그는 지난 가을 태국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현재 뉴욕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무죄를 청원하는 중이다.



젠리 예온

멕시코의 필로폰 판매왕인 중국계 멕시코인. 2007년 달이가 잡혔다. 정부 당국인 그의 집에서 찾아낸 현금만 무려 2억 달러 이상. 당시 재판의 결과에 면관 연이던 정부요원 2명은 얼마 후 시체로 발견됐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



스베틀라나 라즈나토비치

세르비아의 인기 포크 가수이자, 보스니아 전쟁 당시 인종청소의 잔인한 조직범죄를 이끈 상징으로 악명 높은 아라칸 샴 나토비치의 이방인이다. 2000년 아라칸 샴 이후 그의 입을 이어서 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HOW MUST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최재현
FILM 김진희
ASSISTANT 노주희

써니힐

서커스의 꼭두각시 인형이어도 좋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무대에서 온전히 불사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써니힐.
그들의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GO ON

주비

연습생 지망자에게 문제가 있는 소속사와 제대로 된 소속사를 구분하는 팁을 알려 달라.
계약금은 받는 거지 주는 게 아니다 (웃음). 버락 스티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회사는 믿지 마라. 하루아침에 이뤄질 꿈이 아니다.

송아에게서 빼앗고 싶은 점점 긍정적이 마인드. 나는 걱정이 많고 행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

4집 《미브레타》와 전혀 다른 색깔의 댄스 음악 미드나잇 서커스로 컴백했다.

쉬운 음악이 주는 따뜻함과 발랄함도 좋지만 이번 음반은 묵직한 깊은 감성과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다. 써니힐이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나 말하?

미드나잇 서커스 볼 때 보면 기괴하지만 묘한 매력을 가진 이토 중지의 작품들이 연상된다. 최근 발표한 기도란 곡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서커스와 광대에게 느껴지는 처연함과 기괴할 때문일지도 모른다. '기도'를 포함해 이번 음반 전체에 이런 정서가 배어 있다.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다.

서커스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놀이고, 광대는 웃음을 강요당하는 슬픈 존재다. 미드나잇 서커스의 퍼포먼스는 이런 맥락을 잘 짚어냈다.

서커스는 한 편의 쇼, 광대는 쇼를 이끌어가는 존재다. 대중에게 즐거운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대중가수도 광대처럼 혹독한 연습의 시간을 가진다. 무대에서 화려한 주인공이지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광대. 이런 이중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최근 내놓은 싱글 음반 타이틀곡 '기도'는 써니힐이 가수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나?

이번 곡을 공개한 후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 앞으로도 써니힐만의 음악을 하고 싶다. 사람들이 늘 우리의 음악을 기대하면 좋겠다.

써니힐은 비틀어진 그룹이다. 중고 신인이면서, 보기 드문 혼성 그룹이고, 심지어 작사&작곡&프로듀싱까지 소화하는 가내 수공업형 그룹이다. 그런데 잘나가는 소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에 몸을 담고 있잖나! 실망이다.

비틀어진 그룹이란 표현은 정말 마음에 든다(웃음). 하지만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추구하는 음악적인 방향이 주류는 아니다. 소속사의 아이유가 대세가 되니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룹 멤버들 곡에 따라 재가는 건 물론이고, '기도'의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부각적 판정을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멤버간의 분량을 안배하느라 노래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싶진 않다. 뮤직비디오 심의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서커스+기도+MAXIM"은?

"어울리지 않음"이라고 답하려 했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 꽤나 좋은 조합인 것 같다. 또 만나자.

그때는 자연인의 모습을이기를 (그리고 같은 소속사의 아이유 친구와 함께 오길) 기대하겠다.



코란 타이거의 존말이라니! 타이거 JK에 대한 경외도발인가?

오래(대우음). 이만수 작곡가님께서 트위터에 장난으로 올리신 글이다. 이렇게 따쟁이 클 줄은 정말 몰랐다.

컴그룹에서 당신처럼 강한 캐릭터는 보통 뭘 담당이다. 그런데 써니힐에서 당신은 노래와 랩도 같이 하고 있어 의외였다.

보컬로 시작했는데 음색이 랩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주변의 추천 때문에 연습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가사까지 쓸 정도로 뚝 뻗었다.

미성에서 빠졌고 싶은 점? 지적인 매력. 그녀가 써니힐의 브라인이다. 그리고 우월한 거러지(?).



써니힐 홍보
촬영 현장
정보기





주비와 마찬가지로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다. 그때 좋은 멘트는?

엔제인 해블 생각 있어요? 엔제인 하기 좋은 매력적인 얼굴이에요.라며 칭찬을 건네줬다.

인터뷰에서 허가 종종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허가 짝아서 발음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이만수 작곡가님이 촬영을 고민하다가 너 허가 종종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던대웁니다.

**주비에게서 배웠고 싶은 장점은
진지함과 청초함. 그리고 상대와의
아이 콘택트.**





대성

누가 봐도 스투어디스 스타일이다. 남자에게 인기가 많았다. 창공관광학과 재학 당시, 과에서 입는 옷이 승무원 복장과 비슷했다. 전공수업이 있는 날에는 승무원처럼 꾸미고 다녔는데 그때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꽤 있었다(웃음).

가수 데뷔를 위해 6년간 길을 걸었다고 들었다. 정말 독하다.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루고픈 꿈이고, 시달린 만큼 주위 사람에게 꿈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독한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이 달라.

코타에게서 배웠고 싶은 점점 호소력 짙은 목소리. 작고 아담하지만 불꽃 있는 음매. 그리고 애교.

장현

가내 수공업 음반 작업은 공동 프로듀서인 당신이 있기에 가능했다. YG 페넬라가 믿고 쓰는 테디처럼 되고 싶은 건가?

가수를 시작할 때부터 프로듀서가 꿈이었다. 회사에서 프로듀서로서 많은 신뢰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테디처럼 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다.

그녀들에게서 배웠고 싶은 점점 목소리. 사실 정말 갖고 싶은 건 그녀들의 모였을 때 보여주는 카리스마다.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걸그룹은?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모마넵.

왜 그는 모터 사이클을 타는가

왜 두카티여야, 왜 스쿠티어야, 왜 모터 사이클이어야만 했나. **영웅문단**

영화에 등장하는 그 무엇도 허투루 등장해서는 안 된다. 이 장면에는 왜 이런 의상을 입고, 왜 이런 표정을 지으며 왜 그런 장소에 있어야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영화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서 잭 니콜슨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꼭 자신이 쓸 플라스틱 포크를 가지고 다닌다. 관객들은 그가 품에서 포크를 꺼내지마자 잭의 감박증과 결박증을 눈치챈다. 더 나아가 그가 극복해야 할 과제와 영화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주제까지 기대하게 된다. 이런 작은 소품마저 인물의 성격을 결정 짓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허물며 주인공이 타는 자동차나 바이크는 영화의 주제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DUCATI

DUCATI SPORT 1000 in TRON: LEGACY

두카티 스포츠 클래식 시리즈는 1970년대 두카티 부흥기의 모델을 현대적인 기술로 재해석하여 2006년 말부터 특유의 빈티지한 디자인과 묵직한 L트윈 사운드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오리지널 레트로 카페레이이다. 2010년 중반 생산이 종료되어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트론>의 시작 장면에서 주인공 샘 폴린은 두카티 스포츠 1000을 타고 바깥거리를 질주하다가 경찰의 BMW K1300RT와 추격전을 벌인다. 차 사이클 가로지르는 위험천만한 질주는 어릴 적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대한 몰본과 그리움을 토해내는 과정이다. 거대 스포츠 웨어 기업인 엔컴의 최대 주주인 샘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과속 단속을 피해 질주하는 이 첫 장면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그의 집에도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방 한 칸에서 있는 '두카티 750 SPORT'가 그 것이다. 20년 전 아버지가 탔던 두카티가 그대로 보관돼 있다. 아버지가 언제든 돌아와 이 바이크에 올라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도 그 후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1000을 타고 있으니 그만큼 아버지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올드 모델과 현행 모델 모터 사이클을 같이 타는 모습, 로맨틱 하지 않나.

그러나 SPORT 1000의 진짜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라이트 사이클(Light Cycle) 경주 장면을 만나면 이 초반 시퀀스가 모두 이를 위한 포석임을 알 수 있다. 명백한 0과 1의 세계인 디지털 세계에서 창조주의 아들인 샘은 존재할 수 없는 이방인이다. 앙갚음할 수 없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대결은 상상 이상의 속도와 움직임이 가진 미래적인 라이트 사이클로 시각화된다. 샘은 순수한 아날로그의 존재로서 이들과 대결한다. 당연히 대결의 원동력은 현실에서 탔던 모터 사이클이다.

여기서 제작진이 두카티의 최신 스포츠 바이크가 아니라 굳이 스포츠 1000을 선택한 이유가 드러난다. 클래식의 결정체인 두카티 스포츠 1000과 퓨처리즘의 결정체인 라이트 사이클의 극명한 대비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샘의 라이딩 실력이 빛날수록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대립은 차해지고, 클래식과 퓨처리즘은 강렬한 시각적 대비를 이룬다. 혹자는 아날로그를 표현하는 데 '로얄 엔필드' 같은 클래식 모터 사이클이 더 적당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었지만 레이싱에서 두카티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클래식 카페레이서조차 하이 퍼포먼스 레이싱 DNA를 포기하지 않는 두카티야 말로 아날로그 레이서의 대표로 손색이 없다.







YAMAHA RIVA 180 in Larry Crowne



미국 이륜차 시장은 지형적 특성상 장거리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크루저 시장이 강세다. 그러나 유가가 70% 이상 상승하는 불황이 오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좀 더 적은 연료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스쿠터가 주목을 받았다. 아마하 RIVA는 1983년 석유파동으로 미국 시장에 반박 스쿠터 붐이 일어났을 때 등장한 고급형 스쿠터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스쿠터가 자유와 젊음의 상징으로 큰 사랑을 받지만 미국은 그 시장이 다르다. 워낙 땅이 넓어 이동거리가 긴데다가 교통량이 적어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스쿠터의 장점인 근거리 기동성은 그들에게 별다른 어필을 할 수가 없다. 웬만한 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실하다니던 대형마트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된 래리 크라운은 더 이상 SUV의 무시무시한 기동감을 감당 할 수 없다. 그 대신 이웃집 아드 세일에서 조그만 스쿠터를 사는 것은 어쩌면 사회적 신분 하락일 수 있다. 하지만 영화는 불황으로 대규모 감원이 일상화되었고 금융위기까지 겹쳐 빛더미에서 올라 앉은 1980년대 미국의 소시민에게 따스한 위로를 보내기로 한다. 그것이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그 기회를 고물 스쿠터를 통해서 마련한다. 래리는 말릴 되는 어린 여학생의 권유로 구입한 스쿠터 동호회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뒤편지 할 수 있다는 젊은 예니자와 세상 경험이 풍부한 래리의 만남은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세대와 세대가 스쿠터라는 매개체로 만나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울드 스쿠터가 가진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이미지는, 세련되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친할래 래리의 성격과 닮아 있다. 래리가 스쿠터가 아닌 할리 데이비슨을 탔다면 영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갔을 것이다. 스쿠터를 선택한 재직인이 즐기고 걸반인 베스파가 아닌 아마하의 오랜 골동품 스쿠터를 고른 것 역시 중요하다. 귀엽고 소박한 이미지만큼이나 영화는 친근하고 사랑스러워졌다.



바이커스 vs 모즈

영국 애들이 육하는 데가 있지

1960년대 영국에는 두 가지 유행이 있었다. 먼저 록큰롤을 즐겨 들으며 포디모어 빛이 남긴 리틀트 헤어와 검정 가죽 재킷, 밀단을 찢은 데님 진을 즐겨 입고 로얄 엠erald, BSA, 노튼 같은 영국제 모터 사이클을 타던 바이커스가 있었다. 그들은 절망하고 불행스러워 보였지만 사실 영국제 스포츠 모터 사이클을 타는 것은 꽤나 부자집 도련님이라는 뜻이었다. 젊은 할기를 반항적인 노래와 모터 사이클로 분출했던 이들은 카페에서 주크박스에 좋아하는 노래를 걸어두고 그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지정된 정소를 찍고 돌아오는 내기를 즐겨 카메라이사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또 하나의 유행은 미니멀한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고 앞머리를 가지런히 내린 뱀에에 모던 제즈를 즐겨



VESPA GS 150 in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베스파라 불리는 GS 시리즈. 1955년부터 1964년까지 10년 간 생산된 장수 모델이다. 최초의 150cc 스쿠터로 100km/h 이상의 속도를 내어 도심의 편리한 운송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모터 사이클은 예나 지금이나 문자 그대로 자유와 젊음, 그리고 반항의 상징이다. 체 게바라의 <모터 사이클 다 이어라>가 그랬고 <이치 라이더>가 그랬다. 벤자민이 모터 사이클을 탈 수 밖에 없는 것은 그의 평탄하지 않은 삶을 상징한다. 남들과 전혀 다른 시간대를 사는 그에게 평범이란 단어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다. 자동차가 병든 삶이란 바이크는 손리를 거스르는 삶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유를 동경하는 한편 이를 쫓는 사람들을 사회부적응자, 현실도피자로 몰아 붙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저의 반 뒤의 반으로 사회에서 멀어져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메는 인물을 표현하기에 모터 사이클보다 더 적당한 것은 없다. 그가 자동차를 뺀다면 평생의 연인인 데이지가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와 홀로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에서 그렇게 많은 의미를 담아내지 못했을 테다.

영화 후반 다시 데이지를 떠나 온 벤자민은 트라이엠프, 인디언 스카우트, 로얄 엔필드 등의 클래식 모터 사이클을 바꿔 타며 전 세계를 여행한다. 외로운 그에게 모터 사이클만큼 자신을 담은 친구도 없다. 외모는 젊어지지 만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늙어가는 그의 모습은 낡은 클래식 모터 사이클과 겹쳐 보인다. 과연 그는 이 여행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았을까? "꿈이 있다면 나이가 얼마건 결코 늦거나 이르지 않다" 언 벤자민의 말처럼 우리가 직접 알아내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삶이 지루하다고 생각되는가? 모든 걸 잊고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당도 모터 사이클을 타라. 어떤 기종을 타건 바이크는 당신에게 처음 만나는 자유를 안겨줄 것이다.

들으며 이탈리아 제 베스파 스쿠터를 타던 모즈가 있었다. 수트를 말끔히 차려 입고 조그만 베스파 스쿠터를 타던 이들은 일견 귀여워 보였지만 사실 주중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이나 주말에는 잔뜩 차려 입고 나와 춤과 악물을 즐기던 거친 노동 계층이었다. 좋아하는 노래와 패션, 라이프 스타일까지 정반대였던 이들은 사사건건 충돌할 수 밖에 없었는데, 결국 런던의 중심이었던 카나비 스트리트에서 양 진영의 존망을 걸고 패싸움을 벌이게 된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모즈의 압승. 거칠게 자란 블루리더들을 골게 자란 도련님들이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날 이후 바이커들은 카나비 스트리트에 출입을 금지 당했고 만약에 거리에서 적발되면 머리를 깎이고 바이크가 불태워질 각오를 해야 했다. 그렇게 런던에서 바이커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1960년대는 모즈가 대유행하게 된다.

그거 아냐? 비틀즈도 락 밴드였기 때문에 처음엔 바이크가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르는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고머리 범생이 집단으로 스타일을 바꾸고 60년대를 지배하는 아이콘이 된다. 드러낸 어쩔 수 없지.

모터 사이클
무비 보러가기



Guy's Denim Guide

거의 매일 당신 허벅지를 비벼대는 데님. 누구나 입지만 모두가 멋진 건 아니다. 당신의 하체가 청바지보다 여체와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MAXIMO이 언제, 어떻게 청바지를 입어야 진짜 멋진 사나이로 등극할 수 있는지 친절히 알려주마.

BY 고정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민

하드웨어 파악

청바지를 고를 땐 당신의 몸매와 최고로 궁합이 맞는 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렵다고? 당신 다리가 3개만 아니면 된다.

BODY TYPE
뼈다귀
FIT-SKINNY



스키니 진을 입어야만 하는 세 타입이 있다. 랍스타, 10대, 학다리. 가느다란 다리는 더 이상 늘림거리가 아니다. 유행을 좇지 않아도 스타일이 살아나는 걸 아때.
103,200원 몰락진

BODY TYPE
비쩍이
FIT-SLIM



사이니의 태만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여자보다 다리가 예쁘다면?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머리는 가르지 말자.
168,000원 커버넌트 by 파나클

BODY TYPE
날씬이
FIT-SLIM STRAIGHT



몸보이는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튀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어울린다. 놀기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는(현실은 아니다) 그정도 보이는) 골품한 당신.
104,400원 몰락진

BODY TYPE
탄탄이
FIT-STRAIGHT



다부진 하체를 가졌군.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은 클래식하며 어딘가가 그럴 듯해 보인다. 가장 만만해 보이겠지만 축 처진 엉덩이를 가진 사람에게면 여천치 소화하기 힘든 스타일. 평파짐한 엉덩이를, 오늘부터 앞으로 취침!
98,000원 W.A.C by 브라운브레스

DENIM DNA

데님 선조를 찾아서.

1500s 프랑스 마을 님스에서 거친 직물을 발견했다. '님의 농작(Serge de Nimes)'이라 불리던 것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데님(Denim)'이라고 짧게 불리게 된다.

1870s 재단사 야곱 데이비스는 구리 리벳을 박아 무거운 장비를 놓아둔 바지 주머니가 터지는 것을 보완한다. 이것은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의 전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다.

1920s 청바지의 원래 이름은 '웨이트트 오버올'이다. 일할 때 입는 튼튼한 작업복이라는 말이다. 이때까진 세시 아이러른 아-있었다.



1930s 영화 속 키우보이가 데님을 입기 시작했다. 이것은 남자의 티셔츠와 셔츠를 상징하게 된다.

색의 미학



1
2
3
4
5
6
7

할부 인생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든 청바지라면, 당신 몸에 딱 맞는 라인을 가졌거나 색이 기쁠나는 놀일 거다. 하지만 비싸다고 완벽한 청바지는 아니다.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일수록 어두운 색상을 고르는 게 좋고, 몸의 단점을 가려주는 바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말쑥한 몸을 가졌다면 밝은 색은 좀 더 많은 힘을 당신에 하체에 실어 줄 거다.

- 1 티업이 밝은 화이트 데님을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늙으면 더 민망하잖아. 495,000원 스톤아일랜드
- 2 약간의 색이 들어가도 부담감은 사라진다. 캐주얼하지만 양치런 안 되는 미팅 자리에 적합하다. 99,000원 테니존
- 3 기본 라인의 바지지만 워싱이 살짝만 들어가도 자유로워 보인다. 218,000원 게스
- 4 엉덩이는 넉넉하고 발목부분은 살짝 짙다. 밑단을 찢어 입으면 더 멋있다. 108,000원 브라운브레스
- 5 칠면조 엉덩이를 가졌다면 어두운 색감을 고르자. 사이즈 조절 기능이 있다면 금상첨화! 가격비중 뺀뺀
- 6 클래식한 디자인의 어두운 청바지는 앞·뒤를 바뀔 일지 없는 이상 절대 실패 할 일이 없다. 89,000원 테니존
- 7 짙은 색이라도 소재가 부드럽고 거처-에피타드 느낌도 천차만별이다. 198,000원 게스

블루진의 변신



블랙진

독 소리 나는 캐주얼 룩을 완성하는 최선의 선택. 단, 고스족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299,000원 지스타코우

그레이진

공식적인 '데이트 진' 색상으로, 블루진의 위상을 넘는다. 100,000원대 코데스컴바인 하이커

브라운진

얼은 하늘색 셔츠와 같이 입으면 이상적인 아도 활동 룩이 된다. 얼룩이 묻어도 타기 별로 안 나거든.
79,000원 지바이게스

레드진

너무 여성스럽다고? 위험요소가 다분하지. 하지만 여자들이 다가와 말을 걸 확률도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 비록 욕일지라도...
가격 미정 칼빈클라인진

1940s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도스 수감자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스트라이프 무늬의 죄수복이 내구성이 좋은 데님으로 바뀌었다.



1950s 재인스 단은 (이 유 없는 반항에서 청바지를 입고, 엘비스는 데님을 입고 열심히 피리피리 시켰다. 부모들은 반대했지만 유행은 퍼져나갔다.



1960s 청바지는 반항아의 유니폼으로 자리를 잡았고, 미국 젊은이의 일상복이 되었다. 히피는 바지에 그림을 그려대벌이 입진 일대리.



1970s 스트레이트진(공예), 배기진(종이), 스톤 워싱진(뱀뱀), 나팔바지(만 돼), 수놓은 바지(미쳤냐) 등 청바지의 정형수술이 시작됐다.

데님, 다리만 입기내



▲ 앞판보다 뒤판 길이가 좀 더 길어서 납작한 영영이는 볼륨감을 주고, 땀방한 영영이는 바림을 해준다.
123,000원 누드본스 by 피나클

▼ 데님소재의 캡은 한결 길이 존스라운 디자인만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48,000원 브리즈웨이 by 앳초온, 49,000원 특시 by 앳초온



▲ 클래식 캐주얼이 아이템의 백미 데님 재킷. 현대적인 도시남의 이미지를 살리려면 유행하는 아이템을 적절히 매치하자.
298,000원 데님앤서플라이 by 할프로렌



▲ 데님 사랑은 남녀노소. 안팎이 없다. 그래서 데님을 사칭한 속옷이 나오는 거다.
40,000원 게스 언더웨어



▼ 백팩도 데님을 입었다. 짙은 색이라 매치 8기가 까맣스렵지 않다.
239,000원 찬스포츠 by 피나클



▲ 남성적인 디자인에 부드러운 촉감의 셔츠로 차노 팬츠와 궁합이 잘 맞는다. 천변지와 입어도 땀신 길이 보이지 않으려면 짙은 색상의 바지를 입자.
299,000원 지스타보우



선동자 리바이스(Levi's)

리바이스는 청바지의 시초이자 역사다. 브랜드 특유의 도전 정신과 역동성을 표현한 새로운 광고 영상이 구상수에 올랐다. 영상 마지막 씬, 리바이스진을 입은 청년이 진압경찰에게 달라가는 뒷모습이 나오고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You're Marvelous)" 라는 말이 나온다. 이 부분은 최근 영국 폭동을 미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리바이스 측은 2003년 독일 베를린 '메이데이' 당시의 모습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영국 내 병영을 중단하기로 했고, 리바이스의 도전정신은 그렇게 한물 켜졌다.

1980s 예시드 워시 가공법으로, 부식으로 가공을 시켜서 데님은 다양한 워싱 기법을 보여주며 스타일리시하게 변한다. 미국 드라마 《Daisy Dukes》의 여배우 캐서린 바흐(Catherine Bach)는 영영이를 아슬하게 가린 짧은 청바지로 인기를 끈다.



1990s 캄빈클라인 언더웨어 모델이기도 했던 가수 겸 배우 마키 마크는 바지를 시도해도 없이 벗어내게 영영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영영이를 꺼려고 배기 친이 트랜드로 급부상하게 된 걸까.

2000s 벗거칠 정도로 영영이에 낚여 걸쳐 있는 힙스터(Hipster)의 인기로 스카니퀀츠에 밀리기 시작했다.

2010s 모든 종류의 바지는 지난 10년 동안 유행이후에 쇠약화된 라인으로 스타일리시하게 변했다. 당시의 다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느껴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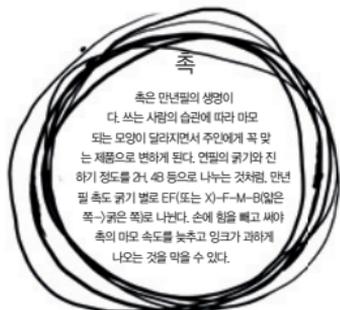
Got Ink?



만년필은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감성적인 여우로움이다. 쓰기도 번거롭고 비싸기까지 해서 아무나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멋지다. 눈독조차 사지라고 여기는 당신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소개한다.

BY 고평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COOPERATIONS
파버카스텔(www.faber-castell.com)
파카, 워터맨(www.hangso.com)
플래티넴, 온라인(www.pencafe.co.kr)



죽

죽은 만년필의 생명이
다. 쓰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마모
되는 모양이 달라지면서 주위에게 꼭 맞
는 제품으로 변하게 된다. 만년필의 굵기와 진
하기 정도를 24, 40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만년
필 속도 굵기 별로 EF(또는 X)-F-M-B(굵은
쪽->굵은 쪽)로 나뉜다. 손에 힘을 빼고 써야
죽의 마모 속도를 늦추고 잉크가 과하게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안정적인 무게와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된 그림은 덕에 장시간
써도 피로하지 않다.
50,000원 파버카스텔 F죽



3대 따윈 명필도 못 내릴 거다. 무려
8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독일 필기
구 파버카스텔은 언제 공학적인 모
양에 적당한 굵기 손에 착 감기는 것
이 특징. 반 고초와 찰스 황태자가
대표적인 파버카스텔 애호가였다.
160,000원 파버카스텔 EF, F죽



부업으로 만년필을 팔던 한 선생님은 잉
크가 새는 것에 불만을 가진 고객들을
위해 직접 보완해 만년필을 만든다. 이
것이 파카의 탄생 배경이다. 영국 왕실
의 공식 지명펜으로, 셀틱 울즈를 탄생
시킨 작가 아더 코난이 파카를 애용했
다. 스테인레스 스틸 펜촉이라 힘이 넘
치는 당신과 어울린다.
100,000원 파카 F죽



한 보험 외판원이 중요한 계약 중 편의
인크가 흘러 계약을 망친 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선물이 되어 돌아 왔
다. 당신의 현재 시련도 언젠가 성공으
로 보일거다. 그 성공의 순간에 어울
리는 워터맨 만년필은 15년 이상의 까다
로운 수작업으로 완성되다 프랑스의 우
아한 품격이 느껴진다.
126,000원 워터맨 X, F, M죽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라서 오래 써도 손
에 무리가 없다. 마블 재질이 자잘한 기
스를 가려주니 흑이나 다칠까 맘 풀이며
모서리까지만 하는 명칭한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름 구입할 거 사무실 책상에서
만 쓰면 되겠나? 바깥 공기도 쐬주자.
89,000원 플래티넴 F, M죽



엘대 자력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만들어서 감촉이 따
뜻하다. 브라운 컬러 카트리지와 인크.
다양한 굵기의 만년필(1.2mm, 1.4mm,
1.6mm)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선물
하기 좋다. 캘리그래피쪽은 써인양이 아
니다. 멋진 글씨를 뽐내고 싶을 때 쓰자.
135,000원 온라인 캘리그래피 죽



니 머를 찾아서 : 샴푸편



아무리 발버둥쳐도 막을 수 없다. 탈모 방지 샴푸 쓴다고 빠진 머리가 다시 난다는 건 개소리다. 하지만 자네가 대머리 되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지.

BY 고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ILLUSTRATIONS 전영준 ASSISTANT 조유림

헤드앤숄더
중성 이온액
중요하기



100mL
32,000원



473mL
23,500원



300mL
28,000원



300mL
6,900원



400mL
15,000원

1 피토 트리코비탈 샴푸
두피 전용 샴푸로, 차악
짜듯 두피에 짜서 쓰니
편하다. 달, 연은 오렌지
빛의 묽은 용액 타입이라
출라네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머리를 감고 난
후와 머리를 말리고 난 후
어지럽게 너무러져 있어야
할 머리카락이 현저히
줄어든 걸 보니 효과는
확실하다.

**2 후고내츨림
레온비헤너 샴푸**
레온이 가득 담긴 듯한
상큼한 향이 진하지만 인공
향료는 들어 있지 않으니
안심이다. 눈에 띄는 탈모
방지 효과는 없었지만,
알로에와 성분이 자외선에
손상된 두피를 진정시키고,
인삼추출물이 두피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든다.

**3 아베다 멘
큐어-포먼스 샴푸**
세정력은 강하고 머릿결은
부드럽게 지켜준다. 상쾌한
아로마가 잠깐까지 씻어
주는 것 같다. 제품에
포함된 보스웰리아, 감초와
해초, 세이지 추출물,
플라이와 티마누 오일 등이
뽕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피 보호 및 진정, 보습에
도움을 준다.

**4 헤드앤숄더
포먼 헤어용 클리닉 샴푸**
긴 머리 여성을 위해
칸디샤스 효과를 높인
샴푸는 짧은 머리카락의
남자에게 과도한 유분을
주고, 상대적으로 세정력이
약해서 헤어 엑스를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한다. 남성 전용
샴푸를 써야 하는 이유를
알겠지? 역시 비싸니까! 잠시
게으른 두발을 위해 린스
효과까지 더했다.

5 러 지양은 샴푸
반투명 노란색의 끈끈한
샴푸 느낌이 꿀 같다.
냄새가 진하지만 참을
만하다. 식약청에서 허가된
의약외품으로 임상 실험을
통해 탈모방지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니 따로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이 샴푸는 안 맞는 것 같다
비밀이 생기기 전에 앞머리 뒤집어
읽어야 이게 맞아.
정말 두발은 비싼 게 많잖아!

머리카락 사수하는
샴푸 법
H.E.P. 고주영
(베네스다 02-548-7787)



FURY IS BACK

REEBOK INSTA PUMP FURY

STYLE

〈최고의 사랑〉 구애정 운동화 퓨리가 순식간에 리복을 '대세'로 만들었다. 걸모습만 빼곤한 녀석은 줄 알았는데 신발에 적용된 인체공학이 제법이다.

BY 박한빛두리 PHOTOGRAPHS BY ARC STUDIO

JUN WATANABE X ATMOS FURY

그래픽디자이너 존 와타나베와 디자이너삼아트모스, 리복이 손 잡고 탄생시킨 이 녀석은 전 세계에 500족 밖에 없는 한정모델이다. 한국에서는 발매가 되지 않아 일본 프리미엄 멀티샵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존 와타나베가 그림 두개 까적었다고 가격이 무려 십만 원이나 뛰었다. 남자라면 절대 몸에 장착해서는 안 될 핫핑크와 도트무늬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훌씬 두지갑을 열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가격 399,000원



전면 메쉬소재에 신발 옆이 행행 트여 공기 순환이 탁월하다. 발에서 쏟아지는 욕수량이 싸이 거드랑이 버금가는 사람도 깨끗하게 덮게 잘 자산있게

PUMP IT

신발 내부의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주입하여 발과 신발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면 발에 딱 맞는 피팅감이 느껴진다. 펌프를 누르는 재미도 꽤나 쏠쏠하다.



존 와타나베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존 와타나베는 각 브랜드의 운동화, 가방, 신용카드까지 섭렵한 소위 '질나가는 놈'이다. 그의 '미스터 바틀 헤드'는 피규어, 아이폰 케이스, 헤어브러쉬 등으로 제작되어 열도 뽐송이를 간판캐릭터 대열에 합류했다. 대한민국 간판 캐릭터 따버기 어디 갔나?

아트모스

작은 디자이너로서 출발해 지금은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뉴발란스 등 내로라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와 협업하는 막강한 일본 스트리트 브랜드 아트모스. 이 녀석과 작업하면 'X ATMOS'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은 비싸지지만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되는 화려한 색상 패턴 때문에 올려 겨자 먹기로 자신을 소환하게 만든다.

일어 없어 개량 높다.





매정이 싸던~!

리복은 패셔니스타 공효진 덕을 톡톡히 봤다. 일명 '구애정 신발'로 불린 보라색 퓨리는 십만 원 이상 가격이 올랐고, 그녀가 잠깐 신고 나왔던 20주년 퓨리 역시 '중고나라' 장사꾼들의 활약에 힘입어 운동화 마니아들의 지갑을 탈탈 털어갔다. 이때다 싶었던 리복이 급하게 줄줄이 출시한 어장뻥한 디자인의 퓨리들은 허접한 색상 배합과 터무니 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질 행진을 기록 중이다. 리복, 국보소녀 구애정 덕에 극복~

20th ANNIVERSARY FURY

이 감빵형 퓨리는 2009년 리복 펌프 시리즈가 시판된 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재출시한 한정판이다. 1989년부터 수십 종의 다양한 펌프 시리즈가 출시되었는데, 그중 가장 역작으로 꼽히는 것이 이 감빵형 퓨리다. 이것이 처음 세상에 나온 해는 1993년.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 봐도 색시하다. 당시 형광색과 빨간색 조합의 신발은 서태지-이지아 결혼만큼이나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버스타비가 250만원인 그 시절, 출고가 2만 원의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완판을 기록하며 서태지-이지아 이혼만큼이나 충격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가격 319,000원



CARBON PLATE

카본 플레이트가 신발의 지지대 역할을 하여 뒤틀림을 방지한다.

HEXALITE

90년대를 주름잡던 발집에어 충격에 강한 육각형 발집구조의 폼이 충격을 분산시킨다. 초당 시점, 발집에어인 있으면 줄받장 댕싹뚱은 갸이었는데

이게 진짜 한정판 퓨리는 고무신 수준일세



NIKE AIR FORCE ONE 'SO CALS'

몇 년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운동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녀석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나이크 로고를 박았다. 운동하러는 가아, 밀러는 가아?

54,000,000원



헝지 주장 존 테리 축구화

존 테리 등번호 6과 아들 이름이 새겨져 있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백금 등의 보석 2,374개가 박혀 있다. 이거 신고 축구가 가능해?

24,000,000원



펌푸티 구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남성구두. 한 켤레에 몇 억 원하는 여성구두에 비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밑바닥의 갈 때나 신어야겠다.

1981,000원

WHO'S
THAT GIRL



이현민

때로는 섹시한 간호사로, 때로는 기묘노
차림으로 MAXIM PARTY 페이지를 더 뜨겁게
달구었던 그녀를 만났다. 이렇게 예쁜 그녀를
그냥 지나친다면 MAXIMO이 아니지!!!

BY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WORDS&FILM BY 송종민

HAIR 원나

MAKEUP 김재민

(삼릉루즈 02-3446-6434)

ASSISTANT 이보라

COOPERATIONS 슈즈원(02-3443-1703) 마루이네어
(02-3444-7712) 프제디, 율리우스(02-546-7764)

GO TO
MAXIM
IPAD



활영 원장을
안 볼 수가 없지



MAXIM 6월호 CLUB(140p)에 등장한 당신의 인기가 상당했다.

군데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을 많이 해왔다(웃음). 일본 사정에 가서 찾아왔는데 예쁘게 나와서 맘에 들었다. 파티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려놓으면 "옛 MAXIM에서 봤던 여자다" 같은 코멘트가 자주 달린다.

파티 사진에 여러 번 등장했다.

클럽에서 사는 거 아닌가?

친구가 파티 스태프라서 자주 오게 된다.

남자들이 많이 접근하겠지?

간혹사 코스튬을 입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다며 응급 환자인 줄 접근하는 남자들이 정말 많다. 맘에 안 들면 미안하다고 하고 필ippi 거절한다. 연예인들이랑 놀 때도 많은데 평소 이미지와 너무 다른 경우를 많이 봤다.

어찌지 왔나~
또 어디 술었나~

누구? 누구? 아니시라...?

클럽에서 있었던 일은 거기서 끝내는 거다.

클럽에서는 어떤 직업 엔트가 가장 잘 먹히나?

클럽은 시끄러워서 엔트보다는 멋진 춤을 추는 남자에게 끌린 적이 있다. 이미 거칠한 남자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후회했다.

당신의 남자 친구가 클럽 가는 것도 허락해 줄 건가?

만약 남자 친구가 생긴다면... 편 여자랑 놀지 않는다면 이해해 줄 수 있다.

클럽에서 가장 호응이 좋은 의상은 뭐가?

아무래도 가슴이 훤히... 파인 의상이 잘 통한다. 특이한 액세서리도 좋다. 뿔은 아이템이 먹힌다!

이성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너 남자 친구를 많지?" 내가 늦을 안 기리고 뭐냐 끝임성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당신을 유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발 알려달라!

애고! 특히 몸 좋은 남자가 부리는 예교는 정말... 마이트 마우스의 '상추' 같은 남자가 내 이상형이다.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연락 달라주세요. ☺

이현민
생년월일 1991년생

직업 학생
주요 활동 지역 강남역, 학원도, 일반도 강남역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거기 있다."

● 근차에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푸는 법" "스트레스 자체를 잘 받지 않는다."

취미 "친구들 만나서 노노라 따로 취미 생활을 할 틈이 없다!"

● 소원 토의 900점 넘기

장래희망 스튜어디스

◀ 좌 언더웨어 마루 이너웨어 ▶ 우 상의 프레디 셔츠 율리우스 귀두 슈즈원

CLUB

BY 김희성

PHOTOGRAPHS BY 마루PD(www.MARUPD.com)

COOPERATIONS CLUB ANSWER, ESCAPE KOREA

THE MAXIM PARTY 2011. 7. 22

MAXIM PARTY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해외스타들,
초유의 정전 사태 그리고 늘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핫한 MAXIM 파티걸의 퍼포먼스,
이 정도 돼야 파티라 할 수 있다.





뜨거운 파티 속으로



HOT CELEBRITY

MAXIM PARTY가 찾하다는 소문은 청담동을 넘어 저 멀리 물 건너까지 났나보다. 7월 22일 MAXIM PARTY에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다녀갔으니 말이다.

무려 블랙아이드피스의 리더씨이나 되는 윌아이엠(Will. I. Am)과 래퍼 겸 보컬 겸 프로듀서인 티페인(T-Pain)이 흑형 힙합 간지를 내뽐고 돌아갔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날 가장 반기는 얼굴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랑거리는 아이오이 소리였다! 부친영화제 참석차 내한했다가 MAXIM PARTY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거다. 이 날 눈앞에서 아이오이 소리를 목격할 수컷들은 '이게 무슨 행차?' 싶었을 거다. 소라 양, 듣고 있나? "혼또니아이터갯패티데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이오이 소리



티페인



윌아이엠



DANCE WITH MAXIM GIRLS

이 날의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클럽 전체의 조명과 음악이 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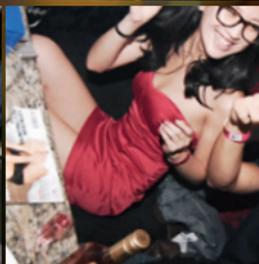
초유의 정진 사태가 벌어졌다.

때문에 예정돼 있던 MAXIM GIRL의 퍼포먼스는 물론 건너 가나 했으나
다행히도 전원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MAXIM GIRL의 등장.

그녀들이 투입되자마자 언제 정진이 일어났냐는 듯
클럽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예상치 못한 정진 소동에
몰이 난 사람들을 앉혔을 거다.

진짜 미안하다. 그래도 MAXIM GIRL들의 멋진 퍼포먼스에
빠진 마음이는 녹듯 사라지지?



THE MAXIM

PARTY

2011. 09. 24



**SPECIAL
GUEST DJ
ASTRO
VOIZE**

**Dguru. Gon. Drill.
Insidcore and VJ SIN**



**SEXY STAGE
PERFORMANCE**



Gates open at 10:00pm

© ANSWER

ReservationsVIP 01089788017



escape
korea

ALO
EYEGAR SPACE



feelsim
FASHION&CLUB



MODEL: 2011 MICS MAUM/SIN SEUNGWAL/CT OIB/M PHOTOGRAPHS BY: ARC STUDIO WUDAM/KEE/PIEBBS COOPERATION: PLS/PLM/INTS/4-8/0111 주영환/정현희/김소라/김민석



MILLER PARTY: TURN UP THE NIGHT

부산에 DJ 스티브 아오키가 땀다는 소식을 듣고 올 여름 휴가지로 서슴없이 해운대를 택했다. 클럽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진 진짜 지상 낙원, 병맥주는 이런 데서 마셔야 제대로지!

BY 김희성 PHOTOGRAPHS BY HOSPITAL PHOTOGRAPH
COOPERATIONS: 밀레비우정보리(www.miller.co.kr), CLUB EL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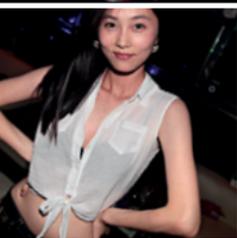
DJ OF THE DAY: STEVE AOKI

7월 29일, 부산에서 풀 중기로 소문난 클럽 엘룬(ELUN)에서 열리는 파티에 밀러 파티 관계자는 스티브 아오키를 설회하는 궁극의 센스를 발휘한다.

스티브 아오키가 출몰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그의 팬과 클러버들이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스티브 아오키, 아오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지? 동남 표정이 귀여운 할리우드 여배우 데브 아오키의 친오빠이자 전 세계 클럽 파티씬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DJ 밀리데(아키키)도 동생은 안 데려왔다. 특유의 퍼포먼스로 관중과 하나되어 파티를 즐기기로 유명한 그에게 이날도 삼매경을 일으켜 분사하고 상의를 탈의하고, 하체를 난리도 아니었다.

★ 스티브 아오키와 데브 아오키의 아버지는 유명 레스토랑 체인인 '베니하루'의 창업주이자 올림픽 레슬링 선수인 히로아키 아오키다. 스티브 아오키는 전생애 나라를 구했나 보다.

★ 데브 아오키는 이미 몸짱이다. 게다가 벌써 애 염다. 그녀의 약혼자 제임스 베일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데브 아오키가 아들을 순산했다는 소식을 올렸다. 관심이 쏠라 사자제너러.



MAXIM BUYER'S EDGE



커피 리큐르 갈루아, 텀블러 인택 출시

선산한 가을, 연인과의 나들이에 알맞은 커피 리큐르 갈루아를 동반하여 더욱 따뜻한 데이트를 만들어 보자. 8잔용 유리 텀블러에 고추 무장이 달린 캡과 미끄럼을 방지하는 집게손, 갈루아 700mL로 구성된 '갈루아 텀블러 인택(Kahlua Lumber In-pack)'은 대형 마트에서 만날 수 있다. 가격 28,900원

CLAE, 10주년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 사이의 스나커즈를 창조하는 CLAE는 올해는 런칭 10주년을 맞았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컬러의 F/W 컬렉션을 선보인다. 02-3446-1401



덴힐, 특수 커버 필록으로 변신

BAT 코리야가 담배 맛과 향을 최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특수 커버 '필록(FILOK)'이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의 덴힐 4종을 선보인다. 새 패키지는 패브 디자인, 엠보싱 처리된 덴힐 로고로 입체감과 탄자감을 더했다. 새 디자인은 덴힐 리미트, 덴힐 밸런스, 덴힐 1MG, 덴힐 프로스트 등에 적용된다. 소비자 가격은 각 2,700원.

MLB, 언더웨어 런칭

메이저리그와 150년 역사와 함께해 온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엠비엘(MLB)가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언더웨어를 선보인다.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해 인체에 맞는 디자인을 선보인 Fitness&Sports, MLB 특유의 클래식함에 유틸리티를 더한 Fun&Classic, 편안한 활동을 고려한 캐시번 소재와 디자인의 Sexy&Street, 이렇게 3가지 라인으로 선보이니 취향에 따라 고르자. www.themebstudio.com



스위스 아웃도어 워치

Luminox ATACAMA Field 1825

'ATACAMA Field Chronograph 1825'는 루미노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Field Timepieces' 시리즈로 칠레 북서쪽에 위치한 Atacama 사막의 극한 상황에서 사용된 제품이다. 별도의 동력 없이 밝은 빛을 5년간 유지하는 루미노스 필광 테크놀로지와 수심 100M 방수 능력, 크로노그래프와 일광 기능을 갖추고 견고한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 내부에는 스위스 멀티주얼 쿼츠 무브먼트가 자리잡고 있다.

가격 67만 원

문의 02-757-9866(미림시계)

www.milimwatch.co.kr

스프레이의 원조, 시세이도 우노 포그바

모발을 손상 없이 정돈시켜주는 뿌리는 스타일링제 '시세이도 우노 포그바'는 간편하게 뿌리고 모발 전체를 손으로 '쿠스 쿠스' 쥐어주는 것만으로도 빠르고 간단하게 스타일링이 완성되며 끈적임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딱딱하게 굳지 않는다. 상쾌한 시트러스 향의 '우노 포그바'는 한 번의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 낼 수 있다. 짧은 머리를 강하게 세팅해주는 '레드',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의 '화이트', 미디엄 소프트 헤어부터 롱 헤어까지 확실한 고정력이 필요할 때 '블루', 가장 강력한 고정을 원할 때는 '다크 블루' 제품을 사용해보자.



스카겐의 SOLAR WATCH, 833XLSLN

2010-2011년 RED DOT DESIGN AWARD를 수상하며 이미 그 디자인력을 인정받은 스카겐에서 SOLAR WATCH, 833XLSLN을 출시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 이미지차별 미드나잇 블루컬러 다이얼 속에 있는 배터리는 태양빛, 항광등을 통해 전력을 충전하여 작동되며 불려 컬러의 다이얼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6207-9924



보디가드 MW, 가을 신제품 출시

지난 11월 출시되어 꾸준한 착용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보디가드 MW에서 가을 남성 드로즈를 출시했다. 새로 출시된 드로즈는 브라와 컬러의 예니얼 나옴과 아웃밴드로 스키힘을 더해줌으로, 500 브라트 폴리스판으로 촉감이 아주 부드럽다. 가격 15,000원

**한국타이어,
2011 월드타이어랙 챌린지에서 준우승**



한국타이어가 후원하는 시에라시메라팀 (Sierra Sierra Team)과 개라지 레볼루션팀 (Garage Revolution Team)이 호주 시드니 이 스타트 크릭에서 개최된 '2011 월드 타이어랙 챌린지'에서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월드 타이어랙 챌린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튜닝카들이 매년 호주에 모여서 자웅을 겨루는 레이싱장기로 2010년에도 한국타이어의 시에라시메라팀이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www.hankookfire.com

코카-콜라, 수분 밸런스 위한 '아쿠아리우스' 출시

폭염과 열대야에 맞서자 스포츠 드링크 부문 아시아 판매 1위(전 세계 18개국에서 연간 57억엔 판매) '아쿠아리우스'가 국내에 상륙했다. '아쿠아리우스'는 칼륨 등의 이온 성분과 수분을 동시에 보충해 준은 물론, 아미노산 BCAA까지 함유하고 있으며 발포를 사용해 텃맛이 달콤하고 17.6kcal(100mL 기준)의 저칼로리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가격 240mL(캔), 500mL(PET), 1.5L(PET) 각각 900원, 1,700원, 2,900원(편의점 판매 기준)



발렌타인 위스키로 존경을 전하라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에서 추직 선물 세트를 한정 출시한다. 발렌타인 17년, 21년, 30년 제품으로 각각 구성된 선물 세트는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발렌타인 21년 선물 세트는 세련된 다크 브라운 톤의 고급 우드케이스에 담겨 특별함을 더한다.

가격 145,000원(17년 700mL), 218,000원(21년 700mL), 1,100,000원(30년 700mL) 문의 02-3466-5700



스왈치,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클래식 커뮤 시계 출시
스왈치의 대표 브랜드 스왈치에서 Lifestyle Collection 클래식 커뮤 시계를 선보인다. 필기를 연상시키는 깔끔한 브레이슬릿의 여성 용과 기능성과 함께 스포티한 느낌을 살린 남성용으로 출시하여 화이트, 블랙, 네이비, 실버 등 다양한 컬러의 디자인을 선보인다. 가격 남성용 221,000원 여성용 123,000원 문의 02-3149-9549 www.swatch.kr



소니바이오, 노트북 이벤트 실시

소니코리아가 신학기 시즌을 맞이하여, 동생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바이오 캠퍼스플러스 베스트셀러를 진행한다. 소니 바이오 시리즈 가격 할인, 15만 원 상당의 바이오 전용 액세서리 제공, 300만 원 장학금 추천 이벤트 등의 세 가지 이벤트로 할파적인 가격으로 바이오 노트북을 구매 할 기회이다.

문의 060-777-2000 vaio-online.sony.co.kr

CK JEAN, Mixed 남성 라인 출시

캠블리라인 진역사에서는 2011년 가을 남성용 Mixed 라인을 출시한다. 백엔, 매신저 백, 브리프 케이스, 크로스 오버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베이직한 블랙으로 라인을 구성했다.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감으로 멋디가 이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다. 가격 88,000원~158,000원





브라운브레스, 5주년 기념 컴필레이션 앨범
 편지 존스가 극찬한 프로듀서 '프리미어리'가 총괄 디렉팅 맡은 브라운브레스의 5주년 기념 컴필레이션 앨범 (Spread The Message)의 트랙리스트가 공개됐다. 브라운브레스가 진행했던 8가지 캠페인을 총 40여명의 아티스트가 각자 재해석한 예시지가 담겨있다. 2CD형태로 9월 둘째 주에 발매될 예정이며, 2개의 뮤직비디오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르티엔 드 브롱지드, 가족 태닝 제안

근육질의 집중감이 웃을 땀을 때 백색기처럼 하얀 피부를 드러낸다면? NG의 명품 기법인데 제 색을 내지 못하고 후줄근해 보인다면? 역시 NG의 명품 케어 브랜드인 플뤼에(Pluie)에서 여친 기법이 자연스럽고 톤보일 수 있도록 가족태닝로션 로션드옹 드 브롱 자드를 출시했다. 링크오일, 웨어버터, 스쿠알란을 함유하여 기방의 자연스러운 색 연출과 가족표면의 유연함과 탄력성을 보장한다. 가격 88,000원(50ml) www.pluie.com



VOGA 라트르, 한국 삼국 직전

보카 스와블링에 이어 레드와인 보카 라트르(750ml)가 국내에 출시됐다. 모던하고 독특한 보카 디자인(사실 화장품 병 같기도 하다)과 플라스틱 캡이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4가지 품종의 포도를 블렌딩하여 만들었다. blog.naver.com/ndulgekorea

그레이스 보드카, 센스 있는 후석 선물 세트 출시

눈썹엔 세련된 보드카 선물 세트로 당신 의 센스를 반영해 펼쳐라.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탄생한 프리미엄 보드카 그레이스 보드카가 추석 선물을 출시한다. 그레이스 보드카(750ml)와 전용 샷글래스 2개, 각 테일용 볼 글래스 1개와 고급스러운 케이스 안에 담겨있다. **가격 6만 원대**



빅토리노스, 신제품 CHRONO CLASSIC

수많은 남성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노스 스위스 아이 워치에서 오는 시즌을 맞아 CHRONO CLASSIC을 출시한다. 탁월한 기능과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빅토리노스의 CHRONO CLASSIC은 스포티 클래식 컨셉으로 기능성을 비롯한 스타일 부분도 놓치지 않은 것이 강점이다.

문의 02-3284-1300 www.galleryclock.co.kr

버드와이저와 즐기는 피맛한 프리미엄이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버드와이저는 잉글랜드 프리미엄이그와 맨체스터 유니티드와 같은 명성 높은 대회 팀을 후원하며 대표 맥주로 자리 잡았다. 비커우드 에이징 숙성 공법을 통한, 30일 동안의 양조와 발효과정은 버드와이저만의 부드러운맛도 깨끗한 맛을 선사한다. 버드와이저와 함께 피맛한 프리미엄이그의 세계로 빠져보자.

문의 02-549-3015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의 Post Summer Package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는 9월 한 달간 늦여름 패키지를 제공한다. 푸른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설마라 레스토랑에서의 여유로운 2인 조식과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 수영장에서의 커피용 카바나 무료 이용, 그리고 '아이싱이', '키즈 킹', '베이비 룰' 등 테마지 유행병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추석 연휴에 7, 8월의 북집하고 뜨거운 여름을 피해 여유롭고 시원한 휴가를 즐겨보자. 문의 02-2017-6500 가격 27만 원(세금, 봉사료 별도)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딱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다?

더할 때 가더가라!

GIFT LIST

도시 미스터모노레일/우노포그바/앤즈 클래식 에프터 쉐이브, 2in1로션/가스비 오이스처라이징로션 모엔, 화이트워시 오일 클리어링/TASK 셀프태닝/미러를 너와 함께라면 티켓빈디언 프리모일/술라가드 체험권/영화 콜롬비아나 무료 관람 /에디터의 마음 등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담긴다!

MAXIM 9월호 곳곳에 박혀 있는 QR 코드를 주목하라. 생생한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도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쫓아내 즐겨찾기 하하라. 문의: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9월의 승자는 입대 후 연하남에게 여권을 뺏겼다는 여친을 독재다. 쫓듯...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플라로이드 사진을 원하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세상에 공짜가 아냐냐?

- 1 MAXIM 9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9월호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첨부한 이미지가 때깔이 날수록, 내용이 알찰수록 플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치솟는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사진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 4 블로그나 트위터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 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10월호 MAXIM 플라로이드 이벤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붙을려고 확인한다.

BEAT THIS CAPTION

이달의 도전 과제



말풍선 달아가기



용모하기

- 1 솔직한 캡션을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레나니!
- 2 용모는 우편으로 (02-84)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빼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님에게 플루에 에탕쉬 알로 가죽코팅 방수제를 선물로 주겠다.



WINNER 지난달 우승자

"이종교배는 안 돼. 아잉 완송 수 없어 브라이언~"그린색보



곰을 파고드는 연어가 너무 힘찼던 모양 일까. 유난히 오뎅과 샷갓 트림이 넘쳐나는 말풍선 대란이었다. 그러나 이종교배의 위험을 경고하는 말풍선이 눈에 띄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만 발전과 성장을 멈출 수 없는 현대 유전공학의 이면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기에 환경을 사랑하는 MAXIM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프리모일 조립하고 남은 플라스티크는 당연히 분리수거 할 거지?

AND LOSER...이 패배자들!

"이곳이 곱슬이 푸가 바지를 놓고 갔다면 연어방... 다. 뱀아오르는군"

ID : 안아방

"당신 캡션 때문에 내 가이 달아오르게 됐다."

맥심

"연어 큰줄은 비린내 마니 날까~?"

ID : topion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맥심

"원소는 거들름..."

ID : 룬

"미안하네. 당신 캡션은 못 거두겠네."

맥심

MAXIM ATTACKS ANDROID TAB



다 주거봐

아이패드 E 매거진의 지존이었던 MAXIMO이 안드로이드 탭 침략에 나선다.



MAXIM 안드로이드 매거진은 10인치 이상 태블릿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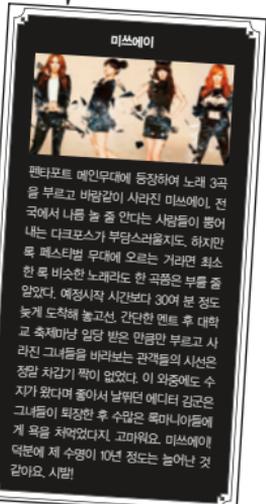
에디터 김군의 일기



MAXIM INSIDER

MAXIM 9월호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MAXIM 파티는 정전되고, 장마 때문에 정기구독자들이 분노했고, 아식으로 시킨 혼재오리가 전단지과 다른 바람에 이를 주도한 모 에디터가 불변에 빠지는 등 편집부 모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다. 하지만 태생 자체가 긍정적인 MAXIM 파티를 아니겠나. 이 모든 걸 호사마마로 통 치기로 했다. 그러나 MAXIM 100호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다(아니면 말고...) 어찌됐건 액션은 끝났다. 남은 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신나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목적을 준비하는 일뿐. 자, 그럼 지금부터 MAXIM 편집부가 9월호를 만들면서 있었던 일을 공개한다.

Special thanks to



미쓰에이

팬터포드 메인무대에 등장하여 노래 3곡을 부르고 바람같이 사라진 미쓰에이. 전국에서 나름 늘 줄 있다는 사람들이 붐비는 다크포스트가 부랑스러워졌다. 하지만 록 밴드 MAXIM 무대에 오른다는 거라면 최소한 록 비슷한 노래라도 한 곡쯤은 부를 줄 것이다. 예정시간 2시간보다 30여 분 정도 늦게 도착해 놓고는 간단한 멘트 후 대라고 축제마당 일당 받은 만민굴 부르고 사라진 그녀들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시선은 정말 차갑기 짝이 없었다. 이 와중에 수지가 왔다며 줄에서 날뛰던 에디터 김군은 그녀들이 등장한 후 수명은 목마나눔에 목욕 차려줬는지, 코미언이 미쓰에이에게 목욕에 세 수영이 10년 정도는 늘어날 것 같아요, 사립!



“하우 아류”는 나도 안다고

LA 보이가 된 김군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나들이를 떠난 에디터 김군. 미드에서 보면 위엄 짙은 올림피아 퀴리소 흑형의 형상국은 얼굴에 뚝뚝이가 금숙히 뜨고 라들다. 거머이 삼을 뜨고 있었다. “How Are You?” 라는 질문에 20년 간 연애했은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멘트도 못치고 “W. W. What?” 을 연발... 순간 흑형은 차가운 눈빛으로 날 노려보며 “플라플라플라~” 라고 말했고, 당황한 김군은 불리자드에서 낙낙 인내서를 보여주려고 나서서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문턱에서 강퇴당할 뻔 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아무도 김군을 한국인으로 보지 않았던 거다. 그곳에서 “열라 뽀미?” 를 외쳐도 아무도 이상하던 생각을 안 했으니. 이를 어쩔...

2011 팬터포드 페스티벌

동남아시아 기후를 온몸 가득 느끼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하라. 지옥이 당신 눈앞에 펼쳐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뮤지션의 공연이 결들여진다면 모든 게 용서되는 곳 또한 페스티벌이다. 이번 팬터포드 페스티벌의 숨은 보석은 첫날 헤드라이너인 B.O.B였다. 무개감이 다소 떨어지는데다, 바재범 바프로 반박 인기를 얻은 친구라 생각했는데 상상 그 이상의 무대를 보여줬다. 랩, 노래, 기타 실력까지 훑내며 좌중을 휘어잡은 그는 미처 날뛰는 한국 관객에게 흠뻑 빠져 ‘내년에 또 오겠다’ 는 드림을 날리며 기념사진까지 찍어 갔다. 그의 무대에 흠뻑 빠진 MAXIM 편집부는 지금부터 바재범이 전곡을 일기하며 내년에는 신나게 태향 모두에 합류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당년도 함께 할 텐가?



“오빠! 내 맘내 어때요?”

개나리 스텝에는 자비가 없다.

레알 수컷 김성호 선생님을 만났다. 그는 남자는 섹스와 폭력에 본능적으로 톨몰이가 끌리게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적절히 해소하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가르침을 내려주었다. 아예? 무릎을 탁 칠 만큼 감정 이입이 되지 않나? 수컷은 씨를 뿌리고, 뿌리기 위해 땀을 치도록 태어난 존재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감추지 말고(무태고) 들어대란 소리 아니고), 남자답게 시련시련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 자비 없는 개나리 스텝을 밟으며 멋진 사나이가 되자. ‘강악어, 중강악력만 치’ 는 필수다.



김희성 에디터의 위업

MAXIM 편집부 김희성 에디터의 인기가 여천히 하늘을 찌른다. 늘 모델보다 화끈한 의상을 두르고 멋진 화보를 연출해온 그녀의 진가를 공중파 방송에도 인정했다. 지난 달 부스에서 열릴 밀라 파티에 (V) 특공대가 방문했는데 김희성 에디터를 캐리커에 담긴 거다. 역시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똑같군. 널리 육적으로 아름답게 하라는 MAXIM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녀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공중파하던 2011년 8월 5일에 방송된 (V) 특공대 방송을 정주행하도록!



RECRUIT MAXIM 일일 어시스턴트 모집!

이번 달부터 우리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일일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고 있다. 기왕이면 예쁜 여자로 말이다. 이번 달에 파티들의 일일 업무를 도와줄 어시스턴트는 MSS MAXIM 콘테스트 예선 5회 차에서 1등을 차지한 이명희 양이다. P.32에 나온 MAXIM 수컷 두마리의 더러운 눈빛에 분노했을 당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사실은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이(다(심)지)는 마시던 맥주를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MAXIM 편집부에서 일일 어시스턴트를 하고 싶은 아파티온 여성분들, MSS MAXIM 콘테스트에 같이 지원해 주세요. 절대 해치지 않아요.



비전-원개나리소프!!



FX
남자의 모든 것



WWE
SUMMER SLAM

FX채널 및
모고 어플을
받기



WWE Monthly Special
2011 썸머 슬램
9월 3일(토) 밤 11시

tcast



www.fxchannel.co.kr
Copyright © FX 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